

전략연구 2017-10

충남 영상문화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

- 지역영상미디어센터와 작은영화관을 중심으로 -

정지은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jejung@cni.re.kr

정인선

동경대학교 박사
ohblur@naver.com

연구 요약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세계의 도시들은 문화콘텐츠, 창조산업, 영상 산업 등 성장을 위한 차세대 동력인 문화산업을 활용하여, 지역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자체에서 영상문화를 주목하는 이유로 지역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지역 주민과 가장 맞닿아 있는 분야이기에 지역에서 경쟁적으로 영상문화를 전략산업으로 육성시키고 있다. 최근 지역 문화발전을 위한 정책기반 강화(문화기본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시행) 등 지역의 문화 및 향유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이 확대되면서 영상문화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영상문화는 감성과 상상력에 기반을 두는 개인과 지역의 창조적 능력으로, 감성은 공동선을 중심에 두는 정서적 태도를 만들고, 상상력은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지역의 공동번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영상문화의 역량 강화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발전을 지역에서 주요한 정책분야로 선택하게 되었다. 영상문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에서는 이와 관련된 연구가 아직 미흡하여 정책적 활용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충남은 타 지자체에 비해 영상문화 관련 기반시설이 늦게 구축되어, 지역 간에 인프라의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충남도 영상문화의 확실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충남 영상문화의 주요 시설 운영 현황 및 프로그램을 파악하고, SWOT 분석을 통해 정책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의 발굴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세부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상문화의 개념 및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국내외 선행 영상문화의 사례를 조사하여, 충남 영상문화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충남 영상문화의 현황 점검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진행되어야 할 충남 영상문화의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셋째, 도출된 과제를 바탕으로 충남 영상문화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이론 연구 및 문헌고찰, 충남 영상문화 기반시설의 관계자와 관련 학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담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 자문회의, 현장 방문 등으로 진행되었다.

2. 주요 연구내용

1) 충남 영상문화 관련 기관의 운영 현황분석

① 정책분석 및 국내외 사례 분석(전문가 워크숍)의 시사점

지역 영상문화 진흥에 대한 정책과 지원의 근거가 강화되었으며, 지역민들의 영상 제작 및 향유 활동 지원을 통한 관객 개발과 영상문화 저변 확대 등 지역 영상문화의 진흥 필요성과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 대한 수요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영상문화 관련 이론고찰, 중앙정부 정책 검토 및 국내외 사례 분석(전문가 워크숍)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의 실정에 맞는 영상문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충남과 같이 도심과 농촌이 함께 있는 지방 정부라면, 해당 지역의 권역을 영상 관련 시설과 공공 문화 시설을 기준으로 삼아 구체화 그 접근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 주민들이 영상문화 생산의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영화의 상영과 관람을 제 공자(생산자)와 관객(소비자)이라는 단선적 관계로 파악해서는 영상문화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대중들의 문화적 역량이 성장하면서, 대중들은 이제 소비자라는 위치에만 머물지 않는다.

셋째, 영상 관련 시설의 자생력 강화이다. 협동조합이 필요한 것은 상업적 이윤을 내기 어렵지만,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설이 지역 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영상문화 활성화는 지역 공동체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지역의 영상문화는 단지 주민들이 영화를 많이 보는 것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영화의 관람이 의식적이고 공공적 행위로서 일어날 때, 만들어질 수 있다.

② 충남 영상문화의 인프라 운영 현황분석

충남의 영상문화 관련 기관은 총 43개가 분포하고 있으며, 천안시에 17개로 집중 분포되어

있고, 계룡시의 경우 관련 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문화 기관의 분포는 대부분 시와 군의 읍지역과 동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1개 기관 당 이용 인구는 서천군이 25,796명으로 가장 적고, 논산시가 112,780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천안시의 경우 영상문화 관련 기관이 17개가 분포하고 있지만, 1개 기관 당 이용 인구는 32,890명으로 적은 편으로 나타났다.

미디어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충남에 '천안시 영상미디어센터 비채'와 '서천군 미디어문화센터 소풍+'이 있으며, 현재 '서산시 지역영상미디어센터'가 건립 중이다.

또한 인구수가 적어 민간 사업자가 극장을 운영하지 않는 지역에 공적 자금을 지원해 극장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작은영화관'은 충남에 서천 기벌포 영화관이 있으며, 금산·예산·태안·청양의 작은영화관이 건립 중이다.

영상문화 관련 지원 기관으로 영상위원회, 지역콘텐츠 산업진흥 관련 기관, 지역문화재단 혹은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충남에는 충남영상위원회,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 영상문화와 관련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영상문화 관련 시민활동으로 작은영화제, 시민 영상문화 동호회, 대안상영공동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충남에서는 천안여성영화제, 시민 영상문화 동호회와 관련된 활동 등이 진행되고 있다.

충남의 영상문화 관련 대학 현황은 14개의 학교가 있으며, 영상과 관련된 이론 및 제작 등 다양한 과목들이 개설 중이고, 충남에는 영상문화와 관련된 다수의 대학 인력이 양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다양한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도서관이 충남에는 교육청 주체는 19개, 지자체 주체는 38개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역혁신 거점화를 통한 전략사업 및 특화산업 클러스트 육성 사업 등을 추진하는 충남테크노파크에는 고가의 영상 관련 장비들이 구축되어 있다.

따라서 충남 영상문화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특정 기구를 통한 지원체계의 수립 보다는 충남에 다양하게 있는 영상문화 관련 유관기관의 사업들을 연계하여 활용하고, 지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③ 충남 영상문화의 SWOT 분석

충남 영상문화의 현황은 아직 시작 단계로 볼 수 있으며, 관련 관계자의 심층면담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충남 영상문화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요인들을 도출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충남 영상문화의 강점 요인은 ‘대학교 영상 분야 졸업인력’, ‘충남의 영상문화 관련 시·군 협의체 발족’, ‘공동 공간 내 서천 기벌포 영화관·미디어문화센터, 인디플러스 천안·천안영상미디어센터 구축’, ‘충남 시·군의 작은 영화관 유치 계획(금산, 예산 태안, 청양)’ 등을 꼽을 수 있다.

충남 영상문화의 약점 요인은 ‘타 지자체에 비해 충남의 영상문화 관련 입지 미흡’, ‘지역 간 영상문화 인프라의 격차 존재’, ‘지역 간 영상문화진흥 조례의 제정 필요’, ‘전문 인력, 실무 인력의 부족’, ‘영상문화의 제작 여건 미흡(장비)’, ‘영상문화의 선도 핵심 프로그램 부족’ 등을 꼽을 수 있다.

충남 영상문화의 기회 요인은 ‘지역 영상문화 진흥을 위한 중앙정부(문체부)의 육성 의지’, ‘영화 및 비디오편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으로 지역 영상문화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확대 예상’, ‘충남은 영상문화 구축을 위한 시작단계이지만, 타 지역의 다양한 운영 사례를 통한 시행착오 축소 가능’, ‘영상문화 관련 시민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증가’, ‘충남 테크노파크에 영상 관련 고가 장비들 구축’ 등을 꼽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충남 영상문화의 위협 요인은 ‘영상문화 관련 인력들이 수도권으로 이전’, ‘지역 주민들에게 영상문화 관련 기관들의 사업 홍보 부족’, ‘충남 영상문화 관련 거버넌스 구축의 미흡으로 인한 지역 간 연계성 부족’ 등을 꼽을 수 있다.

2) 활용과제의 도출

본 연구에서 충남 영상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은 ‘지역 내 영상문화 창작기회 제공’, ‘영상문화 관련 시민 활동의 활성화’, ‘영상문화 전문 인력, 실무 인력의 육성과 활용’, ‘영상문화 관련 교육과정의 개발 및 홍보’, ‘영상문화 기반시설 간 연계 구축’, ‘충남 영상문화진흥 조례의 제정’, ‘조직과 시책강화 및 추진체계의 개선’ 등으로 제시하였다.

앞서 제시한 충남 영상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진전략을 일곱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지역의 영상문화 창작 기회 제공을 위한 창작 활동, 유통과 배급,

둘째,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영상문화 시민 활동 지원과 우수 공모 사업 및 국내 영화제 참여

기회 제공,
셋째, 충남형 시민영화프로그램어 양성과 충남 내 영상문화 관련 일자리 창출,
넷째, 도서관 영상교육 프로그램의 발굴 및 영상나눔버스 시네놀이를 통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다섯째, 작은 영화관, 영상미디어센터, 영상위원회 등 공동협력사업 발굴 및 운영,
여섯째, 충남 영상문화진흥을 위한 조례법의 제정 및 영상문화 관련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일곱째, 충남 영상문화의 자립형 시책 발굴 및 사업의 추진 등 이다.

① 지역 내 영상문화 창작기회 제공

지역의 영상문화 창작 기회 제공을 위한 단계적 개발 사업은 지역주민 주도형 영상문화 창작 프로그램 발굴, 창작여건 강화를 위한 영상문화 기반시설 간 워크숍 개최, 충남 내 영상문화 창작 사업 발굴과 시책추진 등이다.

지역의 영상문화 창작 기회 제공을 위한 유통과 배급의 집중 육성 및 운영사업은 충남형 커뮤니티 시네마 구축을 위한 작은영화관(독립영화관) 육성과 사업추진, 충남의 작은영화관(독립영화관) 내 독립영화·예술영화 관람 전용관 설치 및 운영, 충남 공공상영관(도서관 내 소극장, 구민회관 등)의 사업모델 구축 등이다.

② 영상문화 관련 시민 활동의 활성화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영상문화 시민활동 지원 사업은 충남 특성에 맞는 주민주도형 시네마 스쿨 운영, 충남 영상문화의 시민 동아리 활동 사업 발굴 및 운영, UCC 경진대회 및 작은영화관 순회를 통한 교육결과물 공유 등이다.

또한 영상문화 창작 활동에 참여한 도민들에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영상문화 시민 제작 활동의 우수 공모 지원 사업, 우수 영상문화 동아리 제작 활동의 국내영화제 참가 지원, 천안여성영화제와 함께하는 영상문화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③ 영상문화 전문 인력, 실무 인력의 육성과 활용

충남 영상문화 전문 인력 및 실무 인력의 육성과 활용을 위한 추진 사업은 충남의 시민영화

프로그래머 양성과정 개설, 시민 영화프로그래머 창작 활동 지원 및 천안여성영화제 프로그램의 운영 참여, 충남 내 영화·영상 관련 대학교 전문 인력 재교육 지원 등이다.

충남 내 영상문화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진 사업은 충남형 영상문화 관련 협동조합 구성 및 모두를 위한 극장 사업 추진 및 운영, 충남 내 영화·영상 관련 대학교와 충남 영상문화 기반시설 간 인턴십 과정 개설, 충남 내 영화·영상 전공 대학생과 영상문화 전문가 멘토링 사업 운영 등이다.

④ 영상문화 관련 교육과정의 개발 및 홍보

충남 영상문화 전문 인력 및 실무 인력의 육성과 활용을 위한 추진 사업은 충남의 시민영화 프로그래머 양성과정 개설, 시민 영화프로그래머 창작 활동 지원 및 천안여성영화제 프로그램의 운영 참여, 충남 내 영화·영상 관련 대학교 전문 인력 재교육 지원 등이다.

충남 내 영상문화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진 사업은 충남형 영상문화 관련 협동조합 구성 및 모두를 위한 극장 사업 추진 및 운영, 충남 내 영화·영상 관련 대학교와 충남 영상문화 기반시설 간 인턴십 과정 개설, 충남 내 영화·영상 전공 대학생과 영상문화 전문가 멘토링 사업 운영 등이다.

⑤ 영상문화 기반시설 간 연계 구축

충남의 영상문화 유관 단체 간 협력 관계 구축 사업은 충남 영상 문화거버넌스 포럼 구성 및 운영(영상미디어센터, 작은영화관, 영상위원회, 문화산업진흥원 등 관계자), 충남 내 영화·영상 전공 대학교와 영상문화 기반시설의 산학 협력 MOU 체결, 작은영화관과 영상미디어센터 간 공동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지원, 충남 테크노파크 내 정보영상융합센터의 공용장비 활용지원, 충남문화재단과 영상문화 기반시설 간 업무협약 체결 및 연대 사업 추진 등이다.

충남의 영상문화 기반시설 간 네트워크 형성 추진 사업은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의 영상문화 권역별 네트워크 업무협약 체결 및 워크숍 개최, 작은영화관,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영상문화 기반시설 간 연계 공동미디어교육 활용시책 발굴과 운영 등이다.

⑥ 충남 영상문화진흥 조례의 제정

충남 영상문화진흥 조례의 제정을 위한 사업으로 충남 영상문화진흥 조례의 제정, 수익금의

근거 마련을 위한 서천군 기벌포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남 영상문화의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등이다.

⑦ 조직과 시책강화 및 추진체계의 개선

충남 영상문화 인력의 전문성과 연계업무의 네트워크 강화사업은 충남 영화제 개최, 충남의 영상문화 관련 기관 전문가 협업 및 충남 영화제 기획을 위한 TF팀 발족 등이다.

3.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연구에서는 충남 영상문화 관련 기관의 운영 현황 및 사업들을 파악하여 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정책적 과제는 사업을 추진하는 일선의 정책담당자와 영상문화를 운영하는 실무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도출되었다. 향후 과제는 영상문화를 향유하는 도민들의 수요조사를 통한 세부사업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충남의 문화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의 역할과 정책을 제언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목 차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1
2) 연구 목적	3
2. 연구범위 및 방법	4
1) 연구 범위	4
2) 연구 방법	5
3. 선행연구와 차별성	7
4. 연구 흐름과 연구수행체계	9

제2장 영상문화의 정책동향

1. 영상문화의 개념과 범위	10
1) 영상문화의 개념	10
2) 영상문화의 범위	12
3) 작은영화관과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역할	15
2. 영상문화 관련 법률	16
1) 영상진흥기본법	16
2) 문화기본법	17
3) 지역문화진흥법	18
3. 영상문화 관련 추진 정책	19
1) 한국영화 진흥 종합계획	19
2) 영상문화의 정책 현황 및 분석	21
3) 지자체 영상문화의 정책 현황 및 분석	21

4) 국내외 지역 영상문화의 정책 동향	26
-----------------------------	----

4. 국내외 영상문화의 사례 조사 27

1) 일본의 나라국제영화제	28
2) 영국의 농촌 영화관 및 동네 극장(Neighbourhood Cinema)	35
3) 익산 공공 영상미디어센터의 재미 극장	41
4) 작은영화관 기획전	44
5) 지역 사회의 자력 운영 : 대구 독립영화전용관 오오극장	48
6) 시사점 : 시·군 시행계획의 필요사항 및 기본내용	51

제3장 충남 영상문화의 현황점검과 과제 도출

1. 분석의 틀 53

2. 충남 영상문화 관련 기관의 운영 현황분석 54

1) 충남의 문화지수	54
2) 충남 영상문화의 정책 현황	56
3) 충남 영상문화의 인프라 운영 현황	57

3. 충남 영상문화 관련 기관의 심층면담 분석 90

1) 조사 분석의 개요	90
2) 조사 분석의 결과	91
3) 분석 종합 및 시사점	96

4. 소결 및 활성화 과제도출 97

제4장 충남 영상문화의 활성화 방안

1. 접근 틀과 정책추진과제 99

1) 접근 틀과 기본방향	99
2) 추진전략	100

2. 충남 영상문화의 활성화 전략과 추진방안 101

1) 지역 내 영상문화 창작기회 제공	101
2) 영상문화 관련 시민 활동의 활성화	105
3) 영상문화 전문 인력, 실무 인력의 육성과 활용	109
4) 영상문화 관련 교육과정의 개발 및 홍보	113
5) 영상문화 기반시설 간 연계 구축	118
6) 충남 영상문화진흥 조례의 제정	123
7) 조직과 시책강화 및 추진체계의 개선	125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및 정책제언	127
1) 요약 및 종합정리	127
2) 정책제언	131
2. 향후 연구과제	134
참고 문헌	135
부록 1	139
부록 2	142

표 목 차

[표 1] 외부 전문가 원고 위탁	5
[표 2] 충남의 영상 문화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세미나	6
[표 3] 선행연구 검토와 본 연구의 차별성	8
[표 4] 영상물과 영화의 법적 정의의 차이	11
[표 5] 정책 과정에서의 영상 정책 구획	14
[표 6] 영상진흥기본법에서의 정의 규정	16
[표 7] 문화에 대한 법적 정의	17
[표 8] 지역문화진흥법에서의 지역문화·생활문화 정의	18
[표 9] 영화(영상)정책의 주요 이슈	19
[표 10] 영상 및 영상산업 관련 진흥조례	22
[표 11] 영상위원회 관련 조례	22
[표 12] 영상미디어센터 관련 조례	23
[표 13] 작은영화관 등 공공상영관 관련 조례	23
[표 14] 기타 영상 시설 등에 관한 조례	24
[표 15] 문화콘텐츠 및 영상관련 조례 현황	25
[표 16] 지자체별 영상문화 관련 주요 사업 분포	25
[표 17] 2016년 나라시의 기부금 활용(희망용도 기부금과 활용 사업)	31
[표 18] 지역 영화관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영국 BFI 보고서, 2007)	36
[표 19] 농촌 지역 영화 상영 지원 시범 계획(영국)의 3년 평가	38
[표 20] 익산 공공 영상미디어센터의 월 정기 상영 프로그램	43
[표 21] 오오극장의 상영 프로그램 계획	49
[표 22] 분석의 틀	53
[표 23] 시·군구 기준별 상위지역	54
[표 24] 충청의 영상문화 관련 조례	57
[표 25] 충남의 시·군별 영상문화 관련 기관 현황	59
[표 26] 충남의 영상미디어센터 현황	68
[표 27] 서천군 미디어문화센터의 2015년 주요사업 내용	71

[표 28] 천안시 영상미디어센터 주요사업	73
[표 29] 천안시 영상미디어센터의 2013~2015년도 운영현황	74
[표 30] 천안시 영상미디어센터의 주요시설	74
[표 31] 인디플러스천안의 이용요금	75
[표 32] 서산시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분기별 자금 투자 계획	76
[표 33] 2015년 작은영화관 기획전 운영 현황	78
[표 34] 충남의 작은영화관 현황	79
[표 35] 2016년 전국 지역별 관객 수, 매출액, 1인당 관람횟수	80
[표 36] 충남의 극장 현황	81
[표 37] 영상위원회 현황	82
[표 38] 충남지역 영상문화 관련 대학 현황(2017년 기준)	85
[표 39] 충남테크노파크 주요추진사업 및 성과(2010년 기준)	86
[표 40] 시·군별 도서관(교육청 주체) 현황(2015. 1. 1. 기준)	88
[표 41] 시·군별 도서관(지자체 주체) 현황(2015. 1. 1. 기준)	89
[표 42] 심층면담(공식면담)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 관련 개요	90
[표 43] 심층면담(공식면담)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내용	90
[표 44] 접근 틀과 기본방향	99
[표 45] 기본방향별 추진전략	100
[표 46] 작은영화관 조례 및 관람료, 수익금 규정	123

그림 목 차

[그림 1] 충남 영상문화 관련 기관의 현황	3
[그림 2] 분야별 주요 연구내용	4
[그림 3] 연구내용별 연구방법	7
[그림 4] 연구의 수행체계	9
[그림 5] 영상진흥기본법에서의 영상산업과 영상문화	11
[그림 6] 디지털 콘텐츠의 분류	12
[그림 7] 문화콘텐츠산업(영상산업)의 가치사슬	13
[그림 8] 한국영화 진흥 종합계획(2016~2018)의 주요 내용	20
[그림 9] 후루사토 납세 초이스 홈페이지의 나라시 부분	31
[그림 10] 시네마테크 상영회	33
[그림 11] 2015년 개최된 호시조라 상영회	33
[그림 12] 카와세 나ومی 감독이 진행하는 어린이 영상 제작 워크숍	34
[그림 13] 동네 극장(Neighbourhood cinema)의 로고	40
[그림 14] 익산 다큐 영화제 포스터	42
[그림 15] 2017 작은 영화관 기획전 포스터	46
[그림 16] 영동 레인보우 시네마 영화 쓱쓱 가면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	47
[그림 17] 오오극장에서 개최된 대구단편영화제와 오오극장 안에 있는 삼삼다방	50
[그림 18] 2014년 기준 전국 지역문화실태조사 종합지수	55
[그림 19] 영상문화의 인프라 구축	58
[그림 20] 충남의 시·군별 영상문화 관련 기관 현황	60
[그림 21] 집계구 기준 인구 500명 이상 지역	61
[그림 22] 집계구 기준 평균 나이(30~40세, 40~50세)	62
[그림 23] 유소년층 비중이 20% 이상인 지역	63
[그림 24] 청장년층 비중이 60% 이상인 지역	64
[그림 25] 노년층 비중이 40% 이상인 지역	65
[그림 26] 노령화지수가 100 이하인 지역	66
[그림 27] 1인 가구 비중이 50% 이상인 지역	67

[그림 28] 서천군 미디어문화센터의 비전 실현 계획(2014~2017년)	69
[그림 29] 서천군 미디어문화센터의 미션 및 비전	70
[그림 30] 서천군 미디어문화센터의 교육현장	72
[그림 31] 천안시 영상미디어센터의 전경 및 상영관	74
[그림 32] 서산문화원의 전경 및 내부	76
[그림 33] 서천군 기벌포영화관과 청양군 작은영화관 전경	79
[그림 34] 천안영상미디어센터의 운영 체계도	83
[그림 35] 2016 천안여성영화제의 포스터와 전경	84
[그림 36] 충남 영상문화의 SWOT 분석	91
[그림 37] 은평구민 영화제작 프로젝트 ‘거침없이 영화 만들기’ 사례	102
[그림 38] 대구 독립영화전용관 오오극장의 프로그램	104
[그림 39] 전북의 주민시네마스쿨 사례	106
[그림 40] 나라국제영화제 영상문화교육 사례	108
[그림 41] 수원의 시민영화프로그래머 사례	110
[그림 42] CJ오쇼핑 멘토리사업 및 춘천교대 멘토·멘티형 교육 프로그램	112
[그림 43] 독립영화공공상영회 및 서울시내 도서관 내 독립영화 상영	114
[그림 44] 부천시민미디어센터의 영상나눔버스 시네놀이 사례	116
[그림 45] 전북 영상문화 기반시설과 주민시네마스쿨 협력 모델	118
[그림 46] 충남문화재단 지역문화진흥 워크숍 사례	120
[그림 47] 호남지역미디어센터 네트워크 협력 사례	121
[그림 48] 충남형 영상문화의 협력체계 모델 예시	122
[그림 49] 2017작은영화관 기획전 포스터 및 전북시네마스쿨 단편 특별상영	126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과 필요성¹⁾

(1) 최근 지자체의 성장 산업으로 영상문화가 주목받기 시작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003년부터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시행되면서 지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각 지자체들이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로 문화가 주목받기 시작하였다(서상아, 2008). 세계의 각 도시들은 창조산업, 문화콘텐츠, 엔터테인먼트산업 등 성장을 위한 차세대 동력을 문화산업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각 지자체 역시 다양한 문화산업과 연계하여 지역을 발전시키려는 시도가 활발한데, 그 중에서도 영상분야는 최고의 성장산업으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자체에서 영상문화를 주목하는 이유로 영상분야가 지식과 아이디어 집약산업이며, 거대한 자본이나 생산설비 없이도 다양한 창구 효과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지역 내의 관련 산업들과 연관효과 및 외부효과를 제공하기 때문이다(류민호, 2007). 최근에 영상문화는 지역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원동력이 되면서, 지역에서 경쟁적으로 영상문화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2) 국내 영상문화의 확산을 위한 「영상진흥기본법」 제정과 시책 추진

새로운 정책적 틀로서 지역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는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이

1) 문화체육관광부(2014),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1~6쪽의 내용을 바탕으로 인용·정리함

제정되고 시행된 이후, 지역문화역량 강화 및 지역문화를 발굴하기 위한 국가·지역차원의 계획수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홍교훈 외, 2016). 국내 영상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기반의 조성으로 정부는 「영상진흥기본법」을 제정하고, 한국영화진흥종합계획 등의 지원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영상진흥기본법」은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 및 영상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영상문화 창달과 영상산업 진흥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또한 영상문화의 정책은 이전까지 공급과 매개 부문에 한정되어 있던 것을 수요부문까지 확장하면서 영화(영상) 감상, 영상제작, 영상미디어교육 등 지역민의 참여적 활동과 연계시키고 있다.

(3) 충남에는 영상문화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나 활용성은 미흡

우리나라의 영상산업 및 영상문화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지자체는 부산이 영상 분야를 전략산업으로 정하여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대체적으로 지자체에서는 작은영화관,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등 지역 밀착형 영상문화 인프라 조성과 운영이 확대되고 있으나,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종합적 발전전략과 지원체계를 고려한 지역 영상문화의 활성화 방안 수립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충청남도 영상문화 관련 주요 업무는 작은영화관·영상미디어센터·영상위원회의 운영이며, 영상인프라 현황 조사, 종합발전계획 등 지역영상정책 수립을 위한 업무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향후 충남에서도 영상문화 관련 프로그램 및 인프라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충남 영상문화의 현황을 파악하고, 작은영화관과 지역영상미디어센터를 중심으로 정책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의 발굴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특히 충청남도 영상문화 활성화 정책에 포함되어야 할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작은영화관 등 지역영상문화 관련 기관의 연계방안, 시민 활동, 교육 현장의 사회정책영역과 연계시킴으로써 영상문화의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시사점도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림 1] 충남 영상문화 관련 기관의 현황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영상문화 관련 법률 및 추진 정책과 운영 현황을 검토하여 지자체 차원의 실효성 있는 영상문화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상문화의 개념 및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국내외 선행 영상문화의 사례를 조사하여 충남 영상문화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충남 영상문화의 현황 점검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진행되어야 할 충남 영상문화의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셋째, 도출된 과제를 바탕으로 충남 영상문화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하였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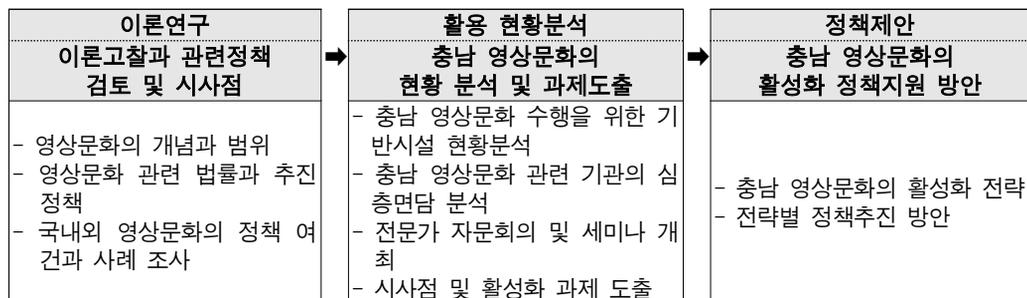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충청남도 전지역 15개 시·군의 영상문화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시간적 범위는 2016년을 분석의 기준연도로 하였고, 자료는 영상문화와 관련된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보고서 및 충청남도 내부 자료를 참고하였다. 연구대상은 영상문화를 구성하는 주요 기관인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작은영화관을 중심으로 지자체의 영상문화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기관(영상위원회,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시민 활동, 교육 기관도 살펴보았다. 연구내용은 크게 영상문화의 개념과 범위, 영상문화 관련 법률과 추진정책 분석, 국내외 영상문화의 사례 조사, 충남 영상문화 기반시설의 운영 현황 조사, 충남 영상문화의 수립 활성화 과제와 전략, 활성화 방안 도출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상문화 관련 법률인 영상진흥기본법,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을 살펴보고, 현재까지 진행된 한국영화 진흥 종합계획과 영상문화의 정책 현황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영상문화의 개념과 범위를 검토하고, 지자체 영상문화 정책의 여건 및 국내외 지역문화진흥 및 영상문화의 정책 동향 분석과 국내외 우수 영상문화의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셋째, 충남 영상문화의 인프라 운영 현황 및 사업들을 파악하여 소결 및 활용과제의 도출 등을 제시하였다.

넷째, 충남 영상문화의 활성화 방안으로 접근틀과 기본방향 제시, 활성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그림 2) 분야별 주요 연구내용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① 이론연구 및 문헌고찰, ② 외부전문가 공동연구, ③ 충남 영상문화 관련 기관의 추진사업 현황조사, ④ 충남의 영상 문화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세미나 개최, ⑤ 충남 영상문화의 활성화 방안 및 과제 등을 도출하였다.

(1) 이론연구 및 문헌고찰

영상문화 관련 이론 고찰과 정책의 검토는 문헌조사로 영상진흥기본법, 문화기본법, 한국영화 진흥 종합계획과 관련된 정책보고서, 조사 연구보고서 등을 분석하여 영상문화 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 외부전문가 공동연구

외부전문가 공동연구는, 충남에서 영상문화 관련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영상문화 관련 외부전문가에게 집필을 의뢰하였고, 국내외 영상문화의 사례조사 및 충남 영상문화의 현황분석 및 과제도출에 참여하였다. 또한 해외 영상문화의 사례조사를 위하여 2017년 3월 27일부터 4월 18일까지 공동연구자가 일본의 나라국제영화제를 직접 방문하여 관계자와 충남 영상문화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내용 등을 심층면담 하였다.

[표 1] 외부 전문가 원고 위탁

외부전문가	소속	주요 연구내용	연구기간
정인선 박사	동경대학교	국내외 영상문화정책의 여건·사례 조사 및 정책 도출	2017. 3~5

(3) 충남 영상문화 관련 인프라의 추진사업 현황조사

충남 영상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관(작은영화관,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충남영상위원회 등)의 추진사업 및 현황조사를 위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은 2017년 3월 22일부터 4월 24일까지 영상문화 관련 전문가, 충남도청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하였다.

영상문화 관련 기반시설 심층면담의 조사 내용은 ① 충남의 영상문화 여건, ② 기관의 영상

문화 관련 추진 사업과 역량, 운영시 어려운 점 및 문제점 도출, ③ 영상문화 관련 사업의 향후 시행계획, ④ 기관의 영상문화 관련 발전방향 모색, ⑤ 응답자 기본 사항으로 구성되었다.

(4) 충남의 영상 문화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세미나 개최

충남에서는 영상 분야의 문화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관련 기관들의 협의를 발족하였고, 향후 영상 관련 기관들의 유기적 공동사업 발굴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충남 영상 문화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충남 영상문화의 발전 방향에 시사점을 제공할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하였다.

[표 2] 충남의 영상 문화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세미나

	주제	참석자
발제	· 영상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정책적 제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채지영 연구위원
	· 지방 소도시에서의 영상문화 활성화 사례	동경대 정인선 박사
	· 충남 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 및 협력 방안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최성은 이사장
좌장 및 지정토론	순천향대 변재란 교수, 영화진흥위원회 기반조성본부 김용훈 본부장,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허경 사무국장, 충남도청 김제환 팀장,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장성각 본부장, 서천기벌포영화관 구재준 센터장, 청운대학교 박정배 교수	

(5) 충남 영상문화의 활성화 방안 및 과제 도출

최종적으로 연심회, 자문회의 및 전문가 세미나, 사례조사(현지 방문) 등을 통해 충남과 시·군 여건에 적합한 영상문화 활성화 방안의 기본방향과 종합과제를 도출하였다.

연구내용	연구방법
영상문화 관련 문헌 고찰과 정책의 검토	- 연구논문과 정책보고서 등 문헌조사 - 외부전문가 연구 참여
충남 영상문화 관련 기관의 현황 점검 및 추진사업 분석	- 통계자료 및 행정내부자료 분석 - 정책자료 수집
충남 영상문화의 인프라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전문가 자문 협의	-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영상문화 관련 기관의 담당자 심층면담
충남 영상문화의 활성화 방안 도출	-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 세미나로 의견수렴 및 정책 대안 반영

(그림 3) 연구내용별 연구방법

3. 선행연구와 차별성

영상문화와 관련된 기존연구를 주제별로 범주화하면 ① 영상미디어센터 관련 연구, ② 지자체 영상·영화문화 관련 연구, ③ 충남 문화콘텐츠 관련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영상미디어센터 관련 연구’는 지역영상미디어센터가 의도하는 지역 영상교육 및 영상산업 네트워크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기 위한 적절한 운영 및 평가방안을 검토하여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추진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지자체 영상·영화문화 관련 연구’는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영상·영화문화의 현황 및 사례 분석을 통해 지역 영상·영화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충남 문화콘텐츠 관련 연구’는 충남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제작 역량을 강화하고 유통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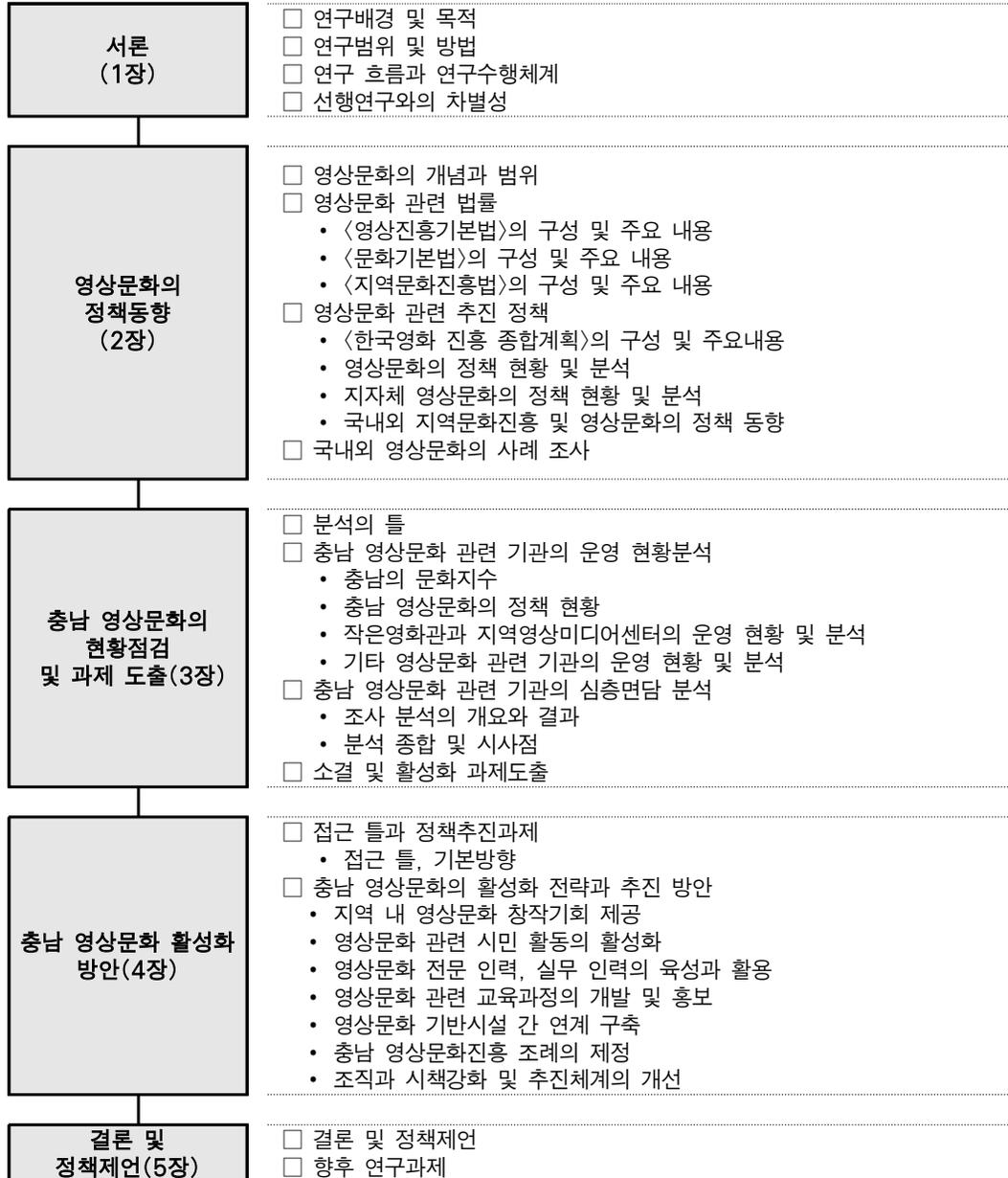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충남 광역단체 관점에서 영상문화 정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충남 영상문화 관련 기관의 현황 분석 및 국내외 선행 사례 분석, 세미나 등을 통해 지역의 현실에 맞는 시행계획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표 3] 선행연구 검토와 본 연구의 차별성

유형	과제명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 주요내용
영상미디어센터 관련 연구	영상미디어예술센터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기초 사례조사	미디어예술센터의 설립목적, 조직구성, 운영형태와 성과별로 종합적 분석 실시	문헌연구 사례분석	미디어 아트센터의 설립 배경, 공공 비영리기관/교육기관/상업적 기관 등의 사례 분석, 영상미디어예술센터의 설립 제언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및 평가 방안 연구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추진정책 도출	문헌연구 사례분석 심층인터뷰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정책효과, 운영 방안, 국내외 사례, 평가 및 개선방안
충남 문화콘텐츠 관련 연구	충남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정책의 추진실태와 경쟁력 강화 방안	충청남도의 문화콘텐츠산업 문제점 검토, 제작 역량 강화 및 유통 활성화 전략 방안 도출	문헌연구 실태분석	문화콘텐츠산업의 이론적 고찰, 현황과 제도적 여건, 충남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정책 및 정책수요, 경쟁력 강화 방안
지자체 영상·영화문화 관련 연구	부산지역 영상산업 육성방안	부산지역 영상산업의 과제 도출 및 육성방안 모색	문헌연구 사례분석 심층인터뷰	영상산업의 개요, 국내외 영상산업 육성정책, 국내외 영상산업의 현황과 전망, 현황과 과제, 육성 방안
	부산지역 영화산업 기반 확충방안	부산지역에 영화산업이 정착하고 발전할 수 있는 정책방향과 수단 모색	문헌연구 사례분석 심층인터뷰	영화산업의 개요, 부산지역 영화산업 기반, 해외 사례, 부산지역 영화산업 기반 확충방안
	다양성 영화의 지역 상영 활성화 방안 연구	다양성 영화의 관객을 개발하기 위한 정책 마련	문헌연구 실태분석	다양성 영화 지역상영의 현황 및 실태, 상영기반 조사, 정책 대안, 관객 개발 방안
	지자체별 영상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지역영상문화와 관련한 개념의 범주를 설정하여 정책수립의 프레임을 제시	문헌연구 현황분석 사례분석	영상문화 개념과 범위, 지역 영상문화 정책 현황, 사례분석, 정책수립 방안
본 연구	충남 영상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추진 방안 모색	충청남도의 영상문화 현황 분석과 충남 여건에 맞는 영상문화의 과제 도출 및 활성화 방안 모색	문헌연구 사례분석 현황분석 자문회의 세미나	영상문화의 개념과 범위, 영상문화 정책의 현황 및 분석, 국내외 영상문화의 사례조사, 충남 영상문화 관련 기관의 현황분석, 정책수립 방안

4. 연구 흐름과 연구수행체계

본 연구에서 수행한 연구흐름의 수행체계는 다음과 같다.



(그림 4) 연구의 수행체계

제2장 영상문화의 정책동향

1. 영상문화의 개념과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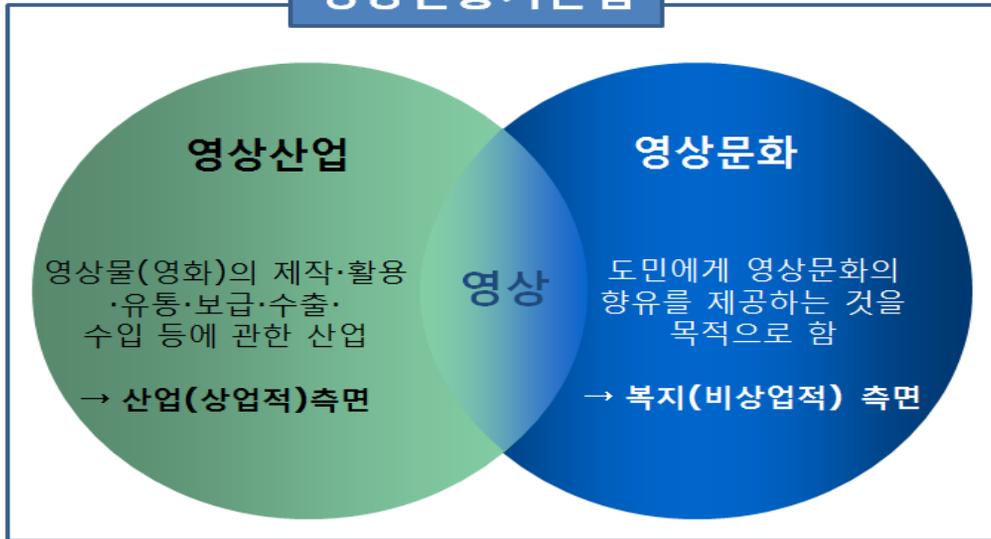
1) 영상문화의 개념

문화정책에 관한 유네스코(UNESCO) 국제회의에서 규정한 광의의 문화란 “어떤 사회나 집단의 성격을 나타내는 독특한 영적, 물리적, 지적, 정서적 특성들의 총체적인 복합체로, 그것은 예술과 문자뿐만 아니라 삶의 양식, 인간의 기본권, 가치체계, 전통, 믿음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정보화 사회는 뉴미디어와 맞물려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면서, 영상문화와 이미지의 시대로 불린다. 이는 정보화 사회의 모든 커뮤니케이션 중심에 영상 미디어와 영상 콘텐츠가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심광현 외, 2003).

영상문화는 영상물을 매개로 하여 다양한 문화적 행위를 포함하는 사회적 행위의 총체적인 개념을 의미하며, 정책에서의 영상문화는 구체적인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법적 표현으로서 영상문화는 「영상진흥기본법」에서 처음 등장하였으며, 영상분야를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으로 구분하였다. 영상산업은 영상물의 제작·활용·유통·보급·수출·수입 등에 관한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하며, 영상문화는 도민에게 영상문화의 향유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홍교훈 외, 2016).

「영상진흥기본법」에서 정의되는 영상물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영화 개념은 다음과 같은 차이를 가진다. 영상물과 영화는 연속적인 영상으로 이루어졌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매개와 상영(재생)에 있어서 영상물이 영화보다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영화에서 작품(저작물)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나 영상물은 작품이란 개념의 유무와 상관없이 적용될 수 있기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만들어진 것을 제외하고, 영화를 포함하여 상영되는 영상물 전체를 의미한다.

영상진흥기본법



〔그림 5〕 영상진흥기본법에서의 영상산업과 영상문화

〔표 4〕 영상물과 영화의 법적 정의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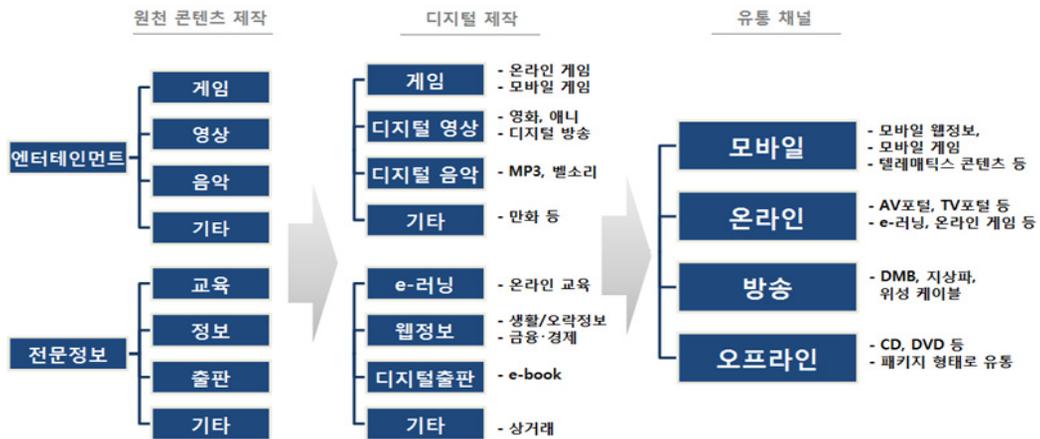
근거법	◦ 영상진흥기본법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대상	◦ 영상물	◦ 영화
규정	◦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테이프·디스크, 그 밖의 유형물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할 수 있는 물체	◦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 영관 등의 장소 혹은 시설에서 공중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
매개물	◦ 필름, 테이프, 디스크, 그 밖의 유형물	◦ 필름, 디스크 등 디지털 매체
형태	◦ 연속적 영상	◦ 연속적 영상
상영 또는 재생방식	◦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 송수신	◦ 영화상영관을 포함한 시설에서 공중에게 관람
기타	◦ 저작물 개념이 없음	◦ 저작물 개념이 있음

자료 : 영화진흥위원회(2016a), 『지자체별 영상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p. 29.

2) 영상문화의 범위

디지털 콘텐츠는 내용적으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와 정보 콘텐츠로 분류할 수 있으며,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의 하위분류에 영상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금성근, 오재환, 2011).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는 게임, 영상, 음악과 같이 사용자가 즐거움을 얻기 위해 소비하는 콘텐츠를 의미하며, 정보 콘텐츠는 일반정보, e-러닝, e-book 등과 같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할 목적으로 소비하는 콘텐츠를 뜻한다. 디지털 콘텐츠에서 전달되는 채널은 온라인, 방송, 오프라인 콘텐츠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공공 정책 대상으로서 영상문화의 범위는 문화정책 및 공공문화 사업의 영상(영화 포함)과 관련되어있거나 영상을 매개로 한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홍교훈 외, 2016). 영상문화는 본원적 속성인 총체적 특징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며, 최근 영상 플랫폼 환경의 빠른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 영상산업과 영상문화는 대비되는 개념이지만, 영상(영화)은 초창기부터 산업적 영향력과 문화적 역할이 혼합되어 발전해왔기에, 두 가지 영역을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활동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영상문화 활동은 단순히 수동적인 향유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 창작과 상영에 이르는 다양한 영역을 포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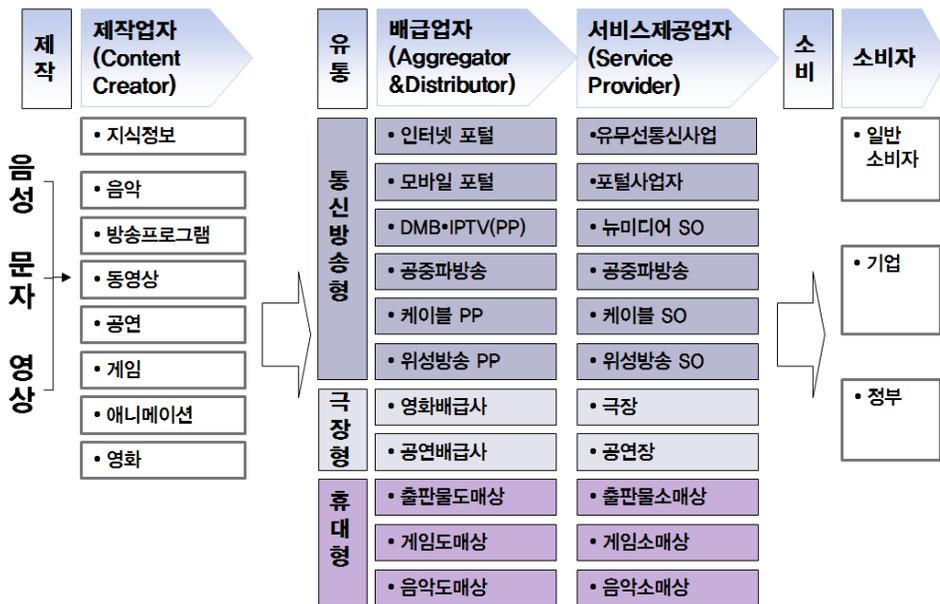
자료 : 박재범(2006), 『디지털 콘텐츠 사업의 총아 콘텐츠 애그리게이터』, p. 18.

주 : 1) KIPA, KISDI 분류를 종합하여 LG경제연구원 재분류

2) 원천 콘텐츠를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활용하기 위한 중간 가공 과정

[그림 6] 디지털 콘텐츠의 분류

문화콘텐츠산업의 가치사슬은 영상산업에 가까우며, 영상 관련 행위에 따라 ‘제작 형태’, ‘배급 및 상영형태’, ‘교육’, ‘축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홍교훈 외, 2016). ‘제작형태’는 극장상영, 텔레비전 방영 등을 목적으로 이미지의 연속으로 이루어진 영상물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맞물려 다양한 플랫폼에 따른 다변화된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작되는 형태에 따라 극영화, 다큐멘터리, 텔레비전 드라마, 보도영상, 뮤직비디오, 홍보영상물(CF), 비디오아트, 교육용영상, 인터넷방송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며, 영상산업과 대비되는 개념에서 영상문화는 주로 비상업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포괄한다. ‘배급 및 상영형태’는 상업적 배급망을 통한 상업극장에서의 상영행위나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되는 비디오, DVD, IPTV를 통한 서비스 형태의 영상 산업을 의미하며, 이를 제외한 비영리적 상영행위 및 방영 형태가 영상문화를 뜻한다. ‘교육’은 영화 문해력 교육, 시민미디어 교육, 비영리적 전문영화 교육 등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축제’는 지자체 주도의 영화제, 민간 주도의 작은 영화제 등이 있다.



자료 : 고정민(2008), 『한국문화산업의 발전전략』, p. 4.

주 : PP(Program Provider)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SO(System Operator)는 유선방송 사업자를 의미함

(그림 7) 문화콘텐츠산업(영상산업)의 가치사슬

본 연구에서 영상문화의 범위는 지역주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비상업적 영역의 ‘배급 및 상영형태’, ‘교육’으로 한정하여,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영상문화 관련 정책의 중요한 기관으로 ‘배급 및 상영형태’의 기반시설(지역영상미디어센터, 작은영화관), 지자체의 영상문화에 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기관(영상위원회, 지역콘텐츠 산업진흥 관련 기관 등), 교육(잠재 인력, 영상교육) 등을 꼽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영상미디어센터와 작은 영화관을 중심으로 이들의 주요 현황 및 사업들을 파악하여, 영상문화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표 5) 정책 과정에서의 영상 정책 구획

구분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법 제도적 측면	영화 관련 법령	자치법규(조례 및 규칙)	자치법규(조례 및 규칙)
행정조직	중앙정부(문화체육관광부)	광역 시도	시, 군, 구(광역)
지원기구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영상위원회/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문화재단 등	
실행주체 (행위자)	관련 협회, 단체	미디어센터/작은영화관/각종 영화제 조직/ 시네마테크/영상(영화)동호회/지역 독립영화단체 등	
예산	국고, 영화발전기금	지방비	
사업	영상 향유권 사업, 다양성 영화 지원 사업, 영상(영화)교육 사업 등	지역 영화(영상) 관련 사업	

자료 : 영화진흥위원회(2016a), 『지자체별 영상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p. 35.

3) 작은영화관과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역할

지역의 영상문화를 운영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반시설로 작은영화관과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영상위원회, 기타 영상 관련 기관들이 있으며, 특히 충남에서는 지역주민에게 복지 측면의 영상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작은영화관과 지역영상미디어센터를 꼽을 수 있다.

영상정보 시대의 도래와 함께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조성되고, 미디어 수용자의 범위도 확장되면서 미디어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미디어 활용능력에 대한 요구가 생겨 그 수요에 발맞춰 설립된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전국 4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운영 목적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 지정’, ‘지역민의 미디어활용능력 제고’, ‘참여적 미디어활동 활성화’, ‘지역주민의 미디어 접근권 확대’ 등이다.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미디어교육(미디어 체험, 읽기, 제작, 학교 및 관련기관 연계), 시민영상콘텐츠 제작지원 및 동아리 지원(장비 및 컨설팅 지원, 콘텐츠 유통지원), 상영관 운영(영화상영 및 영화 감상 동아리 지원 등), 소외계층 미디어활동 지원(노인,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 지역문화시설 연계 사업(작은 도서관, 공부방, 청소년시설, 문화의 집 등과 연계한 미디어문화 사업)등을 꼽을 수 있다.

수도권에 집중된 영화상영 시설과 그에 따른 관객 집중 현상이 문제로 제기되는 가운데, 영화관이 없는 기초 지자체는 상대적인 문화소외지역으로 영화향유의 기회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에 상관없이 최신 개봉영화를 즐길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 간 영상문화 격차를 해소하고자 극장 부재 지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총 100석 내외, 2개관 정도의 작은 규모 상설 상영관을 조성하는 작은영화관 사업을 시작하였다. 작은영화관은 인구 2만에서 10만 명 이하의 극장이 없는 기초지자체(약 890만 명 거주)에 조성되는 공공상영관으로, 수익성에 따라 영화관을 건립하지 않고,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증진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공공 문화시설이다(채지영 외, 2017). 작은영화관의 운영 목적은 ‘개봉 영화를 상시 상영해 지역민의 영화관람 환경 개선’, ‘다양한 문화적 욕구 충족’, ‘중소 도시거주자들의 문화 향유권 향상 및 강화’,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등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충남의 지역영상미디어센터와 작은영화관을 중심으로 현황을 분석하고, 충남의 여건에 맞는 영상문화 활성화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 영상문화 관련 법률

1) 영상진흥기본법²⁾

「영상진흥기본법」은 영상물의 제작·활용·유통 등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1995.1.5. 법률 제 4882호)로, 영상문화 창달과 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 및 영상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상진흥기본법」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영상문화 창달에 관련된 예술의 자유에 대한 내용이며, 다른 하나는 영상산업진흥에 연결되는 언론의 자유에 관한 부분이다. 영상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제4조에서 “국가는 영상물에 관한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언급함으로써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정부는 문화의 주체성 유지를 위하여 영상물 창작(제작)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명시하면서, 영상문화에 관한 기본사항을 토대로 영상문화 조사 연구 개발 및 보급, 영상물 창작 및 제작진흥, 영상물제작기술 개발, 영상 전문 인력 양성, 국제교류와 협력 증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영상진흥기본법」에서 영상문화는 영상산업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법적인 개념은 영상물과 영상산업만 다루면서 영상문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다. 「영상진흥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영상물·영상산업의 정의와 비교했을 때 영상문화는, 영상물에 관련하여 산업 영역 바깥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 요소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법에서 영상문화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이유는 문화란 본질적으로 구체화된 법정 규정을 만들기 어렵고, 유동적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홍교훈 외, 2016).

〔표 6〕 영상진흥기본법에서의 정의 규정

정의 (제2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영상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테이프·디스크, 그 밖의 유형물(유형물)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할 수 있는 물체(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② “영상산업”이란 영상물의 제작·활용·유통·보급·수출·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
---------------------	---

2)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www.archives.go.kr

2) 문화기본법³⁾

「문화기본법」에서는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가 국가 사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문화의 법적 표현은 「문화기본법」에서 처음 등장하였으며, 제3조(정의)는 문화를 “문화예술, 생활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말한다”고 언급한다. 「문화기본법」은 총 1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의 문화권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 등을 명문화하고 있다. 또한 「문화기본법」은 문화의 정의, 문화 정책 수립과 시행상의 기본 원칙, 5년 단위의 문화 진흥 기본 계획 수립,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개발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법으로 「문화기본법」 외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꼽을 수 있으며, 이 법에서는 문화적 표현과 문화다양성을 정의하고 있다.

[표 7] 문화에 대한 법적 정의

구분	◦ 문화	◦ 문화적 표현	◦ 문화다양성
근거법	◦ 문화기본법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정의	◦ 문화예술, 생활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	◦ 개인, 집단, 사회의 창의성에서 비롯된 표현으로서 문화적 정체성에서 유래하거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 예술적 영역 및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것	◦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해지는 다양한 방식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
키워드 분석	◦ 문화예술 ◦ 생활양식 ◦ 가치체계, 전통, 신념 ◦ 총체적 개념	◦ 문화적 정체성에서 유래 ◦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 ◦ 예술적 영역 및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것	◦ 집단과 사회에 따른 다양한 방식의 표현 ◦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방식의 다양성 ◦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의 다양성

자료 : 영화진흥위원회(2016a), 『지자체별 영상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p. 30.

3) 한경 경제용어사전. terms.naver.com/entry.nhn?docId=2067769&cid=42107&categoryId=42107

3) 지역문화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문화 진흥의 근거법안이 되는 법률(2014.1.28. 법률 제12354호)로,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문화진흥법」은 총 제7장, 제2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제3조)에 근거한 책무(제4조)를 가지게 되었으며,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해야 하고(제6조), 생활문화지원 및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제7조, 제8조)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지역의 문화진흥기반 구축(제3장)을 위하여,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제10조), 지역문화실태조사(제11조)를 실시해야 하며, 문화도시·문화지구의 지정 및 지원(제4장)과 지역문화재단의 설립(제5장)이 가능하게 되었다.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 재정을 확충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주민이 원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단 등을 설립하여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을 활발히 펼칠 수 있게 되었다(홍교훈 외, 2016). 「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지역문화, 생활문화, 문화예술, 문화시설 등의 다양한 개념이 정의되면서, 영상문화를 포함하는 지역의 문화예술 자원이 주목받기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표 8] 지역문화진흥법에서의 지역문화·생활문화 정의

정의 (제2조)	<p>①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동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p> <p>②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p>
---------------------	---

3. 영상문화 관련 추진정책

1) 한국영화 진흥 종합계획

국내외 영화산업의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이 활발해지면서 한국영화 진흥 종합계획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영화정책은 현대화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기되는 과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다양한 계획들을 진행하였다.

국내 영화산업은 한국영화의 다양성 확보, 지속적 투자 환경 조성, 우수 영상인력 유치를 위한 처우개선과 전문성 제고 및 디지털시네마 기술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2006년 ‘영화산업 중장기발전계획(2007~2011)’을 수립하였다.

이후 새로 제정된 「문화기본법」(14.03.31), 「지역문화진흥법」(14.07.29),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15.11.19) 등의 취지를 반영하여, 창작자 중심의 기존 문화정책(문화예술, 문화산업)을 수요자 중심의 문화정책(국민의 문화에 대한 참여와 향유)으로 확대하여 나아가는 영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2016년 ‘한국영화 진흥 종합계획(2016~2018)’을 수립하였다. ‘한국영화 진흥 종합계획(2016~2018)’의 내용은 ‘융성하는 영화산업, 세계로 향하는 한국영화’라는 비전 아래 ‘창작 역량 강화, 누림·상생 생태계 조성, 내수 한계 극복’이라는 3대 추진과제와 10대 핵심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표 9] 영화(영상)정책의 주요 이슈

구 분	정책사업 분석 연구	
국민의정부 (1998-2003년)	핵심문화기초	◦ 창의적 문화 복지 국가
	주요이슈	◦ 한국영화 진흥 종합계획(2000): 정책연구 기능 강화 및 영화아카데미 운영 개선, 한국영화 제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 한국영화의 해외진출을 위한 적극적 지원활동 등
참여정부 (2003-2008년)	핵심문화기초	◦ 자율, 참여, 분권의 문화 향유권 확대
	주요이슈	◦ 참여정부 한국영화진흥 기본계획(2003): 다양성을 중심에 둔 한국영화 제작·배급 활성화, 미래지향적인 영상인력 양성과 정책연구 기능강화, 영상기술의 공공성 강화와 국제경쟁력확보 등 ◦ 영화산업 중장기발전계획(2007~2011): 한국영화의 다양성 확보, 한국영화에 대한 안정적 투자환경 마련, 지역 영상산업 균형발전 등

이명박정부 (2008-2013년)	핵심문화기조	◦ 품격 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
	주요이슈	◦ 영화진흥사업 중장기계획(2011): 해외진출 및 부가시장 ^신 新 르네상스 구현, 영화산업 생태계 혁신, 미래지향 인프라 구축, 책임경영 기반 구축
박근혜정부 (2014-2017년)	핵심문화기조	◦ 문화융성, 행복한 대한민국
	주요이슈	◦ 한국영화 진흥 종합계획(2016~2018): 창작 역량을 높여 산업의 역동성 강화, 지속 성장이 가능한 누림·상생 생태계 조성, 신규 시장을 활용하여 내수 한계 극복

비전	융성하는 영화산업, 세계로 향하는 한국영화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작 역량을 높여 산업의 역동성 강화 ▶ 지속 성장이 가능한 누림·상생 생태계 조성 ▶ 신규 시장을 활용하여 내수 한계 극복
추진 과제	창작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나의 이야기가 우리의 영화가 되도록 지원 2 영화제작 시장의 허리를 튼튼하게 강화 3 영화인의 전문성이 일하면서 커지도록 도움 4 상상한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국영화 기술 향상 지원
	누림·상생 생태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5 공정하게 일하며 두루 성장하는 영화산업 만들기 6 창의영화가 지역마다 자라나도록 지원 7 더 많은 사람이, 더 잘 누리도록 도움
	내수 한계 극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8 온라인 영화시장을 키워 영화산업 먹거리를 찾도록 지원 9 세계가 선택하는 촬영 인프라 마련 10 영화산업 영토를 넓히는 맞춤형 해외시장 진출 지원

자료 : 영화진흥위원회(2016a), 『한국영화 진흥 종합계획(2016~2018)』, p. 17.

(그림 8) 한국영화 진흥 종합계획(2016~2018)의 주요 내용

2) 영상문화의 정책 현황 및 분석⁴⁾

1962년 1월에 제정된 「영화법」은 영화를 독자적으로 규정한 첫 법률이며, 약 35년간 시행되면서 9차례의 개정을 거쳤으며, 향후 1995년 「영화진흥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영화진흥법」은 1995년 12월 30일에 제정되어 2006년 4월 28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까지 한국 영화 정책의 주요 변화를 규정하였다.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영화진흥법」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 각각 구분하던 영화와 비디오의 관련 법제를 통합한 뉴미디어 콘텐츠의 개념을 담고 있다.

영상 및 영화 관련 법률 체계는 「영상진흥기본법(이하 ‘기본법’)」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으로 분법화 되었으며, 기본법에서는 영상물 전반을, 영비법에서는 영화와 비디오물을 정책대상으로 삼고 있어 향후 일관성 있는 법적 체계로의 정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영상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다양한 시대적 한계를 극복하고, 법의 패러다임 자체를 근본적으로 검토하여 기본법으로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 영비법은 1990년대 후반부터 이어진 영화산업 중흥기의 시대적 요구에 따라 영상문화 전반 보다는 영화의 사업적 성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중심이었다.

3) 지자체 영상문화의 정책 현황 및 분석⁵⁾

각 지자체의 문화정책은 자치 법령(조례)에 의해 규정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관련 조례들이 적극적으로 제정되고 있는 추세이다. 지자체의 조례 현황 분류 및 분석을 통하여 지역의 영상문화정책에 대한 의지와 척도를 파악할 수 있기에 이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영상 및 영화 관련 진흥조례를 살펴보면, 영상 및 영화에 관한 별도의 조례를 갖고 있는 곳은 광역시 여섯 군데, 기초 다섯 군데이며, 열한 곳에서는 영상산업 육성을 조례명에

4) 영화진흥위원회(2016a), 『지자체별 영상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50~52쪽의 내용을 바탕으로 인용·정리함

5) 위와 같음, 54~61쪽의 내용을 바탕으로 인용·정리함

표기하면서 기본적으로 「영상진흥기본법」에 근거하여 영상문화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현재 충청남도과 관련된 영상산업 관련 진흥조례의 입법을 준비 중이다.

[표 10] 영상 및 영상산업 관련 진흥조례

분 류	자치법규
광역(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부산) ◦ 인천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인천) ◦ 강원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강원) ◦ 충청북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충북) ◦ 전라북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전북) ◦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제주)
기초(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광역시 중구 영상산업 육성 조례(인천시 중구) ◦ 고양시 방송영상통신산업 진흥 조례(고양시) ◦ 구리시 영상·영화진흥 조례(구리시) ◦ 정읍시 문화사업 및 영상산업 진흥 지원 조례(정읍시) ◦ 전주시 영상진흥 조례(전주시)

자료 : 영화진흥위원회(2016a), 『지자체별 영상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p. 55

둘째, 영상위원회 관련 조례는 기초지자체 세 군데에서 이루어졌으며, 충남은 영상위원회가 주요 업무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표 11] 영상위원회 관련 조례

분 류	자치법규
기초(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단법인 제천시 청풍영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천시) ◦ 부안군 영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부안군) ◦ 순천시 사단법인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순천시)

자료 : 영화진흥위원회(2016a), 『지자체별 영상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p. 56

셋째, 영상미디어센터 관련 조례를 살펴보면, 대체로 영상미디어센터를 설치한 기초자치단체에서 영상미디어센터 관련 조례를 가지며, 광역 중에는 충청남도가 유일하게 미디어센터 설치에 관련된 조례를 가지고 있지만, 이는 지역민에게 영상문화 상영 등의 향유 기회를 제공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보다, 충남의 홍보를 수행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12] 영상미디어센터 관련 조례

분 류	자치법규
광역(1)	◦ 충청남도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충남)
기초(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서울 강서구) ◦ 수원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수원시) ◦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부천시) ◦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강릉시) ◦ 원주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원주시) ◦ 화천군 생태영상센터 및 물 주제공원 설치·운영조례(화천군) ◦ 옥천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옥천군) ◦ 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천시) ◦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익산시) ◦ 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순천시) ◦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인천 남구)

자료 : 영화진흥위원회(2016a), 『지자체별 영상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p. 55

넷째,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작은영화관과 같은 공공상영시설에 관한 조례는 현재 충남에 서천의 기벌포 영화관, 예산군 작은영화관, 태안군 작은영화관에서 가지고 있다.

[표 13] 작은영화관 등 공공상영관 관련 조례

분 류	자치법규
기초(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천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화천군) ◦ 김제시 지평선 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김제시) ◦ 고흥군 작은영화관 운영관리 조례(고흥군) ◦ 곡성군 작은영화관 운영관리 조례(곡성군) ◦ 부안군 마실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부안군) ◦ 순창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순창군) ◦ 장흥군 작은영화관 「정남진시네마」 운영 관리 조례(장흥군) ◦ 진안군 마이골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진안군) ◦ 영양군 작은영화관 운영관리 조례(영양군) ◦ 정선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정선군) ◦ 진도군 작은영화관 운영관리 조례(진도군) ◦ 서천군 기벌포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서천군) ◦ 예산군 작은영화관 운영관리 조례(예산군) ◦ 태안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태안군)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6), 『작은영화관 사업효과성 연구』, p. 107~108.

다섯째, 기타 관련 조례를 살펴보면 그 밖에 영상(영화포함) 관련 조례들로, 그 내용은 주로 테마파크, 촬영소 등 시설 관련 조례들이 주를 이루며, 충청남도는 이와 관련된 조례를 가지고

있지 않다.

(표 14) 기타 영상 시설 등에 관한 조례

분 류	자 치 법 규
광역(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광역시 재단법인 영화의전당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부산) ◦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경기도)
기초(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 운영 조례(해운대구)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부천시) ◦ 남양주시 영상단지추진위원회 조례(남양주시) ◦ 나주영상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나주시) ◦ 나주영상테마파크시설 위탁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나주시) ◦ 부안영상테마파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부안군) ◦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 조례(합천군) ◦ 사단법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천시) ◦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삼 영화마을 기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울산 울주군) ◦ 전주영화제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전주시) ◦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전주시) ◦ 밀양시 연극촌·영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밀양군) ◦ 익산시 드라마·영화세트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익산시)

자료 : 영화진흥위원회(2016a), 『지자체별 영상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p. 56

대부분 지역에서는 영상(영화)을 문화콘텐츠의 일부로 다루고 있으나, 별도의 정책대상으로 삼고 있는 곳은 광역지자체에서도 여섯 곳에 불과하며, 충남 또한 문화콘텐츠 및 영상문화진흥 관련 조례를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상위법의 개정 방향에 따라 문화콘텐츠 및 영상문화 관련 내용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충남의 조례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충남에서는 문화체육관광국의 문화정책과에서 작은영화관 및 영상위원회 운영 등을 진행하고 있다. 영상 분야를 별개의 과로 편성하고 있는 곳은 부산국제영화제와 영화진흥위원회 등 영상인프라가 집중된 부산광역시 한 군데이며, 충남에서는 문화체육관광국의 문화정책과에 배치하고 있다.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을 포함한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의 영역에 영상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충남의 영상문화 관련 주요 업무 영역은 작은영화관,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영상위원회이다. 충남에서는 미디어센터, 지역 영화제, 다양성 영화 등에 관한 비상업적 영상의 제작지원이나 인력양성과 같은 생태계 지원은 극히 적은 상황이다. 또한 충남에서는 지역의 영상인프라 조사, 종합발전계획 수립 등 지역영상정책 수립을 위한 업무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충남 영상문화 관련 기관의 운영 현황 조사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표 15) 문화콘텐츠 및 영상관련 조례 현황

구분 (조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문화콘텐츠		○	○	○	○	○			○				○		○		○
영상		○		○						○	○		○				○

자료 : 영화진흥위원회(2016a), 『지자체별 영상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p. 57

(표 16) 지자체별 영상문화 관련 주요 사업 분포

	산업 지원	종합계획 등 정책 수립	미디어센 터 지원	작은영화관	영상위원회	영화제 지원	생태계 지원
서울	○		○	○	○	○	
부산	○	○		○		○	○
대구	○		○				
인천	○				○		
광주	○					○	
대전	○				○		
울산	○		○				
세종			○				
경기	○			○	○	○	○
강원	○			○			
충북	○						
충남			○	○	○		
전북	○	○				○	
전남	○	○			○		
경북				○			
경남	○		○	○			○
제주	○				○		

자료 : 영화진흥위원회(2016a), 『지자체별 영상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p. 60

4) 국내외 지역 영상문화의 정책 동향

1995년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인 실시 이후, 영상 산업은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1996년 제 1회 부산 국제 영화제를 출범시키며 지역 산업 및 브랜드의 핵심 가치로 영상 산업을 내세운 부산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관심을 모았다. 중앙 정부에 의한 영화업 통제가 1988년 영화 시장 개방 이전까지 철저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하면, 영화 혹은 영상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매우 짧은 시간에 달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영화 콘텐츠의 산업적 측면이 이 시기에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영화가 중앙 정부에 의해 점차 통제의 대상에서 지원의 대상으로 조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뿐만 아니라 부산이 영상 산업의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성공적으로 쫓아낸 것은 여러 지자체들에게 자극을 주어, 1999년 부산 영상위원회의 설립 이후, 지역의 영상위원회들이 하나 둘 설립되는 등 영상 산업은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주목을 받는 성장 동력이 되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지역 관광 산업과 연계하면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영상 산업을 부각시키면서 일어난 현상이기도 한다.

이러한 배경에 의해 현재까지 대부분의 지자체 영상 정책은 영상문화보다는 영상산업에 초점을 맞추어온 것이 현실이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영화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관심 속에서 영화산업은 성장을 거듭해, 한국 영화 시장은 세계 7위 규모(2014년 기준)까지 올라섰다. 이러한 성장에는 영화 산업에 대한 지자체 및 중앙 정부의 관심과 함께, 연간 영화 관람 횟수 세계 최고(연 4.22회, 2015년 기준)를 기록한 국내 관객들의 영화에 대한 뜨거운 애정에 기댄 바 크다. 그러나 영화 산업의 이러한 급속한 성장은 아이러니하게도, 영화문화의 소외 지역을 만들어 내는 것도 현실이다. 즉, 대기업 멀티플렉스를 중심으로 한 극장 산업의 편성은 수도권에 집중된 영화 상영을 불러오고, 이와 동시에 영화관이 한 곳도 없는 영화관 공백 지역을 적지 않게 양산했다.

단관 극장의 폐업은 사회 문화적 요인과 도시 재개발, 영화 산업 구조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일어났지만, 세계적으로 이러한 이행이 일어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시네마로의 변화라는 요인을 중요한 사안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단관 극장의 연쇄적 폐관과 디지털 시네마로의 전환이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것은, 이들 극장들이 디지털 장비의 구입과 유지를 위해 거액을 투자하기 영세한 극장들이며, 점차 필름 상영이 어려워지

면서 결정적으로 폐관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영국의 DSN(Digital Screen Network)⁶⁾이나 이후 소개할 농촌 극장 지원 시범 사업 등에서 장비의 구입 지원을 우선적으로 내세웠던 것도 결국 이러한 어려움의 극복 과정이었다.

해외에서는 지역의 극장들이 문을 닫지 않고 상영을 지속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자체와 중앙 정부가 장비 부문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극장들이 폐관하는 중국까지 어떠한 지원도 없었고, 결국 대다수의 단관 극장들이 폐관하여 소도시, 농어촌 등의 지역 주민들이 영화라는 가장 대중적 취미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이 인식되면서, 이후 작은영화관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매칭 펀드로 건립되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 영상과 관련한 정책적 관심은 산업 중심적이었고,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향유와 문화권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영상문화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노력은 부족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영상문화와 관련한 몇 가지 국내외 사례들을 소개하여 향후 충남의 영상문화 정책 수립과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지역의 영상문화와 관련하여 진흥할 수 있는 분야가 영화 및 영상의 제작과 상영, 교육, 영상과 관련한 축제 등으로 볼 수 있는데, 본 장에서는 지역영상미디어센터가 담당해 온 제작과 교육 측면보다는 지역민의 문화 향수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상영과 축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 이 과정에서 상영 및 축제의 주체가 관, 그리고 시민 사회와 어떤 식으로 연계하고 있는지, 또 일반적인 상업 영화관과는 달리, 어떻게 영화를 매개로 하여 지역 사회의 소통을 증진시키고 영화의 사회적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언하고자 하는지 살펴보았다.

4. 국내의 영상문화의 사례 조사

해외 사례인 일본의 나라시 나라국제영화제는 지역의 영화 축제가 어떻게 지역민들에게 더 풍성한 문화적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우수 사례로 꼽을 수 있다. 특히 지자체 지원의 불안정성 속에서 영화제를 지속해나가고자 하는 노력들은, 재정면에서 불안정성을 안고 있는 우리나라의 많은 지자체 기반 영화제들이 참고할 선행 사례이다. 또한 영국 정부의 농촌

6) Digital Screen Network는 디지털 시네마로의 전환기에 영국영화위원회가 펼친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이에 대한 배경은 2005년부터 2011년 사이에 영국 전역의 상업 영화관, 독립 영화관 230여개 스크린에 디지털 시네마의 장비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며, 이들 영화관은 영국영화위원회가 지정한 다양성 영화(specialized films)를 일정 부분 상영해야 했다.

극장 지원 시범 사업은 소도시의 피폐해진 영상문화 문제를 명시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본 연구에서 국내 사례는 지역 사회와 연대하여, 상영 공간이 영화의 상영 장소를 넘어서서 지역 시민 사회의 공적 회합의 장소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국내 사례인 익산 공공 영상 미디어센터 활동은 지역의 작은 영화제들이 생겨나고 지속하는 데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상미디어 센터가 협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범 사례이다. 대구의 독립영화전용관 오오극장은 ‘자생력’이라는 측면에서 큰 시사점을 제공한다.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운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역의 시민 사회가 만들어가는 협동조합 모델의 영화관으로, 지역의 영상문화 주체들이 반드시 참고할만한 유의미한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1) 일본의 나라국제영화제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국의 점령 하에 있으면서 문화예술에 대한 국가적 개입을 최소화했다. 이는 문화예술의 전개를 민간에 위탁한 미국적 가치의 내면화이면서 전쟁 시 문화예술이 내셔널리즘(nationalism)⁷⁾의 고양과 국민 총동원에 적극적으로 이용된 것에 대한 반성이기도 했다. 2000년대 들어 한류에 대한 경계와 함께 문화 콘텐츠에 대한 일본 정부 지원이 증가일변도에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의 문화예술 정책은 중앙 정부보다는 지자체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영상문화와 관련한 일본의 사례를 검토하는 것은 지자체의 영상문화를 논하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일본의 지역 영상문화를 검토할 때, 가장 중요하게 꼽을 수 있는 사례가 지역 영화제들이다. 탄광 도시였던 홋카이도의 유바리시가 탄광 산업의 피폐로 인해 관광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1990년에 처음 시작한 ‘유바리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는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지만, 2006년 시재정의 파탄에 의해 폐지 위기에 처하였다. 그러나 이를 안타까워한 영화인, 영화팬, 시민들의 목소리에 힘입어 유바리 시의 유지들이 힘을 모아 NPO 법인 유바리 판타를 설립해 시 대신 영화제를 주최하게 되었다. 인구 만 명이 되지 않는 소도시 유바리에는 영화관마저 한군데도 없어 영화제의 공간이 되는 곳은 지역의 시민회관, 호텔의 연회장, 장애인 취로 지원 시설, 리

7) 민족주의·국민주의·국가주의를 뜻하며, 그 역사적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동경, 고무의 감정 또는 증오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조트의 체육관 등이다. 이는 시민들이 전력을 다해 유지해나가는 영화제인 것이다.

또 다른 사례는 ‘야마가타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이하 야마카타 영화제)’이다. 1989년 첫 시작 이래 격년으로 개최되는 이 영화제는 다큐멘터리 영화제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야마가타 영화제’ 역시 기존의 상업 극장보다는 지역 내의 미술관, 시민회관, 공민관 등을 주요 상영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영화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야마가타 포럼’의 경우도 시민 출자로 생겨난 극장으로, 영화관 공백 지역에 영화관을 확충하기 위한 시민들의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야마가타 시를 포함하여 12개 시, 20개 군을 가지고 있는 야마가타 현은 인구 100만 정도에 농업이 기반이 되는 지자체로 지역 내에는 영화관이 없는 지역이 대부분이다. ‘야마가타 영화제’는 인터내셔널 경쟁에 응모된 작품을 비롯하여, 우수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수집, 보존하는 라이브러리를 상시적으로 운영하였다. 따라서 시민들이 가볍게 감상할 수 있도록 비디오 부스 라이브러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필름 라이브러리의 작품을 시사실(40여석 규모)에서 상영하는 정기 상영회도 개최하고 있다. 또한 현 내의 공동체 상영을 지원하여, 다큐멘터리 영화의 감상 기회가 부족한 지역에서의 영화 상영 보급을 지원하는 등 영화제는 짧은 기간에 끝나지만, 이 영화제의 성과가 상설로 지역민들의 영상문화 향수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영화관이 하나도 없는 지자체에서 국제영화제가 어떻게 성립 가능하며, 이것이 지역민들의 영상문화에 어떠한 방식으로 기여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일본의 지역 문화 정책을 설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정부 지원에도, 지자체 지원에도 의존하지 않는, 시민들의 손에 의한 ‘지속 가능한 영화제의 성립’이 중요한 키워드로 꼽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중요한 사례가 시작한 지 이제 6년이 지난 ‘나라국제영화제’이다. 나라현의 현청 소재지인 나라시는 인구 30만 명 규모의 관광 도시이지만 영화관이 한 곳도 없는 영화관 공백 지역이다. 이런 곳에 국제 영화제가 시작된 것은 나라 출신의 영화 감독 가와세 나오미(河瀬直美)의 의지에 힘입은 바 크다. 2007년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기도 했던 가와세 나오미(河瀬直美) 감독은 나라에 국제영화제를 만들어 세계의 영화인들을 초청하고 싶다는 오랜 숙원을 2010년 나라현의 지원을 받아 실현하게 되었다.

(1) 예산 및 재원⁸⁾

신생 영화제라 할 수 있는 나라국제영화제의 예산은 많지 않다. 2010년 1회 영화제가 약 2000만 엔, 2회가 2800만 엔,(2012년) 3회가 3500만 엔(2014년), 4회가 4000만 엔(2016년), 그리고 2018년에 개최될 5회가 5000만 엔 정도로 매년 조금씩 규모가 늘고 있다. 지자체 혹은 중앙 정부가 주도한 영화제라기보다 가와세 감독의 의지에서 시작되었기에 영화제의 실행은 NPO 법인 나라국제영화제 실행위원회가 맡고 있다. 나라현은 영화제가 처음 출범할 때, 사업비 및 인건비로 1300만 엔을 지원했으나 이는 첫 해 뿐이었다. 2014년 2회 영화제가 시작될 때 나라시로부터 약 1000만 엔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화장장의 유치와 관련하여 나라시 시장과 의회의 갈등이 있으면서 시장에 대한 의회의 불신과 겹쳐 2016년에는 의회가 영화제 예산 전액을 삭감하였다.

그런 점에서 나라국제영화제는 그 시작은 어느 정도 지자체에 예산을 의존하며 시작하였지만, 현재는 자생적 구조를 찾고 있는 상황이다. 이후 지자체의 지원이 끊어진 이후에 영화제는 재원 조달에 고심하였다. 그러한 고심 속에서 가장 큰 재정적 기반이 되는 것이 ‘후루사토 납세제도⁹⁾’이다. 2008년부터 일본에 도입된 후루사토 납세제도란, 자신이 선택한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한 경우, 그 기부액 중 2000엔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주민세에서 전액 공제되는 제도이다. 또한 공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기부한 금액에 대해 지역의 특산품으로 돌려받거나 지역 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 자신이 응원하고자 하는 사업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나라시의 경우, 기부하고자 하는 이들이 통합 사이트에서 ‘문화재 보존 및 활용’, ‘관광 사업’, ‘보육 사업’, ‘교육 사업’, ‘자연 환경 보존 사업’, ‘나라 국제영화제 지원’, ‘밤비서스 나라(프로농구팀) 지원’, ‘나라 클럽(프로 축구팀) 지원’ 등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앞의 사업들과 달리 영화제 및 스포츠 지원은 기부금의 절반은 나라시의 문화 및 스포츠 진흥 사업에 쓰이게 된다.

8) 이하의 내용은 나라국제영화제 사무국 직원 코이테 준코(小出順子)씨와 야마다 교코(山田京子)씨의 인터뷰에 기반해 작성되었다. 본 인터뷰는 2017년 4월 11일 일본 나라시에 소재한 나라국제영화제 사무국에서 2시간 가량 진행되었다.

9) 후루사토는 우리말로 하면 ‘고향’이라는 의미에 가장 가깝지만, 기부는 자신의 고향과 상관없이 어디든 가능하다.

自然環境事業
 奈良市の魅力である豊かな自然を活かしたまちづくりに活用します。

①公園の緑を守るアダプトプログラムやグリーンサポート事業
 ②公共施設や学校、街路灯などのLED化
 ③家庭用ソーラーパネルや雨水タンクの普及・設置
 ④子どもの環境教育(ピオトープの整備や環境講座・自然体験学習等)
 ⑤豊かな里山や農地の魅力を高め、地産地消を進める活動

なら国際映画祭への支援
 奈良の魅力を世界に発信する映画祭を支援します。
 ※寄附金の2分の1をなら国際映画祭の支援に活用し、残り2分の1は市の文化事業に活用します。



나라국제영화제 지원

〔그림 9〕 후루사토 납세 초이스 홈페이지의 나라시 부분

〔표 17〕 2016년 나라시의 기부금 활용(희망용도 기부금과 활용 사업)

희망용도	건수	기부 금액(엔)	사용 상세
문화재 보존 및 활용 사업	2,754	82,009,001	문화재 보호 활동 단체 지원, 매장문화재 긴급 조사 사업, 나라 공예 후계자 육성 사업 등
관광진흥사업	851	20,963,501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 나라시승 보호 육성, 환경 정비 사업 등
보육 사업	1,927	48,143,500	보육원, 유치원, 어린이집 발달 지원 순회 상담, 어린이 의료비 조성 확대, 피학대 아동 대책 강화 등
교육사업	586	17,310,500	왕따 문제 대책 지원, 왕따 대응 교원 설치, 초중학교 도서 구입, 학교 도서관 사서 파견 등
자연 환경 사업	659	18,275,000	저공해차 도입 촉진 사업, 온난화 대책 사업 등
나라국제영화제 지원	282	10,348,000	나라국제영화제 개최 보조금(694만 엔), 문화진흥단체 사업 보조 (849만 엔)
밤비서스 나라/나라 클럽 지원	201	5,562,000	「Top Sports City 나라 보조 (370만 엔), 나라시 홈타운 스포츠 촉진 파트너 사업 (295만 엔)
기타 나라의 매력 증진 사업	1,198	35,920,500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 공가 대책 사업 등
합계	8,458	238,532,002	

자료 : 나라시 홈페이지. <http://www.city.nara.lg.jp/www/contents/1464673390052/index.html>

영화제 측은 희망 용도로 나라국제영화제 지원을 선택한 납세자 중 정보를 공개하여, 연 3만 엔 이상을 영화제에 납세한다고 선택한 사람들에게 한해 영화제 시 레드카펫으로 걸을 수 있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 후루사토 납세를 통해 영화제는 약 500만 엔 이상의 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외에도 영화제는 중앙 부처라 할 수 있는 문화청으로부터 예술문화진흥기금의 일부를 사업비로 획득하거나 일본국제교류기금, J-LOP(일본 콘텐츠의 해외 전개를 촉진하는 보조금), 기업 메세나 협회 등으로부터 사업비를 보조 받고 있다.

(2) 사업

나라국제영화제의 사업은 영상 제작 지원이나 프리 프로덕션(pre-production) 단계의 지원과 같은 영상 산업 분야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영상문화에 관련된 것이기에, 본 연구에서는 나라국제영화제의 영상문화와 관련한 사업들만 소개하고자 한다.

나라국제영화제는 격년으로 열리기 때문에 영화제가 열리지 않는 해에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사업들을 펼친다. 사무국에는 직원 3명과 이사장 1명이 상주하는데, 영화제가 없는 해에 이들 인력들은 주로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영상 사업에 집중한다. 그 중 대표적인 사업이 시네마테크 사업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나라시 내에는 영화관이 없다. 인접한 다른 시까지 차로 20여분 정도를 달리면 멀티플렉스가 있지만, 상시적으로 영화를 보기는 쉽지 않다. 나라국제영화제 사무국은 이러한 인식 하에 2013년부터 시네마테크 상영회를 시작하였다. 시네마테크 상영회의 영화들은 대부분 해외 예술 영화들로, 인접 시에 멀티플렉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술 영화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상영회는 나라시와 나라시 인근의 시군 주민들을 모두 아우르는 이벤트라 할 수 있다. 영화는 월 1회 3일간 (첫 주 금, 토, 일) 이동형 상영회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다. 이동형 상영회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상설로 상영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카페 등을 빌려 작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나라여자대학의 강당¹⁰⁾이나 나라마치센터라는 시 소유 공간과 나라국제영화제의 이사 중 한 명이 운영하는 호텔의 일부 공간을 빌려

10) 나라여자대학의 강당을 빌리게 된 경우는, 시네마테크 상영 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앙케이트에 나라여자대학의 한 교수가 혹시 장소 대관에 곤란함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적어 놓았고, 실제로 관련된 내용을 문의하였더니 강당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대신 나라국제영화제의 후원에 나라여자대학을 기재하고 있다.

상영회를 하고 있다. 월 200~300명의 관객이 시네마테크 상영을 찾고 있으며, 교토, 오사카, 고베 등 미니시어터 등에 홍보 인쇄물을 배치하고 있다.



자료 : 나라국제영화제 내부 자료
 (그림 10) 시네마테크 상영회

또 하나의 사업은 호시조라 상영회(星空上映會)라고 이름 붙여 있는 것으로, 야외 상영회이다. 영화제가 열리지 않는 해인 2015년에 프리 이벤트(pre-event)로 처음 시도되었다. 9월에 나라공원이라는 야외 공간에서 상영회를 개최하여 큰 호응을 얻어, 2016년에는 영화제 상영 기간에도 열리게 되었다.



자료 : 나라국제영화제 내부 자료
 (그림 11) 2015년 개최된 호시조라 상영회

상영회 외에 미디어센터가 할 만한 사업도 나라국제영화제는 진행하고 있다. 지역 어린이들과의 영상 제작 워크숍은 나라시의 교육위원회와 협의 하에 이루어진다. 교육위원회의 협조 하에 나라시에 있는 초등학교에 어린이 영상 워크숍 참가자를 모집하고, 초등학교의 강당 하나를 빌려서 사흘간 집중적으로 영상 제작 워크숍을 실시한다. 2014년부터 시작된 이 워크숍은 애플로부터 아이패드를 협찬 받아 진행하기 때문에 장비료는 특별히 들지 않는다. 아이들은 직접 영상을 찍고, 편집 작업을 배운 후 집에서 각자 편집을 해오게 된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상영회를 개최하는 식으로 만든 영상을 선보인다. 강사는 가와세 나옴(河瀬直美) 감독이 직접 한다. 즉, 나라시의 어린이들은 칸느도 인정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감독으로부터 영상 워크숍을 받고 있는 것이다.



자료 : 나라국제영화제 내부 자료
 (그림 12) 카와세 나옴 감독이 진행하는 어린이 영상 제작 워크숍

그 외 지역 NPO와 연대를 한 ‘나라 챌린지’라는 사업은 지역의 장애 아동 관련 운동을 하는 NPO 단체와 나라국제영화제가 함께 연대하여, 지역의 지체 장애 아동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나가기 전에 영화제 및 시네마테크의 활동을 도우면서 사회 감각을 익히도록 돕는 활동이다.

2) 영국의 농촌 영화관 및 동네 극장(Neighbourhood Cinema)

지역의 영상문화에 대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나라로 영국을 꼽을 수 있다. 영국은 특히 지역 커뮤니티 안에서 영화를 함께 관람하는 경험을 지역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장기간 펼쳐왔다. 오늘날에는 블루레이와 DVD, 최근에는 IPTV를 비롯한 VOD 서비스 등의 기술 발달과 매체의 다변화로 인해 영화 감상 경험이 개인화되고 있다. 영화의 소비가 어디서든 가능해진 오늘날, 극장이라는 공간에서의 영화 관람을 정책적으로 지원 하는 것은 영화 관람이 단순히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 극장 관람이라는 것이 지역 커뮤니티의 유지와 발전에 어떠한 형태로든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역의 영상문화라는 것에 초점을 맞출 때,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점이 바로 이 지점이다. 작은영화관 계획은 지역 주민들이 최신 영화를 대도시 관객들과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관심사를 공유하면서 본다고 하는 측면, 즉 소도시의 문화 소외 해소 및 문화 향수 증대라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을의 사람들이 함께 큰 스크린으로 영화를 보는 경험을 공유하면서 배태되는 유대의 가능성이라는 측면 또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영국 BFI(British Film Institute)는 ‘필름 포에버’라는 영국 영화 육성 계획을 2012년 세우고, 5년간 8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하였는데, 여기에는 “빅 스크린에서 영화를 보는 집합적 체험에서 텔레비전이나 모바일 디바이스 등의 개인화된 영화 감상 체험까지 다양한 플랫폼이 있는 오늘 날, 블록버스터, 최신 인디 영화, 고전 영화 등을 어떤 플랫폼에서든 선택해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상영 환경의 스펙트럼을 다양화¹¹⁾” 하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블록버스터뿐만 아니라 인디, 고전 영화도 누구나 할 것 없이 빅 스크린을 통한 집합적 영화 관람이 가능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인데, 이 필름 포에버의 계획안에 ‘동네 극장(Neighbourhood cinema)’ 지원이 들어있는 것은 이러한 맥락과 관련이 되어 있다.

11) BFI 홈페이지(BFI plan 2012-2017). <http://www.bfi.org.uk>

(1) At a cinema near you

지역 극장의 필요성에 대한 영국 정부의 관심은 꽤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2006년 BFI는 ‘At a cinema near you’라는 가이드북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지역의 극장을 살리거나 혹은 재개관 하여 지역 시네마 설립에 참여하려는 개인 혹은 지자체 등을 위한 일종의 가이드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지역의 영화관이 단지 영화만을 상영하는 공간을 넘어서 지역사회를 위해 다른 여러 가지 유용한 용도로 쓰일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가령, 중·고등학교나 대학, 평생 교육 기관에서 문화·교육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한다거나 지역 내 사업체가 프레젠테이션 등을 할 수 있도록 스크린을 빌려주는 것도 운영을 위한 한 예시가 될 수 있다(정인선 외, 2008).

[표 18] 지역 영화관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영국 BFI 보고서, 2007)

<p>사회·문화적 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임 장소이자 사회화의 공간으로 지역 공동체를 위한 공간으로 기능 ◦ 지역민의 영화관람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적 삶을 강화함 ◦ 비 멀티플렉스적 분위기 속에서 주류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중장년층에게 전통적 환경 속에서 그들을 위한 영화를 보는 기회를 제공 ◦ 영화제, 특별상영 등을 통해 자폐증, 청각장애, 소수인종들에게 영화관 접근기회를 확대 ◦ 영화관이 지역의 학교와 연계함으로써 지역적 교육기회를 강화함 ◦ 영화와 관련한 과정들을 통해 평생 교육 기회를 확대 ◦ 자원봉사 기회를 통해 지역 커뮤니티에 기여 ◦ 저렴한 비용의 가족 레저 제공
<p>환경적 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 외관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 극장들은 긍정적인 건축 분위기를 도시 내에 제공함 ◦ 편안하고 안전한 분위기를 풍기는 지역극장은 주변 상인들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미침
<p>경제적 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극장 근처의 바, 레스토랑, 빵집, 식료품점 등의 상권을 활성화시킴 ◦ 지역민을 스태프로 고용시킴으로써 지역 노동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냄 ◦ 스태프 트레이닝과 자기개발 교육기회 제공은 지역 노동시장을 풍부하게 함 ◦ 건물 시설보수 관리, 홍보, 스낵바 운영, 회계사 등 일반적인 극장운영과 관계된 사항은 지역의 업체들을 이용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자료 : 영화진흥위원회(2008), 『다양성 영화의 지역 상영 활성화 방안 연구』

(2) Rural Cinema Pilot Schemes

이러한 관심은 2010년 시작된 ‘농촌 영화관 시범 계획 (Rural Cinema Pilot Schemes)’에서 본격적인 지원 체계를 갖춰나가기 시작했다. 영국영화위원회(UKFC, 2011년 BFI로 통합, 폐지)는 농촌 지역에서도 극장에서의 영화 관람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3년 간 복권 기금 1.2백만 파운드를 투자하여 이 시범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사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¹²⁾.

UKFC는 먼저 영국의 환경식품농촌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와 파트너십을 맺고, 영국 전역의 농촌 지역 극장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농촌 지역의 인구 밀도 및 지리적 접근성 등을 함께 조사하여 농촌 영화 프로젝트의 시범 지역으로 슈롭셔(Shropshire), 윌트셔(Wiltshire), 북 요크셔(North Yorkshire)를 선정하였다. 환경식품노동부의 조사에 기초하여 UKFC는 필름 상영 공급과 공공 펀딩의 지형, 각 지역의 사회 경제적 측면, 전략적 개입의 필요성 등에 대해 독립예술 미디어 컨설팅사를 통해 심층 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 정책적 검토와 함께 각 지역의 핵심적인 주체들에 대한 인터뷰라는, 필드 조사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다.

농촌 영화 시범 계획의 목적은 농촌 극장을 강화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농촌 극장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영화의 스크리닝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마을의 홀이나 아트센터, 커뮤니티 공간 등 비전통적 장소에서의 영화 상영도 포함하였다. 그런 점에서 지역의 필름 소사이어티, 영화 클럽, 이동 영사, 커뮤니티 시네마가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한편으로, 농촌 지역의 관객들이 되도록 뛰어난 사운드와 화면을 통해 새로운 영화들을 볼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되었다. UKFC에 의해 이루어진 조사는 콘텐츠의 제공과 공급의 질이라는 상호 관련된 이슈를 드러냈는데, 농촌 지역의 상영자들이 대부분 DVD 베이스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설사 DVD 기반 장비가 좋아서 수준 높은 영상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도시 등에서의 극장 상영이 시작되고 12-16주가 지나야 상영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UKFC는 이 농촌 영화관 시범 계획이 장비 지원과 원칙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12) BFI 홈페이지(UK Film Council rural cinema strategy). <http://www.bfi.org.uk>

그 결과 UKFC는 디지털 시네마 이니셔티브(DCI)의 채택이 핵심적이라고 보고, DCI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한편, 블루레이 베이스의 디지털 영사 장비를 함께 제공하였다. DCI 장비는 매우 고가이기 때문에, 구작의 상영에 있어서 블루레이 상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또한 블루레이 베이스의 디지털 영사 장비는 이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다. 이러한 두 가지 장비의 결합은 농촌의 상영자들에게 유연성을 주고, 콘텐츠의 공급에 있어 다른 방식들을 시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되었다.

각 지역에 대한 지원은 지역에 컨소시엄을 구성한 단일 조직에 조성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지원받은 조직은 위에서 언급한 장비를 구입해야 하고 이것들이 되도록 많은 지역에 걸쳐 사용되도록 해야 했다. 이들은 또한, 관객 개발, 기술이 최대화 될 수 있는 활동을 하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전개해야 했다.

BFI는 2013년에 ‘농촌 영화관 시범 계획’의 실시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2010년 9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이 시범 계획은 201개의 다른 공간에서 이루어진 3,920번의 상영을 지원하여, 209,563명의 관객을 모았다. 이 중 블루레이 상영이 47회, DCI 상영이 58회 있었으며, 총 698편의 영화가 프로그램 되었다. 그 중 44%는 다양성영화(specialized films)였다.

[표 19] 농촌 지역 영화 상영 지원 시범 계획(영국)의 3년 평가

상영 편수	2010	2011	2012	2013	단일 영화타이틀 수
Cine Yorkshire	31	181	174	64	362
Shropshire Screen	47	183	228	94	436
White Horse Pictures	20	77	124	55	254
단일 영화타이틀 수	82	323	374	147	698
다양성 영화 상영비율	2010	2011	2012	2013	2010-2013 평균
Cine Yorkshire	54%	37%	31%	30%	35%
Shropshire Screen	45%	50%	52%	44%	49%
White Horse Pictures	36%	46%	36%	63%	44%
평균	46%	45%	43%	43%	44%
관객 중 다양성 영화 비율	2010	2011	2012	2013	2010-2013 평균
Cine Yorkshire	50%	39%	26%	35%	33%
Shropshire Screen	43%	49%	45%	37%	44%
White Horse Pictures	37%	67%	35%	60%	55%
평균	42%	52%	40%	39%	43%

자료 : BFI 홈페이지. <http://www.bfi.org.uk>

이 평가보고서는 지역에서의 영화 상영과 지원에 있어서 본 사업이 몇 가지 전략적, 기술적 교훈을 남겼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기술적인 면에서 이 시범 계획이 농촌의 관객들에게 있어 극장 관람은 사회적 측면에서 중요성을 갖는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보았다. 또한 농촌지역에서는 마케팅을 위해 기존에 존재하는 네트워크나 회합 장소(예를 들어 지역의 가게, 펍, 커뮤니티 그룹 등)를 이용할 필요가 있었다. 이번 시범 계획은 새 관객을 발굴하고 상영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데에는 특별한 이벤트(예를 들어, 행사, 제작자 Q&A, 영화제 스크리닝 등)가 도움이 됨을 입증했다. 그 외 3D 상영에 대해서는 수요가 한정적이었으며, 영국 아트 카운슬로부터 지원을 받는 몇몇 혼합형 공간에서는 상영에 있어 그들의 프로그램을 결합시키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는 점, 지자체는 DCI의 설치 투자에 가장 큰 관심을 가졌다는 점 등이 언급되었다.

그 외 전략적으로 BFI와 같은 중앙 정부 기관이 코디네이터로서 개입하기 때문에 지역에서의 극장과 배급자와 조정이 용이했다는 점, 또 일회적 상영에 대한 상영료에 대해서도 정부 단위의 개입에 의해 유연적 사용이 가능했다는 점, 관객 개발, 데이터 수집 등에 있어서도 일정 정도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였다¹³⁾.

(3) Neighbourhood Cinema fund

2013년부터 시행된 ‘동네 극장 (Neighbourhood Cinema)’ 프로젝트는 위의 농촌 지역 상영 지원과 커뮤니티 시네마 지원이 결합된 형태로 볼 수 있다. 농촌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커뮤니티 시네마의 상영 활동을 돕는다는 점에서 기존에 해오던 사업과 특별한 변별점은 없지만, ‘동네 극장 (Neighbourhood Cinema)’라는 새로운 이름을 통해 바로 내 주변에 언제든지 공동체 상영이 있고 관객은 그것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더욱 분명히 했다.

그런 점에서 BFI는 커뮤니티 시네마가 유지되도록, 혹은 새롭게 시작되도록 사람들을 돕는 지원 사업으로 동네 극장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커뮤니티 센터나 마을 회관, 어찌면 동네 펍에서 규칙적으로 영화들이 상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 동네 극장 지원 사업은 이동 영사나 장비 지원 등의 사업도 하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에서 영화를 상영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떻게 공간을 구하고 펀드를 조달하며 마케팅을 해야 하는지 등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13) BFI 홈페이지. <http://www.bfi.org.uk>



[그림 13] 동네 극장(Neighbourhood cinema)의 로고

이는 BFI가 이번 5개년 계획에서 관객들은 영국 전역에서 극장이든 온라인 플랫폼이든, 모든 형태의 영화 관람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운 것과는 어느 정도 이어지는 지점이다. 또 한편으로는 이동 영사와 장비 지원에 펀드가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농촌 지역 세 곳을 시범 지역으로 선정하여 상영 활동을 지원했던 지난 사업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았다고 여겨진다.

커뮤니티 시네마가 그러하듯 여기에서 말하는 시네마는 물리적인 공간인 극장을 의미 한다 기보다 공동체 안에서 영화의 상영이 일어나는 모든 장소 혹은 행위 자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 펀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2백만 파운드의 복권 기금을 배정받게 되었으며, 이 펀드가 저렴한 관람료, 상영의 질적 향상, 콘텐츠의 적절한 공급을 통해 커뮤니티 시네마가 다양한 영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 보았다. 이 펀드의 주요한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지역 커뮤니티에서의 영화 관객 신장
- 장비의 투자, 온라인 플랫폼, 프로그램 조언, 정보 및 네트워크의 제공을 통해 상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에 상영 장소를 만들어내고 개발함
- 영국 영화 및 다양성 영화에 대한 관객의 선택과 접근을 신장

앞서 언급했듯이 이 펀드 안에는 이동 영사 펀드, 장비 펀드가 포함되어 있다. 이동 영사는 지역에서의 커뮤니티 시네마 활동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기존, 그리고 신규의 이동 영사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커뮤니티 시네마가 있지만 상영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지역의 상영 활동을 지원하고, 특히 다양성 영화의 상영 활동을 촉진시키고자 한다.

3) 익산 공공 영상미디어센터의 재미 극장

문화체육관광부가 설립주체로 되어 있는 지역영상미디어센터(17개소)의 운영주체는 지역의 문화재단, 지역 문화(콘텐츠) 진흥원, 영상위원회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 외 영화진흥위원회에 의해 운영 지원되는 두 개 미디어센터(서울영상미디어센터, 전주 시민미디어센터 영시미)가 있다.

영상미디어센터의 주요 목적은 지역 주민들의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¹⁴⁾를 향상시키고, 누구든 미디어에 접근 가능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 문화면에 있어서도 민주주의를 달성하는 데에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센터의 활동은 주로 미디어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최근에는 활동 영역이 확장하여 상영 공간으로 미디어센터가 적극 활용되고 있다. 영상미디어센터에는 시민들이 제작한 영상을 상영할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미디어센터 내에 크던 작던 상영 공간을 가지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설립 주체가 된 영상미디어센터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지자체 등에서 설립한 미디어센터를 모두 합하면 약 41개소가 현재 운영되고 있다. 이들 미디어센터의 주요 사업 영역은 미디어 교육(상설 강좌, 공동체 미디어 교육, 미디어 교육 강사 양성), 창작 지원(제작 지원, 시민 제작단 지원), 영화 상영(상영관 운영, 찾아가는 영화관, 아카이브 운영, 영화 감상 동아리 지원), 공간 장비 대여(교육실/상영관/동아리 방 등 대여, 영상 제작 장비 등 대여)로 나눌 수 있다(홍교훈 외, 2016). 영화 상영은 미디어 센터의 주요한 활동 영역을 점하고 있어, 지역에서 접하기 어려운 독립·예술 영화 상영이나 영화제 순회 상영전 등이 개최될 수 있는 중요한 지역 상영 공간으로 자리해 가고 있다.

전북 익산의 익산 공공 영상미디어센터가 운영하는 ‘재미 극장’은 미디어센터가 운영하는 상영관으로서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익산 지역에는 멀티플렉스 체인 한 곳만이 상설 영화관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영화의 관람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예술 영화나 독립 영화를 보기 위해서 관객들은 전주까지 나와야 한다. 상설관이 아니기 때문에 미디어센터의 재미 극장에서 원하는 때에, 혹은 최신의 예술 영화를 볼 수는 없지만,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다양성 영화를 기획 상영한다는 점에서 주목해볼 만하다.

14) 미디어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재미극장은 58개 좌석을 가진 소극장으로, 디지털 프로젝터, HDCAM, 블루레이 등의 상영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익산 공공 영상 미디어 센터의 상영 관련 활동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익산 공공 영상미디어센터가 기획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지역 영화제의 상영이다. 2017년으로 8회를 맞은 ‘익산 여성 영화제’는 미디어센터가 영화제의 상영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지역의 여성 사회단체와 미디어센터가 함께 영화제의 기획부터 진행까지를 함께하는 영화제이다. 이 영화제는 농촌 이민 여성 센터, 숨리 아이큐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원광대학교 대안언론 하우스, 익산 여성의 전화, 전북 여성 장애인 어울림센터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익산 다큐 영화제’ 역시 익산시민미디어 공동체 ‘영상바투’와 익산 공공 영상 미디어센터가 함께 만들어가는 영화제로 5년째 진행하였다. 익산 다큐 영화제는 11월이나 12월에 하는데 마지막 날에 영상바투 회원들의 영상이 상영되어야하기에 제작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라고 한다. 무엇보다 특징적인 것은 영화제 프로그램의 선정 방식이다. 상영작의 선정은 최근 출품된 다큐멘터리 영화 목록을 ‘재미’에서 공유해주면 회원들이 그 영화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다음, 보고 싶은 영화에 투표를 하고 득표율에 맞춰 상영작을 선정한 다음 상영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최종결정하는 방식¹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료 : 진보적 미디어운동 연구 저널(2016), 『작지만 큰 영화제 (1) 다큐멘터리영화제 : 많이 보면 남는 행사, 익산다큐영화제』, (그림 14) 익산 다큐 영화제 포스터

15) 김진경(2016), 『작지만 큰 영화제 (1) 다큐멘터리영화제 : 많이 보면 남는 행사, 익산다큐영화제』, 진보적 미디어운동 연구 저널 103호

이 두 영화제 사례의 공통된 활동은, 첫째, 미디어센터가 상영 공간의 대여를 넘어 지역 사회의 여러 사회단체들과 연대해나가면서 상영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유의미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예술/독립 영화의 상영 공간으로서의 활동이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기 상영회가 요일별로 구성되어, 상설 상영관이라고 해도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다양한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상영하고 있다.

(표 20) 익산 공공 영상미디어센터의 월 정기 상영 프로그램

	화	수	목	금	토	일
1주차	①애니메이션 정기상영회 ②기획영화 정기상영회 ③어린이집 단체관람 ④일요극장, 이 영화를 소개합니다					
2주차	①애니메이션 정기상영회 ②기획영화 정기상영회 ⑤개봉작 시사회 ⑥내 맘대로 영화이야기 ⑦부귀영화극장					
3주차	⑧영상바투와 함께하는 이 달의 다큐멘터리 ⑨익산여성의전화 씨네클럽 ⑩공동체 상영지원 ⑪미디어교육 발표회					
4주차	⑩공동체 상영지원 ⑫문화가 있는 날 ⑬야외상영회					

자료 : 익산 공공 영상 미디어센터 홈페이지. <http://www.ismedia.or.kr/>

홈페이지에 따르면, 애니메이션 정기상영회는 가족이나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을 주 대상으로 하는 상영회이며 기획영화 정기상영회는 대중영화들을 상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매달 장르/국가/감독/테마 등에 있어 변화를 주고 있다. 더 독특한 프로그램은 ‘일요극장, 이 영화를 소개합니다’, ‘내 맘대로 영화이야기’와 ‘부귀 영화 극장’, ‘영상바투와 함께하는 이 달의 다큐멘터리’, ‘익산 여성의 전화 씨네클럽’ 등이다. 이들 프로그램은 각각 영화 동아리, 미디어 시민 공동체, 익산 여성의 전화 등이 프로그램의 선정 주체가 되어 상영을 진행하는 것으로, 상영 프로그램의 편성에 있어 그 문호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있는 사례이다.

세 번째 활동은 공동체 상영 활동으로 지역의 커뮤니티들이 특정 영화를 공동체 상영하고자 할 경우 이를 지원하고 있다. 10인 이상의 단체가 신청할 경우, 특정 시간대에 무료로 재미극장의 이용이 가능하다. 소장 아카이브에서 영화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지역의 대학, 노인복지센터, 아동센터, 동호회, 소모임,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등 다양한 지역 주체들이 공동체 상영을 위해 재미극장을 활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을 들 수 있다. 이 사업은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에 대형 스크린을 세워 개최하는 야외 상영과 익산 외곽 지역의 마을회관, 학교, 시장 등의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일상적으로 영화를 쉽게 볼 수 없는 시민들을 찾아 영화를 상영하는 활동,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두 활동 모두 다양성 영화보다는 대중적 상업 영화로 상영 프로그램이 구성된다. 2014년부터는 영화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모집하여 상영단을 조직, 이들과 함께 찾아가는 재미극장 사업을 진행하는 등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4) 작은영화관과 기획전

멀티플렉스의 도입 이후 중소 도시의 단관 극장들이 문을 닫으면서, 영화관이 한 곳도 없는 지역들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농어촌의 주민들은 영화 한 편을 보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시내로 나가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이것은 농어촌 주민의 문화 향유와 문화 복지 이슈를 불러왔고, 알려져 있는 대로 2010년 전북 장수군 문화체육관광사업소가 주도하여 장수군 내의 한누리 전당 갤러리를 개조하여 영화관으로 만들면서, 농어촌의 작은영화관 사업이 시작되었다.

작은영화관을 처음으로 기획하여 100여 곳의 중소 시군 지자체에 제안한 작은영화관 사회적 협동조합¹⁶⁾ 측은, 작은영화관이라는 것의 성립 가능성을 두 가지 면에서 찾았다. 한 가지는 디지털 시네마의 도입으로 인한 배급 비용의 절감이다. ‘기존 필름 영화의 경우 상영관 1개당 영화필름 1개가 필요하고 영화필름 1개의 제작비용이 약 200만원 소요(김선태, 2015)’ 되었기에, 멀티플렉스 도입 이후 관객의 발길이 거의 끊어진 지역의 영세한 영화관들이 필름을 거의 수급 받을 수 없었다. 대부분의 영화들의 배급 포맷이 디지털로 변화해가면서 디지털 시네마 장비가 없는 극장들은 영화의 수급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 폐관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 디지털로의 전환은, 그런 점에서 이들 영세한 영화관들에 있어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했다. 즉, 장비 전환 비용이 큰 위기로 작용했지만, 만약 이를 극복할 수 있다면 이후부터는 배급 비용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영화의 수급이 용이해지게 되는 것이다. 영국의 농촌영화관 지원 정책이나 DSN 정책이 장비에 대한 지원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이러한 인식에 기반 했다고 볼

16) 작은영화관 사회적 협동조합은 2014년 7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를 얻어 설립되었으며, 제안서를 배포한 당시(2009년)에는 ㈜글로벌미디어테크가 사업을 주도했다. 이후, 작은영화관 사업을 수행하였던 ㈜글로벌미디어테크의 작은영화관 사업부분을 법인 분할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글로벌미디어테크는 IT 분야 영리법인으로 존존하고 작은영화관 사업은 정식으로 비영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수행하였다(김선태, 2015).

수 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규모 면에서 ‘적정한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영화관을 설계하면 작은 규모의 영화관도 충분히 영화를 관람하는 품질을 확보(김선태, 2015)’ 할 수 있다는 구상에서 작은 영화관 계획이 수립되었다는 점이다. 즉, 사이즈의 축소와 디지털 시네마를 통한 배급 비용의 절감을 통해 인구 3만 내외의 작은 소도시, 농어촌 지역에서도 영화관이 성립 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새로이 극장을 설립하는 것이 민간의 힘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2010년 장수군의 작은영화관 운영 사례에 힘입어, 2013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여 개봉영화관이 없는 중소 시군 지역 지자체가 작은영화관의 개설을 추진 할 경우 국비 5억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국고를 지원받는 지자체는 국고 보조금과 동일한 금액을 자체 부담해야 한다는 구상이었다. 이러한 계획 하에 2017년까지 영화 상영관이 없는 109개 기초 지자체(2013년 기준) 중 90곳까지 작은영화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작은영화관의 가장 우선적인 목표를 ‘지역민들이 좋은 시설에서 최신 영화를 저렴하게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두었다.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 멀티플렉스 수준의 시설을 갖추어 3D 영화까지도 상영하고 대도시 지역과 동시에 최신 개봉영화를 상영토록 하여, 그동안 지역민들이 느꼈던 지역 간 문화격차를 완화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작은영화관의 설립 목표가 어디까지나 지역 간 문화격차의 해소에 있다는 점에서, 전국의 작은영화관들의 프로그램에서 차별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부가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상업영화 이외에도 다양한 영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고전영화, 예술·독립영화 등을 상영하는 다양한 기획전 개최를 지원하고, 유명 영화인들이 ‘작은영화관’에서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과 만나 영화에 대해 토론하는 교육행사도 마련할 계획¹⁷⁾이 있었기 때문에, 일수가 많지는 않지만 이러한 기획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작은영화관의 기획전은 영화진흥위원회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으며 ‘작은영화관 및 소외 지역 영화관에서 고전영화, 예술영화 등 지역실정에 맞는 기획전을 개최함으로써 지역 영화향유권 격차해소 및 소외 지역 영화관 활성화¹⁸⁾를 지원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사업은 선정

17)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13.7.23). 내년말까지 ‘작은 영화관’ 20개 생긴다

https://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2874에서 2017.7.10. 인출

18) 영화진흥위원회, 『2017년도 작은영화관 기획전 지원 위탁단체 선정 공모요강』

된 위탁 단체가 작은영화관에서 기획전이 연 30회¹⁹⁾ 내외로 개최될 수 있도록, 작은영화관 상영 기획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다.



[그림 15] 2017 작은
영화관 기획전 포스터

스'를 사전에 나누어주고 상영이 끝난 후 A4용지를 가로로 3등분, 세로로 3등분으로 접어 9개의 칸을 만들게 한다. 또한 종이를 펼쳐 오른쪽 하단부터 달팽이 모양 방식으로 1-9번까지 번호를 매기도록 한다.

이후에는 ① 영화를 보고 난 후 가장 먼저 드는 느낌, 연상되는 것, 감정 등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적을 지 생각한 후 9개의 번호 중 1번에 명사나 형용사로 적어준다. ② 1번에 적은 단어를 보면서 떠오르는 것이 있으면 2번에 적고, 2번에 적은 단어를 보고 떠오르는 것이 있으면 3번에 적는 방식으로 9번까지 완성을 한다. 가장 어려웠던 번호는 몇 번인지 이야기를 나누고 9칸을 다 채우고 난 후의 느낌을 서로 나눈다. ③ 도화지에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감정을 그림으로 자유롭게 표현해보고 발표한다. ④ A4용지에 그려진 여러 동물 캐릭터들을

작은영화관 기획전은 상영과 함께 부대행사로써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개최하게 되는데,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체험 프로그램, 힐링 시네마 프로그램, 토론 프로그램, 해설 프로그램 등이 있다. (사)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가 펴낸 '작은영화관 기획전 교육 프로그램 사례집(2014년)'에는 영화 콘텐츠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활동 목표, 활동 준비 자료, 활동 방식 등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어, 향후 독자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다른 극장들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북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벨기에로 입양된 전정식 감독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애니메이션 <피부 색깔=꽃색>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영화의 상영 후, 어떠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상세히 적혀 있다. 이 영화의 경우에는 'A4용지, 볼펜, 도화지, 크레파스'를 사전에 나누어주고 상영이 끝난 후 A4용지를 가로로 3등분, 세로로 3등분으로 접어 9개의 칸을 만들게 한다. 또한 종이를 펼쳐 오른쪽 하단부터 달팽이 모양 방식으로 1-9번까지 번호를 매기도록 한다.

19) 1회 상영 기준 : 1개관 100석(50석*2개) 기준, 3일, 1일당 4회 상영

나눠준 후 자신의 가족을 떠올려보고 가족 구성원에 맞는 동물 캐릭터를 붙인 후 왜 이 동물을 선택했는지 2-3개 정도의 이유를 적게 한다.

이 힐링 프로그램은 심리 치료의 일환이기도 했는데, 영화 관람 후 떠오르는 단어를 적고 그 단어의 연상 단어를 적어 나가는 활동을 통해 현재 학생의 꿈, 고민 등을 파악할 수 있고, 가족을 동물 캐릭터로 표현해보는 활동으로 가족 관계를 살펴 볼 수 있다. 또한 학교 선생님들이 이 활동지를 학생들 상담 자료로 활용하고 싶다는 제안을 하였다²⁰⁾.



[그림 16] 영동 레인보우 시네마 영화 쓱쓱 가면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좌)과
임실 한마당 작은별 영화관 기획전 힐링 시네마 교육(우)

영화 감상이라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문화 소비로 자리하면서, 작은영화관은 지방 소도시나 농어촌에서도 최신의 영화를 볼 수 있게 하겠다는 문화 복지적 구상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단지 최신 영화를 감상한다는 것을 넘어, 우리 지역에서 이웃 사람들과 함께 영화를 보고, 커뮤니티 내에서 그 감정을 공유하는 것은 영화관이 갖는 사회적 측면의 중요성으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최신 영화의 상영과 기획전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의 운영이 적절히 그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어 보인다.

20) (사)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2014 작은영화관 교육 프로그램 사례집

5) 지역 사회의 자력 운영 : 대구 독립영화전용관 오오극장

독립 및 예술 영화관의 지형은 많이 변화하고 있다. 2000년대 초 동숭아트센터라는 민간 예술영화전용관의 최초 탄생 이후, 영화 산업과 정책의 급변속에서 예술 영화가 진흥의 대상이 되었고, 2003년부터 문화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에 의해 예술영화전용관은 지원의 대상이 되었다. 아트플러스 네트워크 등 통합적인 예술영화 전용관 지원 체계에 의해 예술 영화 전용관은 전국적으로 20~30개가 매년 운영되었다.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 간다고 생각했으나 2015년 예술영화 전용관 지원 정책이 변화하면서 지형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정부 지원이 언제 어떻게든 변화할 수 있고, 그것이 극장의 존립을 가져올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정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는 민간 차원의 독립 예술 극장들이 하나 둘씩 시도되고 있다.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형태로 영화관을 운영하는 사례는 일본에서는 이미 시도되고 있다. 상영관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지속성을 유지해나가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을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으로 삼고, 자생적으로 운영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2015년 대구 최초의 독립 영화 전용관으로서 개관한 오오극장은 독립 영화에 초점을 맞춘 민간 영화관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대구에는 CGV 아트하우스나 롯데 아르떼와 같은 멀티플렉스 체인의 예술영화전용관도 존재하지만, 2004년 이후 줄곧 예술영화전용관으로 운영되어 온 단관 극장, 동성 아트홀 또한 존재한다. 예술영화전용관으로서의 짧지 않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동성 아트홀은 2015년 영진위 예술영화전용관 정책의 변화와 함께 일시 폐관되게 된다(이후 재개관). 이 동성아트홀에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해있는 오오 시네마는 바로 이 시기, 2015년에 대구 최초의 독립영화전용관으로 개관했다. 동성아트홀의 폐관이라는 엄혹한 배경이 있기는 하였지만, 그보다 오오극장은 ‘독립영화전용관’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기에 동성아트홀과는 프로그램에 있어 차이를 둘 수 있었다. 오오 극장은 독립영화전용관을 통한 영화문화의 다양성 확대 및 영상창작활성화, 지역영화 배급/상영 구조 안정화를 통한 지역영화 수용 기회의 확대, 서울 제외 전국 최초인 지역독립영화전용관의 설립을 계기로 모범사례 발굴과 정책적 확산 모델 구축이라는 목표 하에, 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 ‘미디어핀다’, ‘(사)대구민예총’ 등이 모여 ‘대구독립영화전용관 설립 추진 모임’을 결성하여 설립이 이루어졌다. 운영 형태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를 취해, 현재 대구·경북 영화영상협동조합법인이 그 운영 주체가 되고 있으며, 조합원은 약 20여명이다.

설립 의도에 있어, 무엇보다 주목을 끄는 대목은 오오극장이 독립 영화의 지역 상영을 넘어 지역에서의 영화 제작-배급-상영의 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는 점이다. 지역 내에서 만들어진 장편 영화들이 상영 기회를 갖기 어렵기 때문에 영화의 제작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지역 내에 영화를 상영할 공간이 생긴다면, 영화의 제작 및 배급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분명한 목적 때문이었는지, 설립 당초 지역 독립 영화 상영 비율을 연 중 30%로 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었다. 애초의 상영 프로그램 계획은 국내 독립영화 50%, 지역 독립영화 30%, 기획전 10%, 영화제 유치 및 대관 10%로 구성²¹⁾ 되었는데, 현재는 조정을 거쳐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 편성을 설정해놓고 있다.

[표 21] 오오극장의 상영 프로그램 계획

구분		연간 상영일수 비율(%)
개봉작	한국 독립영화	40%
	대구경북 독립영화	20%
	해외 예술영화	10%
기획전, 정기상영회, 커뮤니티 시네마		20%
대관		10%
계		100%

자료 : 대구 독립영화전용관 오오극장 홈페이지. <http://55cine.com>

지역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없이 독립영화 전용 극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대단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55석이라는 작은 상영공간으로 시작한 것 자체가 자생적 힘을 키우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인데, 오오극장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의 독립영화전용관이 대구 경북의 독립 영화 제작을 촉진시켜 장기적으로 영상 산업의 발달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오오극장의 창작 레지던스 프로젝트는 이러한 구상에서 시작된 것으로,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립 영화인이라면 시나리오의 기획개발, 프리 프로덕션 등을 위해 이 레지던스의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

오오극장은 지역에 설립된 최초의 독립영화전용관으로서의 깊은 의미를 가지지만, 지역 커뮤니티와의 연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삼삼오오 모여앉아 영화에 관

21) 손영득(2014), 긴 겨울을 지난 대구 독립 영화, 대문 2014년 겨울호, 22-29

한 이야기를 하는 오오극장은, 좌석 수 55개를 가진 오오극장과 삼삼다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화관 내에 펍(Pub)이나 카페를 두어 관람객들이 영화 시작 전후에 모여앉아 영화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아트하우스들이 지향해왔던 모습이다. 다방이라고 하는 담화의 장소를 극장의 주요한 한 축으로 설정하였을 때, 이미 오오극장은 극장이 단지 영화를 소비하는 공간을 넘어서길 바랐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17) 오오극장에서 개최된 대구단편영화제(위)와 오오극장 안에 있는 삼삼다방(아래)

‘커뮤니티 시네마’로서의 역할에 대한 오오극장의 생각은 관람 정책에서 잘 드러난다. 오오극장은 “일방적 서비스로 이익을 추구하는 대형 멀티플렉스와 달리 관객들의 다양한 영화 취향과 관람형태를 존중하고, 관객이 직접 참여하며, 늘 상상하고 변화하는 영화관을 지향”하며,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공동체와 함께 상영회를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영화를 통해 그 공동체가 해결하고자 하는 이슈가 지역 사회에서 소통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성소수자 인권단체, 녹색당, 여성단체, 독립 출판물 서점 등 지역의 여러 단체들과 함께 국내 독립영화, 해외 예술영화들을 공동체 상영하면서 이러한 의지를 실천하고 있다.

6) 시사점 : 시·군 시행계획의 필요사항 및 기본내용

국내외 영상문화의 선행 사례에서 얻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의 실정에 맞는 영상문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충남과 같이 도심과 농촌이 함께 있는 지방 정부라면, 해당 지역의 권역을 영상 관련 시설과 공공 문화 시설을 기준으로 삼아 구획해 그 접근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윤희숙 외(2012)는 지역 영상문화를 수준 체계별로 4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2012년을 기준으로 ‘문화 소외 지역인 ① 영역’, ‘공공 문화 집중 지역인 ② 영역’, ‘상업 문화 집중 지역인 ③ 영역’, ‘영상문화 발전 지역인 ④ 영역’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러한 영역에 대한 세밀한 조사에 근거하여 영상문화의 활성화 방안이 차등적으로 도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충남의 ‘아산시²²⁾’와 ‘계룡시’는 ① 영역으로 공공문화시설도, 영상문화 상업 시설도 없는 문화소외지역이 된다. 이러한 지역에는 상설 공공 영상문화 시설을 건립하여 상업 영화 중심의 프로그래밍을 할 필요가 있다. 또, ‘금산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은 공공 문화 시설은 있지만 영상문화 상업 시설은 존재하지 않는, 공공문화 집중 지역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지역의 공공 문화 시설을 상설 상영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게 된다. 현재는, 서천에 작은영화관이 존재하고 예산, 청양, 태안에 작은영화관 개관 예정이다. 공공 문화 시설은 없고 영상문화 상업 시설만이 존재하는 연기군은 상업문화 집중 지역으로 예술 및 독립 영화 전용관과 같은 상설 공공 영상문화 시설을 건립하거나, 이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학교·문화시설 강당 등의 공공시설에서 비상설적으로 다양성 영화를 상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 영역인 영상문화 발전 지역이라 할 수 있는 곳은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서산시’, ‘논산시’, ‘부여군’, ‘홍성군’, ‘당진군’ 등이다. 이들 지역은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여 다양성 영화가 활발히 상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공 기반 시설인 문예회관, 도서관 등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는 활동도 필요하다.

둘째, 지역 주민들이 영상문화 생산의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영화의 상영과 관람을 제작자(생산자)와 관객(소비자)이라는 단선적 관계로 파악해서는 영상문화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대중들의 문화적 역량이 성장하면서, 대중들은 이제 소비자라는 위치에만 머물지 않는다. 지역문화진흥법은 생활문화를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

22) 현재(2017년 기준) 아산에는 롯데시네마가 생기면서 문화소외지역으로 분류하기 어렵다.

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제2조 2)”이라고 정의하고 있다(홍교훈 외, 2016). 이러한 법제로 인해 주민문화예술단체 혹은 동호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것이 의미 있다. 더구나 미디어센터를 통한 미디어 교육, 학교에서의 예술 교육, 영화 동호회 활동 등이 활성화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리는 매우 가까워졌다. 언급한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오오극장은 관객 프로그래머를 두고 있으며, 익산 공공 영상 미디어센터의 재미 극장은 ‘일오극장, 이 영화를 소개합니다’, ‘내 맘대로 영화이야기’ 등의 코너에서 주민들에게 프로그램 편성권을 개방하고 있다. 오오극장의 협동조합 형태는 운영 주체가 지역 주민이 된다는 점에서 충남의 독립영화전용관(인디플러스 천안) 운영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셋째, 영상 관련 시설의 자생력 강화이다. 협동조합이 필요한 것은 상업적 이윤을 내기 어렵지만,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설이 지역 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즉, 오오극장처럼 독립 영화 전용관이라는 것이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가치를 공유한 이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비영리적으로 극장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협동조합 형태의 영화관 운영은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 다수 시도되어 온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하다. 국내에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것이 비교적 최근인 2012년이며, 무엇보다 예술 영화나 독립 영화의 전용 극장들은 민간보다는 정부의 지원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것은 정부 지원이 운영의 보조적인 수단이 되어야지, 전적으로 의지하는 구조로 나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윤을 기대하기 어려운 공익적 성격의 상영관들이 지역 내에서 꾸준히 지속되기 위해 협동조합과 같은 다양한 방식을 시도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가능하도록 정책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영상문화 활성화는 지역 공동체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공동체 상영운동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 속에서 ‘영화’를 통해 주체형성과 공동체의 특이성을 발현할 수 있는 상영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는 것(김화범, 2007)으로 볼 수 있다. 지역의 영상문화는 단지 주민들이 영화를 많이 보는 것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영화의 관람이 의식적이고 공공적 행위로서 일어날 때,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영화관 협동조합을 만들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영화관에 대해 영화를 관람하는 공간이라는 역할만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재생산하는 공간이자 장치’라는 사회적 역할에도 주목(원승환 외, 2013)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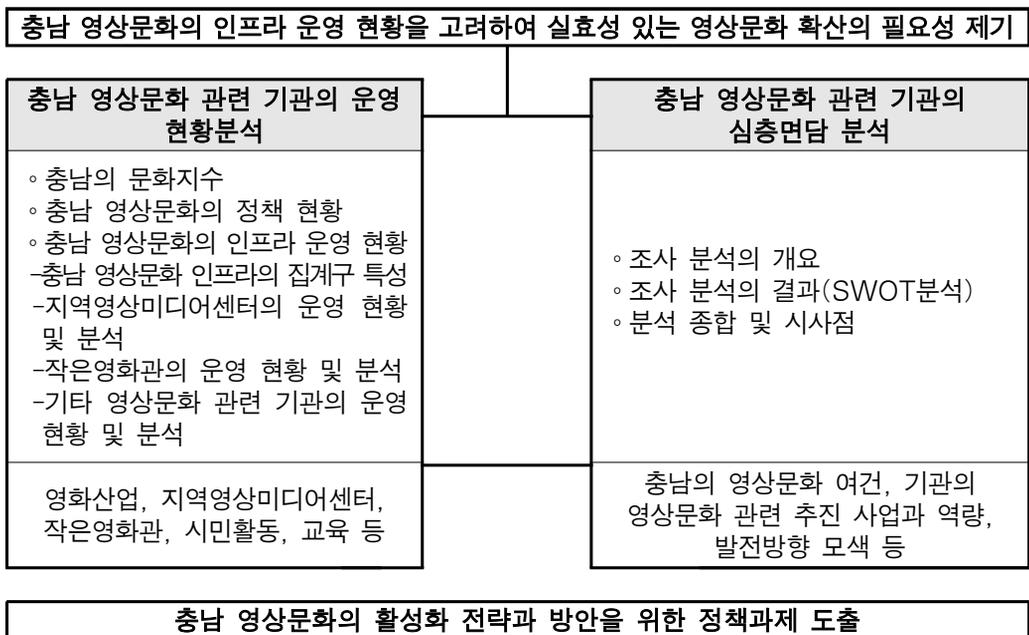
제3장 충남 영상문화의 현황 점검과 과제 도출

1. 분석의 틀

이상에서 영상문화의 개념, 영상문화 관련 법률, 추진 정책, 국내의 영상문화의 사례 조사 등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제시할 수 있는 본 연구의 틀은 다음과 같다.

연구의 틀은 충남의 영상문화 운영 현황을 고려하여 지자체 차원의 실효성 있는 영상문화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충남 영상문화 관련 기관의 운영 현황분석’, ‘충남 영상문화 관련 기관의 심층면담 분석’ 등을 통해 충남 영상문화의 정책과제와 추진전략을 도출하는 체계로 이루어진다.

[표 22] 분석의 틀



2. 충남 영상문화 관련 기관의 운영 현황분석

1) 충남의 문화지수²³⁾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1조(지역문화실태조사)에 의거하여, 우리나라 지역 문화의 발전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된 ‘2014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의 결과를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발표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16).

이는 전문가 자문과 설문 등을 통해 선정된 ‘문화 정책’, ‘문화 자원’, ‘문화 활동’, ‘문화 향유’ 등 4개의 대분류 이하 총 27개의 지역문화지표를 적용하여, 대전, 세종, 충남 등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지역문화지수는 수집한 자료를 표준화, 가중치 부여 등 통계적으로 가공하여 추출한 값으로, 값의 높고 낮음에 따라 문화 정책 수립·추진과 문화 자원 보전·구축·관리, 문화 향유 및 문화 활동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

결과에 따르면, 시·군·구 통합 전체 지역문화지수가 가장 높은 곳은 전북 전주시, 군 지역은 전남 강진군, 구 지역은 서울시 성동구가 가장 높게 분석되었다. 그러나 ‘문화 정책’과 ‘문화 자원’, ‘문화 활동’, ‘문화향유’ 등 대분류별 지수 값이 높게 나타난 지역 조사에서 충남 지역 지자체는 포함되지 않았다. 충남에서는 금산군이 유일하게 ‘문화 활동’ 분야에서 문화 복지 전문 인력이 전국 총 56명 중, 5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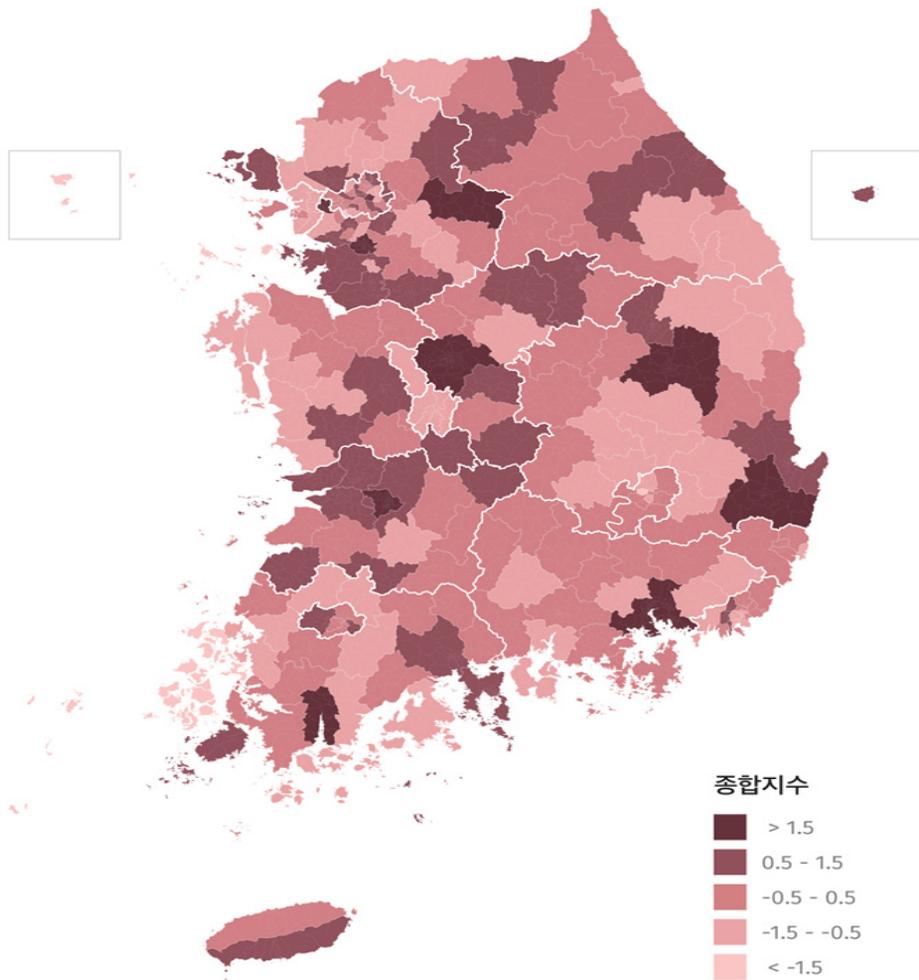
[표 23] 시·군·구 기준별 상위지역

구분	상위지역 (10개)
시	전북 전주시, 경기 수원시, 경남 창원시, 경기 부천시, 경북 안동시, 충북 청주시, 경북 경주시, 전북 익산시, 경기 고양시, 경기 구리시
군	전남 강진군, 경기 양평군, 전남 진도군, 전북 무주군, 전북 완주군, 충북 보은군, 경북 울릉군, 강원 양구군, 전북 순창군, 충북 영동군
구	서울 성동구, 부산 사상구, 서울 중구, 서울 노원구, 서울 동작구, 부산 서구, 서울 종로구, 서울 강동구, 부산 북구, 광주 동구

23) 충남연구원(2016), 『충남 사회문화예술평교육의 운영 실태 및 활성화 방안 - 문화기반시설과 문화재단의 활용을 중심으로』, 61~62쪽의 내용을 바탕으로 인용·정리함

2012년에 비해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비수도권 간 지역문화 격차가 다소 줄어든 결과를 보였다. 수도권의 지역문화 종합지수 평균은 0.028, 비수도권은 -0.011로 나타나, 2012년 기준 조사 결과인 수도권 0.140, 비수도권 -0.057에 비해 격차가 다소 줄어들었다.

충남 15개 시·군은 지역문화 실태조사의 종합순위는 물론 시·군·구별, 문화 대분류별 평가에서 모두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상대적 열위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충남의 지역문화 격차를 향후에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4년 기준 지역문화 실태조사 결과 발표』, p. 8.
 (그림 18) 2014년 기준 전국 지역문화실태조사 종합지수

2) 충남 영상문화의 정책 현황

영상문화와 관련한 조례의 제정은 지역에서 영상문화정책에 대한 의지와 척도를 파악할 수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충남의 작은영화관,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영상문화(영상산업)와 관련한 조례를 살펴보았다.

작은영화관을 조성 및 운영하는 기초단체 중 일부 시군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관람료·위수탁·관람 규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충남의 작은영화관 조례로 ‘서천군 기벌포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예산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 ‘태안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다. 서천군 기벌포영화관의 조례는 관람료·운영·위수탁·위원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예산군과 태안군의 작은영화관 조례는 관람료·위수탁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충남의 작은영화관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근거는 모든 지역에서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에, 향후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전국에 약 41개의 지역미디어센터가 설립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미디어교육, 창작지원, 장비 및 공간대여, 영화·영상 상영 등의 프로그램 등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하고 있다(허경 외, 2013).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지역민의 영상문화 향유권 확충을 위해 다양한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및 영상기자재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충남에는 「충남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있으며, 이는 지역민에게 영상문화 상영 등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보다, 충남의 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조례는 충청남도 미디어센터(제2장), 충청남도 지역미디어 발전위원회(제3장), 충청남도 도정신문(제4장), 그밖에 사무의 민간위탁 등(제5장)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충청남도 미디어센터란 충청남도의 홍보협력관 소속으로 온라인 도정신문 및 다양한 콘텐츠 등 미디어를 통한 도정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충남넷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 도정홍보 콘텐츠 제작·발굴 및 영상 홍보물 제작 등에 관한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충남에서도 미디어교육, 창작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역영상미디어센터와 관련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할 것이다.

향후 입법 준비 중인 「충청남도 영상산업 진흥 조례」는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및 영상산업·영상문화시설(작은영화관, 영상미디어센터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표 24] 충남의 영상문화 관련 조례

분 류	자치법규
작은영화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천군 기벌포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예산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 ◦ 태안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
지역영상미디어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남도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지역영상미디어 센터에 관련한 내용이 아니라 도정의 홍보업무를 목적으로 함
영상문화(영상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남도 영상산업 진흥 조례 입법 준비 중

3) 충남 영상문화의 인프라 운영 현황

영상문화 분야를 구성하는 중요 인프라로 기반시설로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작은영화관을 꼽을 수 있으며, 지자체의 영상문화에 관한 지원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기타 관련 기관으로 영상위원회, 지역콘텐츠 산업진흥 관련 기관,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역문화재단 등이 있으며, 그 외에 영상문화 관련 활동으로 시민 활동, 교육 등을 꼽을 수 있다([그림 19] 참조).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미디어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을 이끌어 내고 있으며, ‘작은영화관’은 인구가 적어 민간 사업자가 극장을 운영하지 않는 지역에 공적 자금을 지원해 극장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역할을 한다. 영상문화 관련 시민 활동은 독립영화협회, 시네마테크, 예술·독립영화전용관, 작은영화제, 시민영상문화동호회, 대안상영공동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영상문화의 교육은 문화콘텐츠(영상·영화·문화예술 등)와 관련된 대학교·학과 및, 다양한 교육현장(도서관, 문화재단 등)을 의미한다.

지역의 영상문화는 지자체, 산하 지원기관, 영화제, 비영리 영상활동 단체, 교육 활동 등을 포괄하는 개방적 거버넌스 형태의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것이 중요하다(홍교훈 외, 2016). 오히려 특정 기구를 통한 지원체계의 수립 보다는 충남에 다양하게 있는 영상문화 관련 유관기관의 사업들을 연계하여 활용하고, 지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충남 영상문화의 작은영화관과 영상미디어센터의 현황 및 관련기관의 추진 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충남 여건에 맞는 영상문화의 과제 도출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림 19] 영상문화의 인프라 구축

충남의 영상문화 관련 기관은 총 43개가 분포하고 있으며, 천안시에 17개로 집중 분포되어 있고, 계룡시의 경우 관련 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5], [그림 20] 참조).²⁵⁾ 영상문화 관련 기관의 분포는 대부분 시와 군의 읍지역과 동지역에 분포하고 있는데, 1개 기관 당 이용 인구는 서천군이 25,796명으로 가장 적으며, 논산시가 112,780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천안시의 경우 영상문화 관련 기관이 17개가 분포하고 있지만, 1개 기관 당 이용 인구는 32,890명으로 적은 편으로 나타났다.

24) 충남영상위원회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의 산하기관으로 포함되어 있다.

25) 본 분석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속해있는 한국영상대학교의 경우 공주시로 포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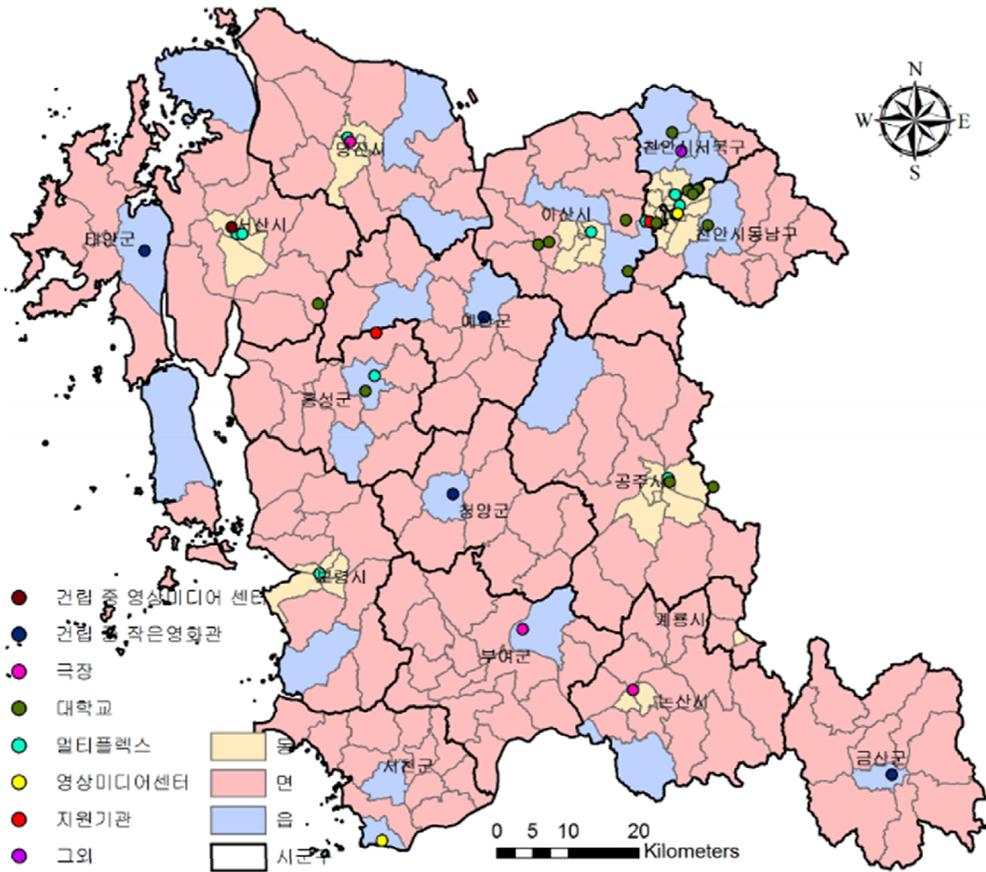
[표 25] 충남의 시·군별 영상문화 관련 기관 현황

시군	영상 미디어 센터 (건립중)	영상 미디어 센터	작은 영화관 (건립중)	극장*	대학	멀티플렉스	지원 기관	그 외*	총합 (A)	총인구 (B)	인구 대비 (B/A)
계룡시	0	0	0	0	0	0	0	0	0	37,176	-
공주시	0	0	0	0	2	1	0	0	3	102,976	34,325
금산군	0	0	1	0	0	0	0	0	1	51,062	51,062
논산시	0	0	0	1	0	0	0	0	1	112,780	112,780
당진시	0	0	0	2	0	1	0	0	3	150,307	50,102
보령시	0	0	0	0	0	1	0	0	1	95,790	95,790
부여군	0	0	0	1	0	0	0	0	1	65,290	65,290
서산시	1	0	0	0	1	2	0	0	4	155,615	38,904
서천군	0	1	0	1	0	0	0	0	2	51,592	25,796
아산시	0	0	0	0	3	1	0	0	4	269,193	67,298
예산군	0	0	1	0	0	0	0	0	1	76,643	76,643
천안시	0	1	0	2	7	4	2	1	17	559,144	32,890
청양군	0	0	1	0	0	0	0	0	1	29,636	29,636
태안군	0	0	1	0	0	0	0	0	1	55,857	55,857
홍성군	0	0	0	0	1	1	1	0	3	87,075	29,025
합계	1	2	4	7	14	11	3	1	43	1,900,136	54,671

주 : 1) 기존에 있는 작은영화관은 극장의 수치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 외는 충남 테크노파크를 의미함
 2) 멀티플렉스는 한 상영관에 7개 이상의 스크린을 보유하는 것을 의미함

(1) 충남 영상문화 인프라의 집계구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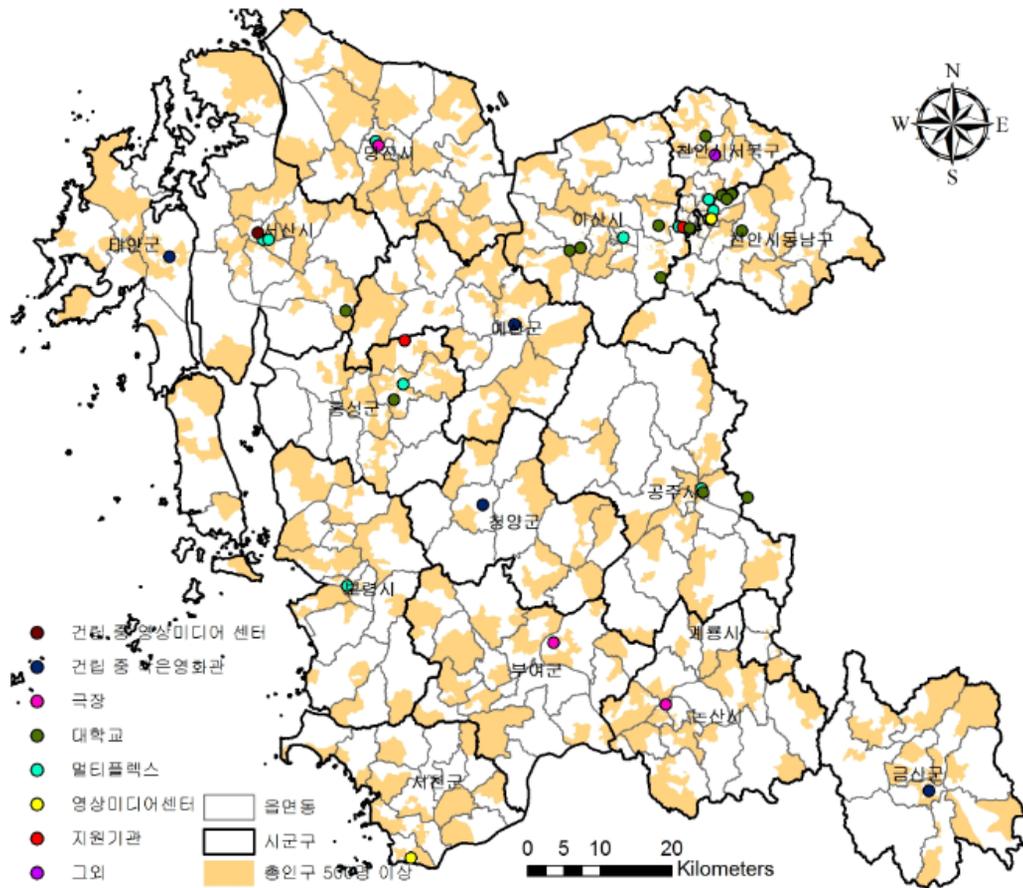
집계구 기준 인구 500명 이상 지역과 영상문화 관련 기관의 공간적 분포를 살펴보면, 영상문화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주변부에 500명 이상 거주하는 지역에 다수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20 참조). 또한 본 연구에서는 유소년층, 청장년층, 노년층, 1인 가구, 평균 가구원수가 2.5명이 거주하는 지역과 충남 영상문화 관련 기관들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²⁶⁾



(그림 20) 충남의 시·군별 영상문화 관련 기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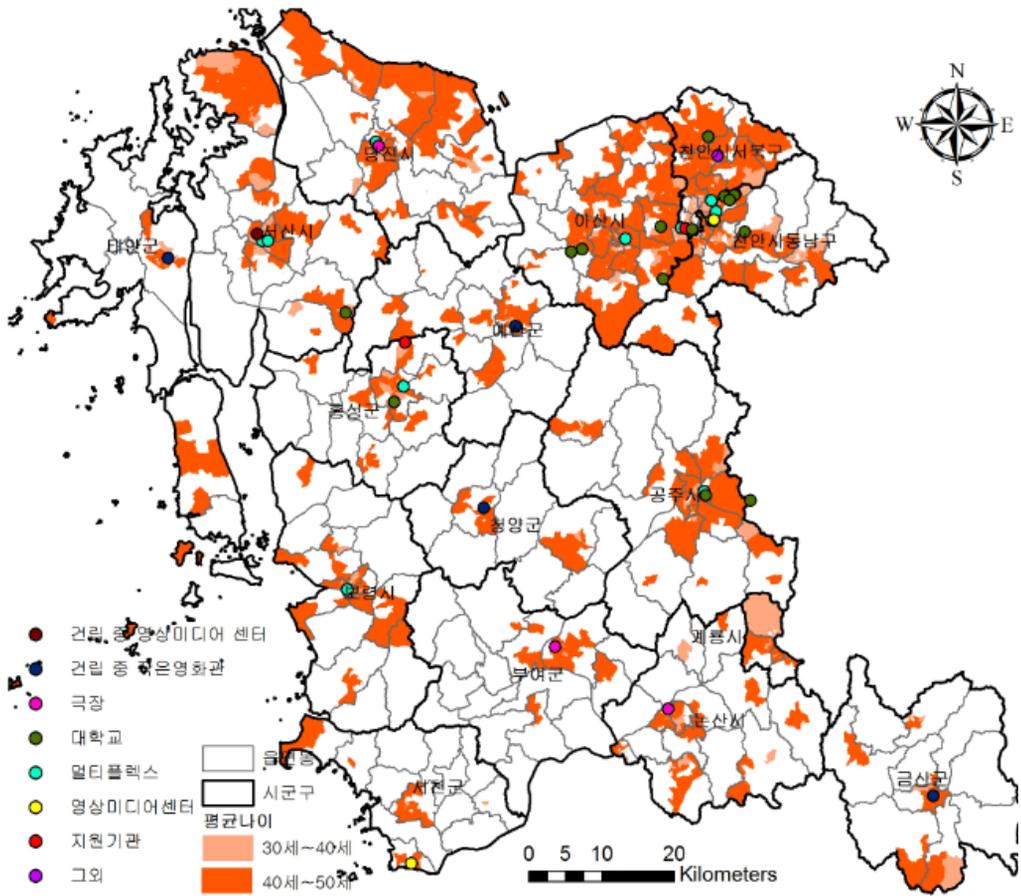
26) 유소년층, 청장년층, 노년층, 1인 가구가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비율과 충남 영상문화 관련 기관들의 현황을 지도에 가시화하기 위하여 최적화화된 각각의 비율인 20%(유소년층), 60%(청장년층), 40%(노년층), 50%(1인 가구)로 조정하였다.

집계구 지역 내 총인구의 평균나이와 영상문화 관련 기관의 분포를 살펴보면, 주로 집계구 지역 내 총인구의 평균나이가 30대(30~40세), 40대(40~50세)에 해당하는 지역에 영상문화 관련 기관이 대체적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21] 참조). 하지만 계룡시, 서천군 서천읍, 태안군 안면읍, 서산시 대산읍, 당진시 북부지역들 또한 평균나이가 30~40세, 40~50세에 해당하는 지역들이지만 현재 영상문화 관련 기관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주변 지역의 영상문화 관련 기관들과 연계하여 30~50대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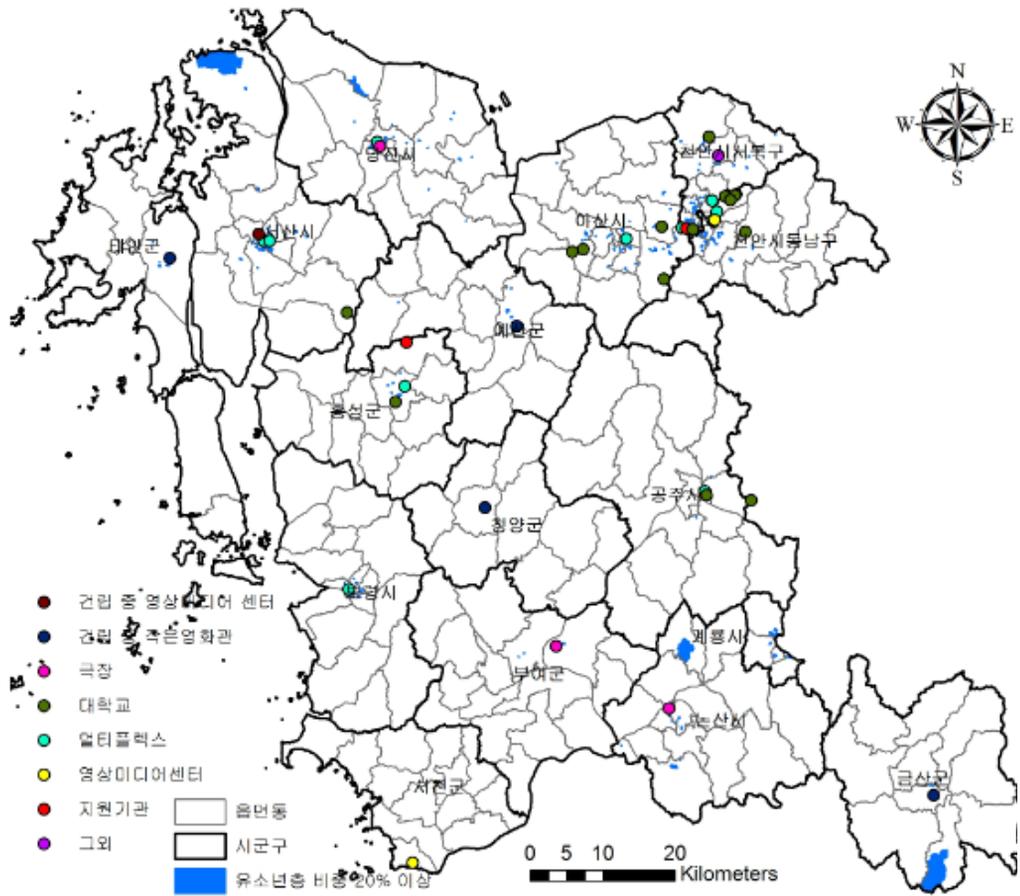
(그림 21) 집계구 기준 인구 500명 이상 지역

집계구 기준 총인구가 500명 이상 거주하는 지역 중에서, 영상문화 관련 기관의 분포가 유소년층의 거주비중이 20% 이상인 지역의 주변부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22] 참조). 그러나 서산시 대산읍, 금산군 남일면, 논산시 노성면 그리고 계룡시의 경우 유소년층의 거주비중이 20% 이상인 지역이지만 현재 영상문화 관련 기관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주변 지역의 영상문화 관련 기관과 유소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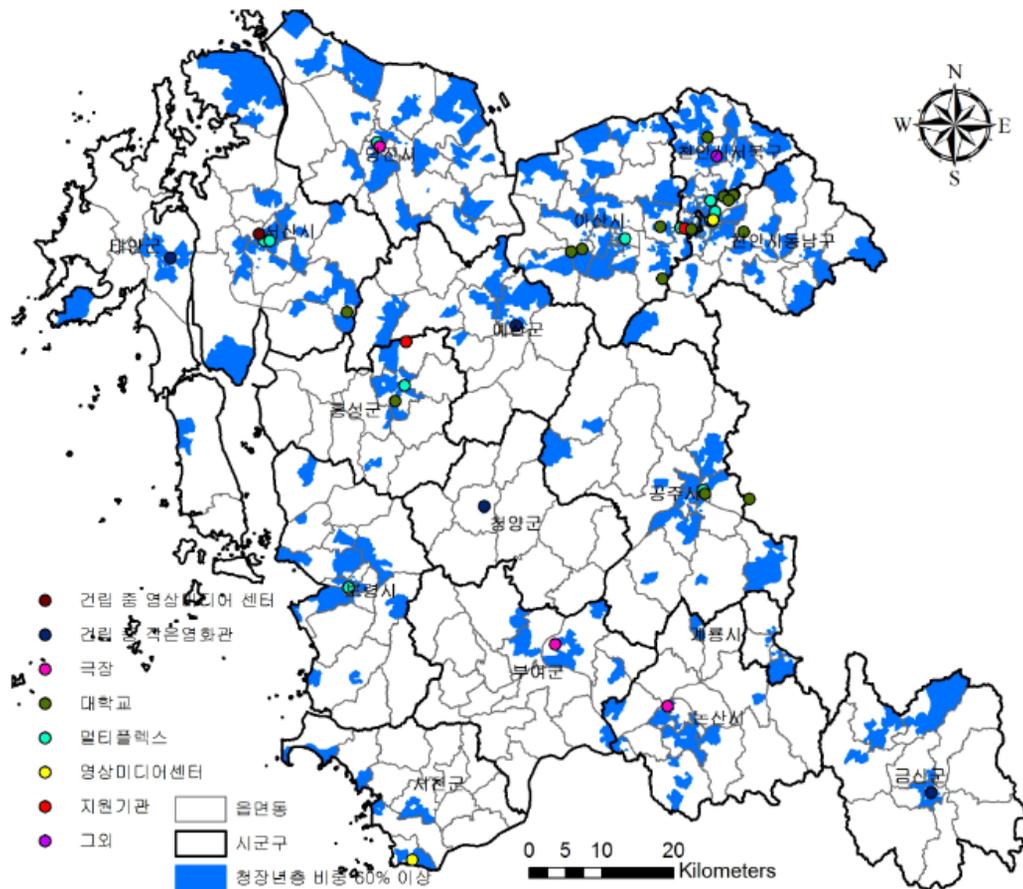
(그림 22) 집계구 기준 평균 나이(30~40세, 40~50세)

집계구 기준 총인구가 500명 이상 거주하면서 청장년층 비중이 60% 이상인 지역과 영상문화 관련 기관과의 공간적 분포를 나타낸 내용은 [그림 23]과 같다. 여기서 경제활동인구인 청장년층이 높은 지역과 영상문화 관련 기관의 분포를 가시화하기 위하여 60%로 범위를 설정하였다. 청양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주변부에 총인구가 500명 이상 거주하면서 청장년층 비중이 60% 이상인 지역에 영상문화 관련 기관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서산시 대산읍과 서천군 서천읍, 계룡시, 당진시 북부지역과 천안시 동남부지역에서는 총인구가 500명 이상 거주하면서 청장년층 비중이 60% 이상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영상문화 관련 기관이 없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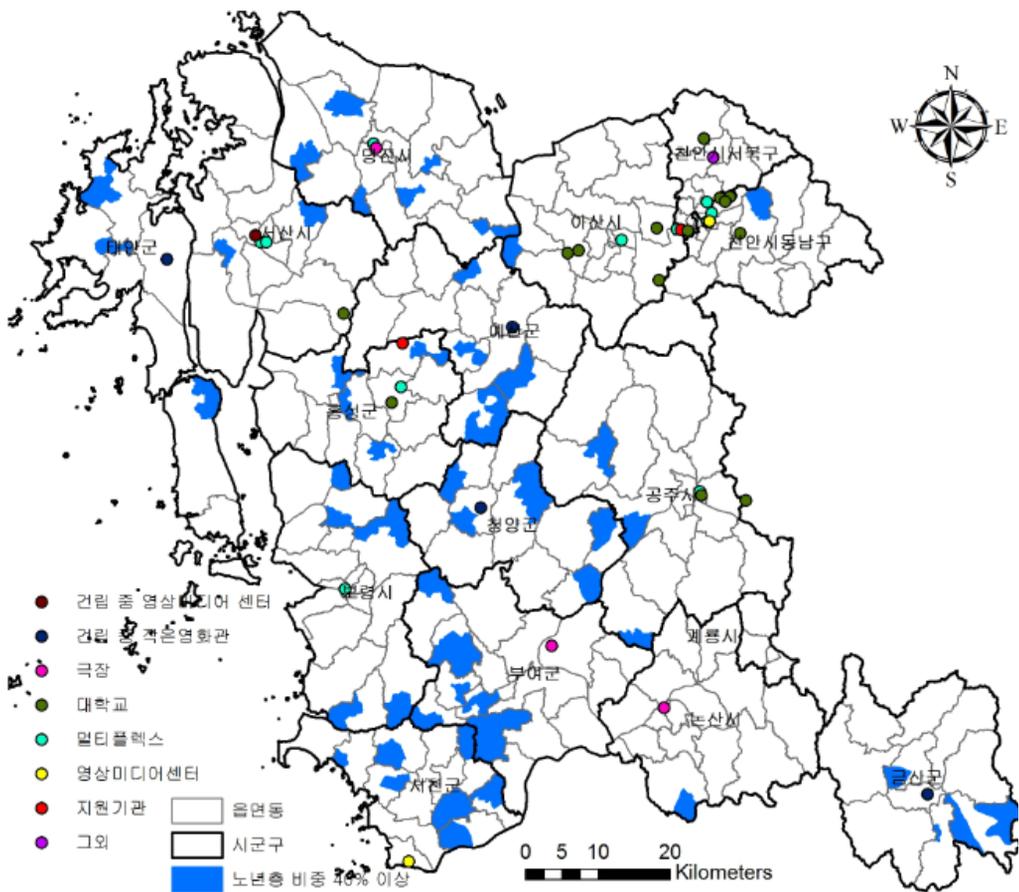
[그림 23] 집계구 기준 총인구 500명 이상 거주하면서 유소년층 비중이 20% 이상인 지역

집계구 기준 총인구가 500명 이상 거주하면서 노년층의 비중이 40% 이상인 지역들과 영상 문화 관련 기관의 공간적 분포를 나타낸 내용은 [그림 24]와 같다. 집계구 기준 총 인구가 500명 이상 거주하면서 노년층의 비중이 40% 이상인 지역과 떨어진 곳에 영상문화 관련 기관들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소년층과 청장년층의 비율이 높은 집계구에 영상문화 관련 기관들이 분포하는 것과는 반대로, 노년층의 비율이 높은 곳에서는 영상문화 관련 기관들이 분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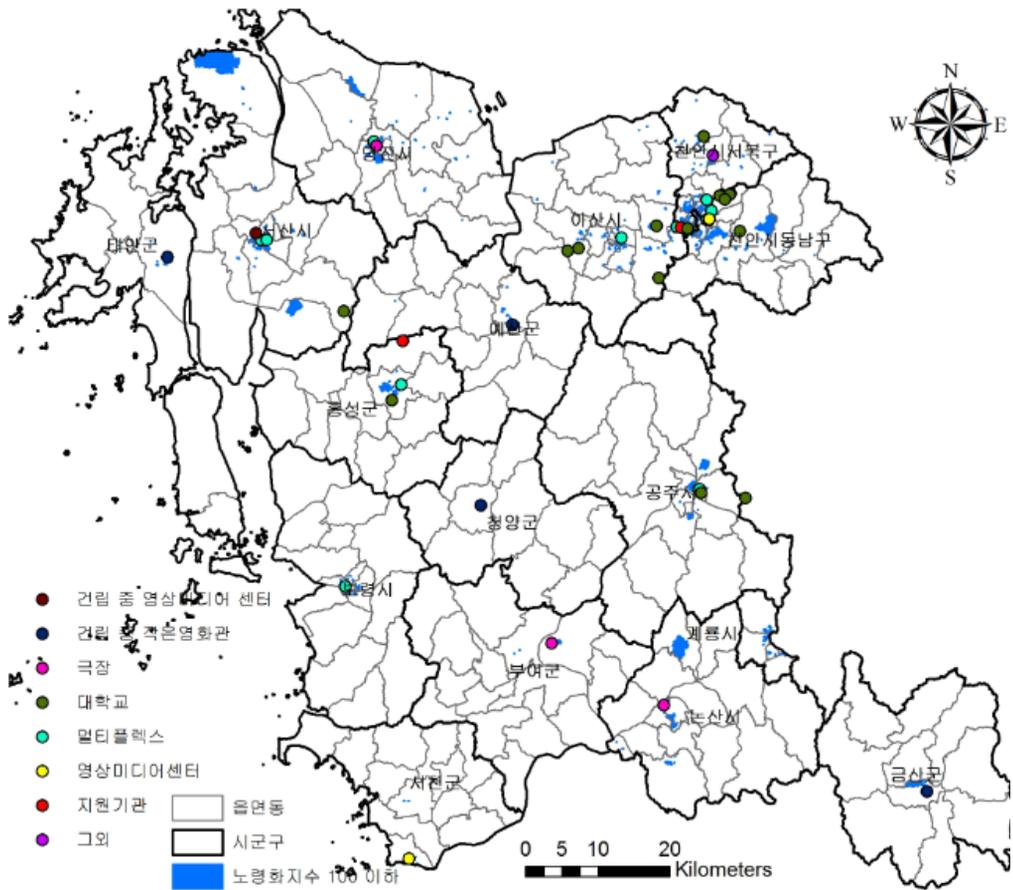
(그림 24) 집계구 기준 총인구 500명 이상 거주하면서 청장년층 비중이 60% 이상인 지역

집계구 기준 총인구가 500명 이상 거주하면서 노령화 지수가 100 이하인 지역과 영상문화 관련 기관의 공간적 분포를 나타낸 내용은 [그림 25]와 같다.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층 인구(0~14세)에 대한 노년층 인구(65세 이상)의 비율을 의미한다. 노령화 지수가 100 이하인 지역들(노년층 인구보다 유소년층 인구가 많은 지역) 주변부에 영상문화 관련 기관들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유소년층의 거주비중이 20% 이상인 지역의 주변에 영상문화 관련 기관들이 분포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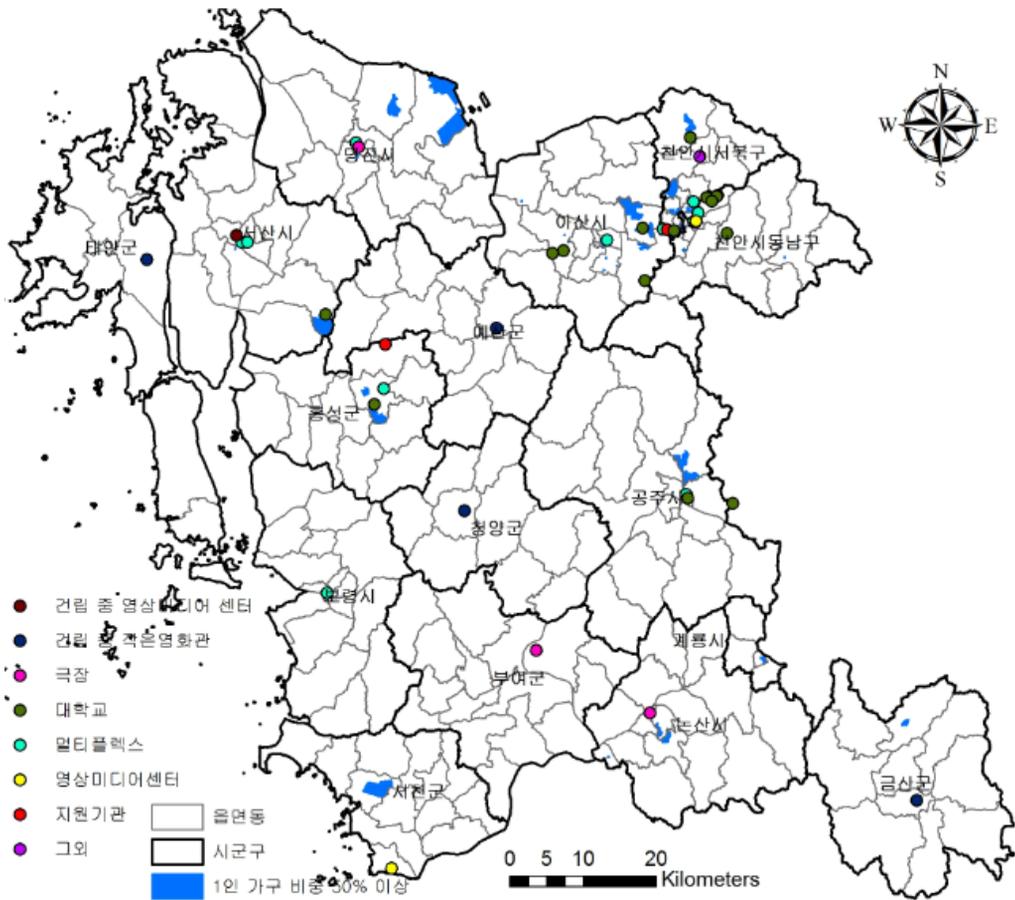
(그림 25) 집계구 기준 총인구 500명 이상 거주하면서 노년층 비중이 40% 이상인 지역

집계구 기준 총인구가 500명 이상 거주하면서 1인 가구의 비중이 50% 이상인 지역들과 영상문화 관련 기관의 공간적 분포를 나타낸 내용은 [그림 26]과 같다.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은 지역들에 영상문화 관련 기관이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예외적으로 당진시, 송산면과 송악면, 서천군 서천읍의 경우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영상문화 관련 기관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천안시와 아산시에서 1인 가구의 비중이 50% 이상인 지역에 영상문화 관련 기관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영상문화 관련 기관들은 1인 가구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할 것이다.



[그림 26] 집계구 기준 총인구 500명 이상 거주하면서 노령화지수가 100 이하인 지역

집계구 기준 총인구 500명 이상 거주하면서 평균 가구원수가 2.5명 이상인 지역들과 영상문화 관련 기관의 공간적 분포를 나타낸 내용은 [그림 27]과 같다. 총인구 500명 이상 거주하면서 평균 가구원수가 2.5명 이상인 지역들에도 영상문화 관련 기관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서산시 대산읍, 서천군 서천읍 등에서는 총인구 500명 이상 거주하면서 평균 가구원수가 2.5명 이상인 지역들이지만, 영상문화 관련 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변 지역의 영상문화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2.5명 이상의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발굴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27) 집계구 기준 총인구 500명 이상 거주하면서 1인 가구 비중이 50% 이상인 지역

(2)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영상미디어센터는 영상정보시대의 새로운 공공문화기반시설로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지역 주민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영상기자재 및 관련시설을 운영하며, 전문가에서 일반인까지 참여하는 다양한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미디어·문화 센터를 의미한다. 미디어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미디어 활용능력에 대한 요구가 생겨나면서, 지역영상미디어센터가 정부부처에 의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2002년 영화진흥위원회가 개관한 미디어엑트를 필두로 미디어문화센터들이 전국 곳곳에 생겨나기 시작하였고, 현재 41개의 지역영상미디어센터가 설립되었다(허경 외, 2013; 홍교훈 외, 2016)

영상미디어센터의 주요 운영 프로그램은 미디어 체험·읽기·제작, 학교 및 관련 기관과 연계한 ‘미디어교육’, ‘시민영상콘텐츠 제작지원 및 동아리 지원’, 영화 상영 및 영화 감상동아리 지원의 ‘상영관 운영’, 노인·여성·장애인·이주민 등의 ‘소외계층 미디어활동 지원’, 작은도서관·공부방·청소년시설·문화의 집 등과 연계한 ‘지역문화시설 연계 사업’ 등이다. 현재 충남에는 ‘천안시 영상미디어센터 비채’, ‘서천군미디어문화센터 소풍+’ 두 곳의 영상미디어센터가 운영 중이며, ‘서산시 지역영상미디어센터’가 건립중이다.

[표 26] 충남의 영상미디어센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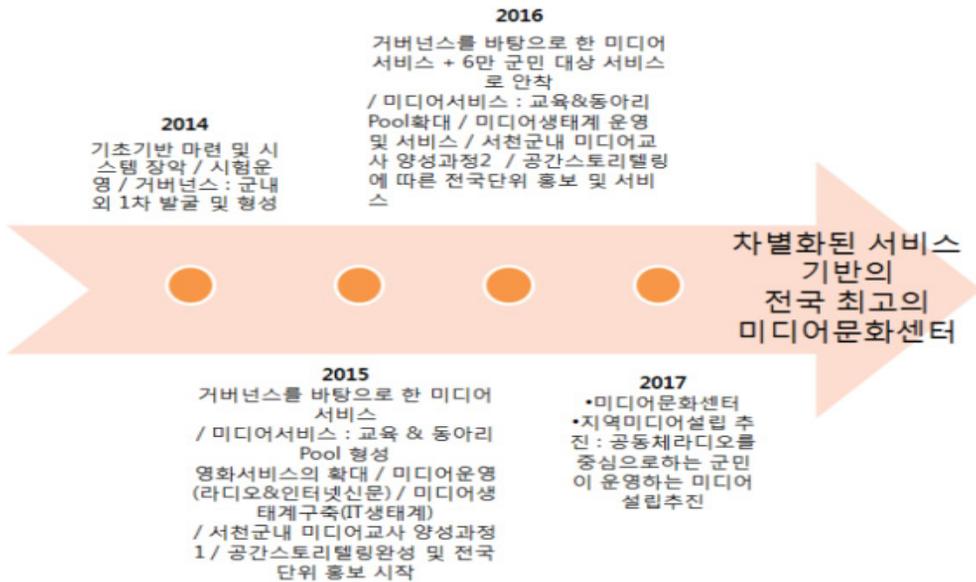
설립주체	운영주체	센터명	위치	사업비(백만원)
문화체육관광부/지자체	충남 문화산업진흥원	천안시 영상미디어센터 '비채'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111	560 (운영비 290, 프로그램 운영비 90)
	민간단체	서천군 미디어문화센터 소풍+	장항읍 신창리 137-1번지 일원 (구)장항역사 인근	297 (위탁운영비)
		서산시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중)	서산시 부춘공원 2로 11, 서산문화원	2,500(건립비) (국비 1,250, 시비 1,250)

주: 천안시 영상미디어센터 사업비에 천안여성영화제(80백만원), 독립영화전용관(100백만원)의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음

① 서천군 미디어문화센터 소풍 +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장항미디어센터가 준공되었고, 향후 2014년 미디어체험교육프로그램 시범운영 및 미디어센터의 명칭이 ‘서천군 미디어문화센터 소풍+’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서천군 미디어문화센터의 미션은 ‘서천군의 강화와 문화적 향유권을 확대하는 센터’이며, 2016년 주요 사업내용은 라디오 방송 및 체험, 미디어문화산업컨퍼런스 등이 진행되었다.

서천군 미디어문화센터는 2015년에는 거버넌스 확대 및 구체적 협력 활동을 부문별·연령별·계층별로 확대하였고, 미디어문화생태계의 구축, 미디어교육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운영되었다. 이후 2016년에는 거버넌스의 계층별 확대로 정규방송채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작은영화관 운영과 라디오의 융합 운영, 작은영화제 개막 등을 진행하였다. 2017년에는 지역거버넌스, 동아리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밀착형 공동체미디어설립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료 : 서천군 미디어문화센터 2016년 운영계획안, p. 8.

(그림 28) 서천군 미디어문화센터의 비전 실현 계획(2014~2017년)



자료 : 서천군 미디어문화센터 2016년 운영계획안, p. 7.
 (그림 29) 서천군 미디어문화센터의 미션 및 비전

2015년을 기준으로 서천군 미디어문화센터는 총 1억 1천 4백만원의 사업비로 운영되었다. ‘미디어문화거버넌스사업’은 미디어문화복지 그물망 형성으로 지역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를 목표로 2천만원 예산의 ‘전국마을미디어대회(가칭)’가 진행되었다. ‘미디어교육’은 라디오, 사진, NIE, 영상 등 분야의 과정으로 기금사업(3천만원), 자유학기제(1천 5백만원)가 편성되었다. ‘미디어운영’은 지역 내 다양한 기관, 단체의 참여 촉진을 통해 지역사회의 사회문화적 거버넌스 형성에 기여를 목표로 1천만원의 라디오제작 사업이 진행되었고, 서천군에 대한 미디어 조사·육구·내용들을 바탕으로 서천군민 대상 미디어 프로그램의 개발 및 미디어 교육생 대상을 위한 교재 제작 발간의 ‘출판사업’으로 4백만원이 편성되었다. 마지막으로 전시사업, 음악문화의 ‘생활문화사업’에 3천 5백만원이 편성되었다.

[표 27] 서천군 미디어문화센터의 2015년 주요사업 내용

목표	구분	내용	비고
소통 활성화 (소통 활동 촉진/ 소통역량 습득 및 강화)	라디오 네트워킹	- 지역 자원 간 라디오 교육 및 제작단 구성	- 계층별 사업(청소년/여성/노인 대상)
	미디어 교육	- 협력기관, 단체 진행 위주에서 과감히 탈피 - 적극적인 홍보 모집 및 선택과 집중에 의한 공격적 마케팅 추진	- 자유학기제 연계 체험 프로그램: 영상, 음성, 텍스트, 사진 포함(지역순화경제센터 등 다양한 주체들과 매칭)
	창작지원 및 커뮤 나티 지원	- 시설 지원 사업 -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 - 커뮤니티 활성화(영화커뮤니티)	- 청소년 제작 활성화 지원 발굴·홍보/영화를 중심으로 하는 커뮤니티 형성(2016년 목표: 여성, 청소년 중심)/지역주민의 참여 촉진을 위한 권한 부여
문화향유 권 확대	문화시설 운영	- 전시회 상설화	- 공간 업그레이드 등 추진 - 자유학기제 및 관광객 유입을 위한 전시 프로그램 개발
	생활 문화 사업	- 문화카페 운영	- 영화 사업, 마을 기업 등의 사업과 연계 모색
		- 영화사업: 다양성 및 문화적 향유권 강화 사업/ 찾아오는 영화관, 찾아가는 영화관(기벌포 영화관 등과 연계 추진) - 작은영화제: 지역민과 함께 만드는 소규모 영화제 운영	- 기벌포영화관의 어린이 동반자 대기 영화 상영, 어른 동반자 어린이 위탁 영화 상영 사업 등 고려
		- 음악문화사업(별악프로젝트)	- 2015년 별악프로젝트의 성과를 이어 나가는 사업 기획 및 운영
R&D	연구	- 서천군미디어문화모델 개발(작은 영화관 융합형 미디어센터 모델-운영 위주로)	-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모법인과 연계해 연구

	출판	- 교재 출판 - 연구보고서 발간	- 모법인의 연구팀과 함께 수행
미디어문화 거버넌스 강화	계간지	- 4회의 소통 계간지 발간	- 계간지 발행비 분담을 통해 내실화 추진
	자문 위원회	- 미디어 및 영화 전문가·지역전문 가, 계층·연령별 지역민으로 구성 된 자문위 운영	
	마을 미디어 대회	- 전국마을미디어대회(가칭) 제1회 개최	-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 방송통신위원회

자료 : 서천군 미디어문화센터 2016년 운영계획안, p. 17.



자료 : 서천군 미디어문화센터 2016년 운영계획안
(그림 30) 서천군 미디어문화센터의 교육현장

② 천안시 영상미디어센터 ‘비채’

천안시 영상미디어센터는 ‘천안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 제3조의 2’에 근거하여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인원은 총 5명(사무국장 1, 연구원 4)이다. 2008년 9월에 개관하여 2010년 7월에 제1회 천안여성영화제가 개최되었고,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문화콘텐츠창작센터가 구축되었다. 향후 2016년 3월 5기 운영위원회 구성원(9명)이 위촉되었고, 이듬해 7월에 영화진흥위원회의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에 천안시 영상미디어센터가 선정되면서, 11월에 독립영화전용관 ‘인디플러스천안’을 4층에 개관하였다.

[표 28] 천안시 영상미디어센터 주요사업

기능별	사업 내용
제작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비대여 사업, 디지털 자료변환 사업 운영 ◦ 제작지원 프로그램 운영 ◦ 영상제작 동아리, 대학생 연합 상영회, 비채영상제작공작소 운영 ◦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대외협력 업무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미디어 제작관련 유·무료교육 운영 ◦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영상교육 운영 ◦ 청소년 영상교육 관련 국비사업 유치 및 운영, 공간 대여사업
상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안여성영화제 기획 및 운영 ◦ 정기 및 공동체 상영사업 기획 및 운영, 특별전 개최 및 아카이브 구축·관리 ◦ 찾아가는 상영 프로그램 운영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채 대내·외 홍보운영
마을미디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운영 ◦ 천안영상대전 개최
경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위원회 개최계획 수립 및 진행 ◦ 예산·운영 계획 수립 및 집행, 세무감사, 도/시 행정사무감사 수감 ◦ 센터 자체 수입관리 및 각종 세금신고 ◦ 시설 유지보수 관리
독립영화전용관 (인디플러스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219일 이상 독립영화 유, 무료 상영 ◦ 정기 및 기획 상영 운영

자료 : (재)충남문화산업진흥원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 업무보고, p.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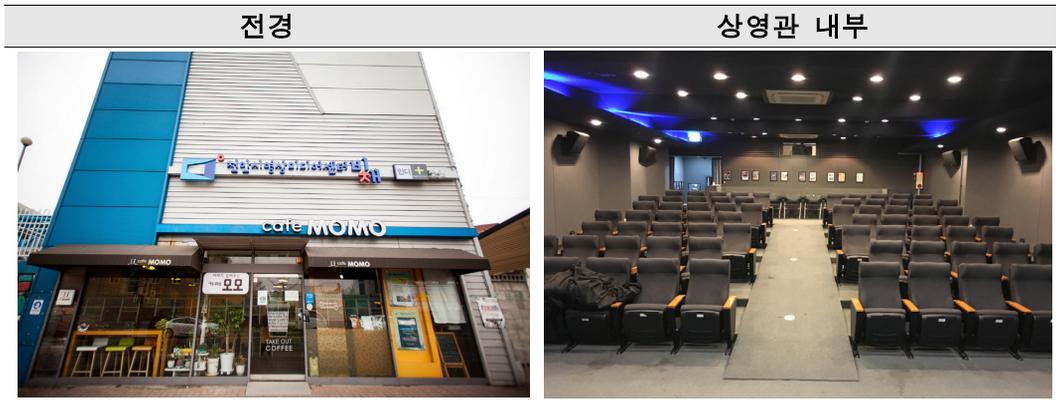
천안시 영상미디어센터의 주요 업무로 비채랑 정기·나눔상영회, 기획 상영회, 영화 감상 동아리 운영 등의 ‘상영문화사업’, 매체별 영상제작교육, 공동체(자유학기제)교육 등의 ‘미디어 교육사업’, 장비·시설·컨설팅 지원 및 영상동아리, 대학생 연합상영회 운영의 ‘제작지원사업’, 자료·디지털 자료 변환의 ‘아카이브’, 교육실·상영관 등의 ‘대관대여사업’, 우리동네이야기·천안영상대전의 ‘마을미디어’, 특화사업의 ‘천안여성영화제’가 있다.

[표 29] 천안시 영상미디어센터의 2013~2015년도 운영현황

구 분	2013		2014		2015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상영문화사업	153	5,692	214	9,901	167	6,955	
미디어교육사업	385	5,994	436	4,842	371	37,66	
제작지원사업	21	92	15	125	44	144	
아카이브	15	15	86	18	37	14	
대관 대여	공간	419	3,767	507	5,691	625	6,616
	장비	174	174	157	157	110	110
특화사업	22	1,856	22	2,678	32	2,317	
계	1,189	17,590	1,437	23,412	1,386	19,922	

자료 : (재)충남문화산업진흥원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 업무보고, p. 4.

주 : 제작지원사업은 비채대학생연합상영, 영상제작공작소, 네이밍공모전의 프로그램 부분임



자료 : blog.daum.net/e-chungnam/4074, 인디플러스천안.kr
 (그림 31) 천안시 영상미디어센터의 전경 및 상영관

[표 30] 천안시 영상미디어센터의 주요시설

층별	면적 m ²	시 설 내 용
1층	241.10	창의공방(87.65), 상상공방(29.58), 홍보전시(28.81), 나눔카페(44.27)
2층	299.25	운영사무실(55.0), 맥편집교육실(58.9), 아카이브실(20.8)
3층	268.45	오디오투디오(25.9), 편집실 I (23.0), 편집실 II (58.3), 대여실(19.6)
4층	268.45	[인디플러스천안]상영관(146.5, 70석)
5층	86.09	자재창고, 옥상정원
계	1,163.34	

자료 : (재)충남문화산업진흥원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 업무보고, p. 1.

독립영화전용관 ‘인디플러스천안’은 국내외 장·단편 독립영화의 정기상영 및 영화제 연계, 기획전 상영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6년 8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2천 4백 6십만원(국비 1천 4백 6십만원, 시비 1천만원)의 사업비로 운영될 것이며, 5년간 총 7천 3백만원(1천 4백 6십만원/1년)의 국비 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인디플러스천안은 2016년 11월 25일에 개관하면서 국내외 독립영화 및 영화제 연계 작품을 상영하며, 총 75석(일반석 70, 장애인석 5)의 좌석수와 일반인에게 6천원, 그 외 4천원의 이용요금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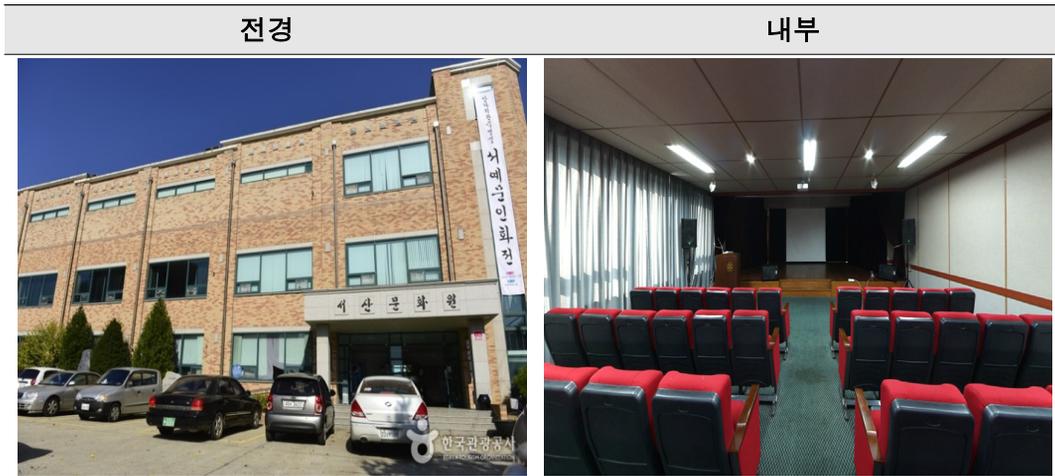
[표 31] 인디플러스천안의 이용요금

구분	일반	할인				
	성인	노인 (65세 이상)	청소년 (9세~24세)	장애인	비채 회원 (일반회원 이상)	단체 (20인 이상)
이용요금(원)	6,000	4,000				

③ 서산시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서산시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인구 증가에 따라 지역민의 문화욕구 상승 및 문화 향유를 위한 문화시설 확충의 필요로 건립되면서, 지역 영상문화와 영상산업 발전기반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6년 서산시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25억원(국비 12억 5천만원, 시비 12억 5천만원)의 건립비로 운영되었고, 주요시설은 교육 공간·동아리방·제작 공간·자료관·주민 공간·상용 공간 등이 있으며, 직접 운영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서산시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서산문화원을 리모델링해 활용하면서 시립도서관, 공원 등 주변 문화시설과 연계하여 문화원의 활성화를 구축할 예정이다.



자료 : terms.naver.com/entry.nhn?docId=3336859&cid=42856&categoryId=42856, www.cnkccf.or.kr/seosan.do
 [그림 32] 서산문화원의 전경 및 내부

[표 32] 서산시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분기별 자금 투자 계획

분기별	투입 예상액	비고
2016. 1분기	15,700	건물정밀안전진단용역
2016. 2분기	18,000	시설, 장비 구축 및 사업 운영 컨설팅
2016. 3분기	140,000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016. 4분기	2,326,300	건물보수보강 및 영상미디어센터건립(리모델링 공사) 추진
계	2,500,000	

자료 : 충남도청 내부자료

(3) 작은영화관 및 멀티플렉스²⁷⁾

① 작은영화관

작은영화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극장이 없는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전국 동시 개봉하는

27) 작은영화관은 2개관 규모의 상설 상영관을 의미하며 멀티플렉스는 두 개 이상, 여러 개의 스크린을 갖추고 있는 복합 상영관을 의미한다.

최신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정책적으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50석 내외 2개관 규모)의 상설 상영관을 의미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년 지방특별회계 포괄보조금사업 가이드라인’에서 작은영화관 걸립지원의 사업 목적을 “극장부재 기초지자체에서 최신 영화를 볼 수 있는 상설 상영관을 걸립, 지역주민의 영화문화 향유권을 강화하고, 지역 간 문화격차의 해소”로 명명하였다.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방특별교부세로 작은영화관 설립을 지원하면서 2016년 총 23개의 작은영화관이 설립되었고, 충남에는 서천 기벌포영화관이 관악FM에 위탁 운영되고 있다(영화진흥위원회, 2016b; 홍교훈 외, 2016).

작은영화관에서는 지역 간 개봉 시기 차이 없이 같은 영화를 볼 수 있도록 개봉영화를 상시 상영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작은영화관 기획전’은 2015년 총 예산 6억 3천 8백만원으로 총 15개의 작은영화관에서 개최되었다. 기획전은 지원 예산을 통해 운영되면서, 상영 영화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잠재 관객을 확보할 수 있다.

충남에서는 서천군 기벌포 영화관이 2015년 기획전에 참여하였으며, 전체 관객 수의 1.74%인 503명이 방문했고 아직 별도의 교육과정은 개설되지 않았다. 작은영화관의 각 운영주체는 관람료·매점 수익·광고수익 등으로 작은영화관 운영 재원을 확보하고 있기에, 서천군 기벌포 영화관 및 향후 건립 중인 충남의 작은영화관(청양·태안·금산·예산)은 신규 관객 확보를 위한 영화관과 상영작 홍보, 마케팅 전략의 개발과 고정관객층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표 33] 2015년 작은영화관 기획전 운영 현황

No	지역	극장명	개최 횟수	관객수(명)	교육		좌석 점유율(%)
					교육 수	참가자수(명)	
1	강원 홍천군	홍천시네마	3	3,039	6	169	84
2	전북 고창군	고창군 동리시네마	3	2,910	6	129	79
3	전북 완주군	완주군 완주휴시네마	3	2,853	2	99	78
4	전북 김제시	김제시 지평선시네마	3	2,553	2	130	76
5	전북 부안군	부안군 마실영화관	3	2,482	4	128	68
6	전북 장수군	장수군 동리시네마	3	2,421	6	173	67
7	인천 강화군	강화군 강화작은영화관	3	2,285	2	138	61
8	전북 임실군	임실군 작은별영화관	3	2,218	5	150	59
9	전북 무주군	무주군 산골영화관	3	1,552	4	95	43
10	강원 화천군	화천군 산천어시네마	3	1,546	2	64	36
11	강원 영월군	영월군 영월시네마	2	1,364	1	9	57
12	전북 진안군	진안군 마이골영화관	2	1,272	1	12	64
13	전남 장흥군	장흥군 정남진시네마	2	1,272	2	118	63
14	경북 울주군	울주군 울주알프스시네마	1	559	1	60	30
15	충남 서천군	서천군 기벌포영화관	1	503	-	-	43
계			38	28,829	43	1,474	62

자료 : 영화진흥위원회(2016a), 『지자체별 영상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p. 73.

서천군 기벌포 영화관은 2014년 5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서천군미디어문화센터 내를 증축 및 일부 리모델링하였고, 2016년 1월에 정식 개관하면서 총 7,310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다. 금산군 작은영화관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1,000백만원의 예산으로 신규 건립 중이며, 향후 사회적 기업에 위탁 운영될 예정이다. 예산군 작은영화관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1,000백만원의 예산으로 신규 건립중이며, 2016년을 기준으로 지방비 확보·대상지 선정·기본(실시) 설계·건축 공사·기자재 구입 등이 진행되었으며, 운영기관은 미정이다. 태안군 작은영화관은 총 1,680백만원의 예산으로 2017년 7월 신규 건립이 완료되어, 향후 위탁 운영할 예정이다. 2016년 8월말 청양군 인구(32,726명) 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문화 공간 추가조성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2017년 청양군 문화체육센터 3층을 리모델링하고 있다. 청양군 작은영화관은 향후 사회적협동조합 위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기존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건전한 여가 공간 조성으로 주민의 문화생활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표로 하고 있다.

(표 34) 충남의 작은영화관 현황

구분	센터명	위치	건립비(백만원)	사업규모
운영중	서천기벌포 영화관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 137-1번지 일원(구)장항역사 인근	2,000 (국비 700, 도비 310, 군비 990)	상영관 2개관(255m ²), 휴게공간(84m ²)
건립중	금산군 작은영화관	금산읍 비단로 91일원	1,000 (국비 500, 도비 150, 사비 350)	상영관 2개관(301m ²), 휴게공간(172m ²)
	예산군 작은영화관	예산군 예산읍 대회리 233-4 일원	1,000 (국비 500, 도비 150, 군비 350)	상영관 2개관(99석), 매점, 로비 등
	태안군 작은영화관	태안군 태안읍 백화로 192	1,680 (국비 500, 도비 150, 군비 1,030)	상영관 2개관(210m ²), 휴게공간(67m ²)
	청양군 작은영화관	청양군 청양읍 칠산로 221 (청양군 문화체육센터 3층)	1,000 (국비 500, 도비 150, 군비 350)	영화관 실면적(368m ²)

자료 : 충남도청 내부자료



자료 : 충남도청 내부자료

(그림 33) 서천군 기벌포영화관과 청양군 작은영화관 전경

② 멀티플렉스

2016년 전체 영화산업 매출은 2조 2,730억 원으로 2015년 대비 7.6% 증가하여, 3년 연속 2조 원대를 이어갔으며, 연간 평균 관람횟수는 4.20회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2016년 극장 개봉한 한국영화 302편 중, 투자 수익성 분석의 조사 대상이 되는 상업영화 82편의 평균 투자수익성은 8.8%를 기록했다. 이 중 고예산, 광역개봉 영화는 높은 수익성을 보인 반면, 중·저예산 영화의 제작편수와 수익률은 낮아져 중·저예산 영화 제작·유통의 어려움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영화진흥위원회, 2017).

전국 17개 광역단체별 연간 극장 관객 수를 살펴보면, 서울지역 관객 수가 전국 관객 수의 27.0%인 5,858만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경기도가 4,970만 명, 부산이 1,646만 명을 차지했고, 충남은 전국 관객 수의 3.2%인 693만 명으로 중하위권을 차지했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충남은 관객 수, 매출 등을 비교했을 때 11위로 꼽혔다(영화진흥위원회, 2016b).

(표 35) 2016년 전국 지역별 관객 수, 매출액, 1인당 관람횟수

광역시도	관객 수(명)	관객 점유율(%)	극장 매출(원)	매출 점유율(%)	평균 관람료(원)	인구 수(명)	1인 관람 횟수(회)
서울	58,576,722	27.0	490,442,587,726	28.1	8,373	9,930,616	5.90
경기	49,701,296	22.9	402,263,728,896	23.1	8,094	12,716,780	3.91
부산	16,460,012	7.6	131,664,156,874	7.6	7,999	3,498,529	4.70
대구	11,959,500	5.5	96,536,233,450	5.5	8,072	2,484,557	4.81
경남	11,168,010	5.1	86,384,950,496	5.0	7,735	3,373,871	3.31
인천	10,905,633	5.0	87,514,372,649	5.0	8,025	2,943,069	3.71
광주	7,940,539	3.7	59,940,246,850	3.4	7,549	1,469,214	5.40
대전	7,653,164	3.5	61,623,580,099	3.5	8,052	1,514,370	5.05
전북	6,713,481	3.1	50,865,467,880	2.9	7,577	1,864,791	3.60
경북	6,360,820	2.9	49,647,676,400	2.8	7,805	2,700,398	2.36
충남	6,927,338	3.2	53,344,519,400	3.1	7,701	2,096,727	3.30
충북	5,657,374	2.6	43,429,575,750	2.5	7,677	1,591,625	3.55
강원	5,049,287	2.3	39,542,718,300	2.3	7,831	1,550,806	3.26
울산	4,704,634	2.2	37,938,094,000	2.2	8,064	1,172,304	4.01
전남	4,143,826	1.9	28,602,387,500	1.6	6,902	1,903,914	2.18
제주	2,226,882	1.0	16,666,667,800	1.0	7,484	641,597	3.47
세종	875,837	0.4	6,776,160,900	0.4	7,737	243,048	3.60
합계	217,024,355	100.0	1,743,183,124,970	100.0	8,032	51,696,216	4.20

자료 : 영화진흥위원회(2016), 2016 한국영화산업결산, p. 7.

주: 1) 인구수는 2016년 12월 31일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기준

2) 광역시도 순서는 2016년 전국 지역별 각 항목 규모 순위에 따라 작성되었음

2016년도를 기준으로 전국의 극장은 총 29개가 증가하여 417개이며, 이 중 작은영화관은 7개이다. 증가한 작은영화관은 강원도 철원의 ‘철원 작은영화관 뚜루’, 강원도 삼척의 ‘가람 영화관’, 충북 영동군의 ‘레인보우 영화관’, 충남 서천의 ‘기벌포 영화관’, 경북 영양군의 ‘영양 작은영화관’, 경남 김해군의 ‘보물섬시네마’, 전남 고흥군의 ‘고흥 작은영화관’이다. 충남의 영화관은 2016년도에 2개 극장이 증가하여 총 18개 극장이 있으며, 이중 멀티플렉스²⁸⁾는 11개로 약 61.1%를 차지한다. 주요 멀티플렉스 체인은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를 의미하고, 3대 체인극장을 제외한 전국 멀티플렉스 극장은 5개가 있으며, 천안의 ‘야우리멀티플렉스’를 포함한다(영화진흥위원회, 2016b). 또한 천안시의 경우 스크린은 41개, 좌석은 5,951개(인구 94명당 1좌석), 논산은 181명당 1좌석, 홍성은 51명당 1좌석 등을 보유하고 있다.

[표 36] 충남의 극장 현황

구분	시군명	영화관명	총스크린수	총좌석수	개관일	대입운영여부
멀티플렉스	공주	메가박스 공주	7	802	2005-01-28	위탁
	당진	CGV 당진	7	1,075	2014-12-06	위탁
	보령	메가박스 보령	5	751	2015-09-25	위탁
	서산	CGV 서산	8	820	2015-07-29	위탁
		롯데시네마 서산	7	945	2011-04-25	위탁
	아산	롯데시네마 아산터미널	6	1,020	2014-01-24	직영
	천안	CGV 천안	8	1,118	2007-03-31	직영
		메가박스 천안	9	1,306	2005-07-28	직영
		CGV 천안팬타포트	11	1,398	2013-03-01	직영
		야우리시네마	10	1,809	2001-09-21	-
홍성	CGV 홍성	4	568	2011-12-22	직영	
그 외	논산	논산시네마5	5	616	2003-09-10	-
	당진	조이앤시네마 당진	1	106	2015-01-01	-
		당진아트시네마	1	153	2016-09-08	-
	부여	금성시네마	2	175	2009-02-10	-
	서천	서천군 기벌포영화관	2	154	2016-01-08	-
	천안	인디플러스 천안	1	75	2016-11-18	-
		천안낭만극장	1	170	2016-12-10	-

28) 영화진흥위원회는 전국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의 직영 및 위탁 경영 지점과 기타 7개관 이상 모든 극장을 멀티플렉스로 집계하고 있다.

(4) 기타 영상문화 관련 기관의 운영 현황 및 분석

① 영상문화 관련 지원 기관

영상문화 관련 지원 기관으로 영상위원회, 지역콘텐츠 산업진흥 관련 기관, 지역문화재단 혹은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충남에는 충남영상위원회,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 영상문화와 관련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영상위원회는 영상을 매개로 한 지역경제 발전 및 특성화(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운영, 독립영화제작지원, 영화캠프 등), 영화·방송물 로케이션 서비스 기관, 영화 중심으로 영화·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홍교훈 외, 2016). 충남영상위원회는 2015년 7월에 개관 하면서 2016년을 기준으로, 총 4억 5천 만 원의 예산으로 로케이션 인센티브, 팸투어, 영화·드라마 기획 및 개발지원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운영하였다.

[표 37] 영상위원회 현황

명칭	설립년도	관장 범위
부산영상위원회	1999. 12	부산(경남 일부)
전주영상위원회	2001. 04	전주, 전북
서울영상위원회	2001. 11	서울
전남영상위원회	2003. 04	전남
제주영상위원회	2003. 12	제주
대전영상위원회	2003. 12	대전
청풍영상위원회	2005. 04	제천(충북 일부)
경기영상위원회	2005. 07	경기
인천영상위원회	2006. 04	인천
충남영상위원회	2015. 07	충남

자료 : 영화진흥위원회(2016a), 『지자체별 영상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p. 74.

지역발전 5개년계획 지역행복생활권 추진 과제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에 따른 지역민의 콘텐츠 향유권에 대한 정책 수립이 강조되면서, 지역콘텐츠 산업 진흥 관련 기관에서 영상문화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홍교훈 외, 2016).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영상문화 관련 사업으로,

도시거점 문화플랫폼 구축, 창작·전시·공연 활동 지원, 인력양성을 통한 시민 문화예술 향유 환경 조성과 문화다양성을 위한 다양한 문화거점 공간조성, 소규모 장르지원 콘텐츠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충남 문화콘텐츠 아카데미(우수인력의 지역정착 유도 및 인력양성 인프라 확충, 스토리텔링 교육과정 운영 및 문화기획자 양성)와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자료 : 충남도청 내부자료

〔그림 34〕 천안영상미디어센터의 운영 체계도

② 영상문화 관련 시민활동

영상문화 관련 시민활동으로 작은영화제, 시민 영상문화 동호회, 대안상영공동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충남에서는 천안여성영화제, 작은영화제, 시민 영상문화 동호회와 관련된 활동 등이 진행되고 있다.

작은영화제는 시민들의 영상(영화) 창작 활동을 기반으로 미디어 센터, 지역 문화단체 등에서 소규모로 운영하는 영화제 등을 지칭하며, 지역 문화나 사회적 소외계층(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영상(영화)을 영하는 등 운영 목적과 주제가 여타 대규모 영화제와는 차별화를 보인다. 작은영화제는 시민 제작 영화영상의 상영 창구로 시민 영상문화 활성화에 있어 주요 요소 중 하나이지만, 운영 예산의 규모가 작아 전담 운영인력의 상시 고용이 어렵고, 지속적으로 영화제를 홍보하는 경우가 적어 운영 현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작은영화제는 시민사회운동 성장기인 1990년대 중후반기 부터 여성, 인권 등을 주제로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하여 각 지역에서 개최되기 시작했으며, 지역 영상문화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된 2010년대에 이르러 그 다양성이 강화되었다. 2015년 9월을 기준으로 전국 각 지역에 전 총 34개의 작은영화제가 운영되고 있으며, 충남에는 2009년부터 개최된 ‘천안여성영화제’가 있다(홍교훈 외, 2016).

영화제명	최초 개최시기	주최/운영	상영장소
천안여성영화제	2009년	천안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천안시영성미디어센터, 신세계백화점 (충청점문화홀), CGV천안



자료 : <http://www.bzer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7552>
 (그림 35) 2016 천안여성영화제의 포스터와 전경

현재 지역영상미디어센터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70개 이상의 영상문화동호회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의 활동 분야는 영상제작, 영화 읽기 및 감상으로 주도적인 영상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역자치단체, 지역영상위원회 등의 외부 지원을 활용하여 운영되고 있다(홍교훈 외, 2016). 현재 충남에는 천안여성미디어센터를 중심으로 비채사람들(영화감상 및 제작), 청소년(영화감상 및 제작), 미디어로그(영상제작) 등이 운영되고 있다.

③ 영상문화 관련 충남의 대학 현황

충남의 영상문화 관련 대학 현황은 14개 학과가 있으며, 영상과 관련된 이론 및 제작 등 다양한 과목들이 개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문화와 관련된 학과는 대개 문화·예술대학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만 융합기술대학의 멀티미디어공학과에서 디지털 미디어의 제작, 저장, 전송에 필요한 교과과정을 다루고 있었다. 또한 한국영상대학교는 영상문화와 관련된 학과가 3년제(10개과), 2년제(6개과), 학사학위(6개과)가 있으며, 영상문화와 관련된 인력이 가장 많이 양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충남에는 영상문화와 관련된 다수의 대학 인력이 양성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표 38) 충남지역 영상문화 관련 대학 현황(2017년 기준)

학교	학부	관련 과목	개설년도
공주대학교	영상학과	문화와영상, 영상콘텐츠기획 영상학 등	1993년
글로벌사이버대학교	방송연예학과	영상음악, 융합형 콘텐츠와 산업 등	
나사렛대학교	방송영상콘텐츠학과	영상편집실습, 광고영상디자인 등	2007년
남서울대학교	영상예술디자인학과	영상기획제작워크샵, 2D애니메이션실습 등	1998년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멀티미디어공학과	3D애니메이션및실습, 멀티미디어영상및사운드 등	2013년
백석대학교	디자인영상학부 영상애니메이션전공	3D애니메이션1, 디지털영화제작2 등	
상명대학교	공연영상 문화예술학부 영화영상전공	영화기술, 디지털영상기초 등	1995년
선문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영상제작의이해와실습, 영상의구성과편집 등	
순천향대학교	영화애니메이션학과 ²⁹⁾	영상예술입문, 영상촬영실습 등	2006년
청운대학교	방송영화영상학과	방송영상학개론, 영상문법테크닉 등	
한국폴리텍 IV 대학 아산캠퍼스	방송영상과	촬영기법이론, HD영상편집이론 등	
한서대학교	영화영상학과	영상무대론(캡스톤디자인), 광고영화제작 등	
호서대학교	영상미디어전공	영상 기술실습, 방송영상기획론 등	1998년
한국영상대학교	영상연출과, 영상촬영조명과 등	영상개론, 영상편집기초 등	2012년

④ 충남테크노파크

충남테크노파크는 지역내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기술의 공동개발과 사업화, 벤처기업의 창업과 중소기업의 경영지원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의거하여 1999년에 개원되었다. 특히 충남테크노파크는 혁신주체 네트워크에 의한 종합적인 기업지원체계 구축, 지역혁신 거점화를 통한 전략사업 및 특화산업 클러스터 육성, 혁신 기관으로서의 테크노파크 효율성 제고 등의 세 가지 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백운성, 2010).

29) 2017년을 기준으로 1학년은 공연영상학과와 디지털애니메이션학과로 분화되었고, 2학년 이상은 영화애니메이션학과로 되어 있다.

[표 39] 충남테크노파크 주요추진사업 및 성과(2010년 기준)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주요성과
정책기획단 (전략산업 기획단)	· 인프라구축사업	· 기반정비사업 · 특화센터신설	
	· 기술개발	· 선도기술, 전략기획, 혁신 자원형 및 단기상품형 기술 개발	
	· 기업지원서비스	· 기술, 마케팅 지원 · 지식서비스산업육성	
	· 인력양성	· 전문인력 양성	
영상미디어 센터	· 공용장비구축		· 36개 기업 유치
	·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 고용창출 350, 수출2억\$
디스플레이 센터	· 부품소재장비 개발지원		· 11개기업유치, 94개기업지원 · 지원건수 3,058건
자동차부품 센터	· 통합기술시스템 구축	· 장비 및 센터 건축	
기업연수원	· 전문인력양성사업	· 중소벤처 교육훈련사업 · 이공계미취업자 연수 · 인적자원 개발 · 산학연 연계정보화교육	· 73명 취업 · 297명 교육
기업지원단	· 기술혁신형 연구개발사업	· 대학보유 고가장비 활용 · 산학공동연구개발	· 특허출원·등록 559건 · 기술지도 5,203건 · 기술이전 466건 · 장비구축 505건
	· 글로벌마케팅 지원사업	· 해외시장개척지원 -전시회, 박람회, 상담회 등의 참가 및 개최	· 수출상담액 2,879만\$ · 샘플오더 65만\$ · 수출계약체결 452만\$
	· 신기술 보육사업	· 시제품개발지원	· 매출액 85,326백만원 · 고용창출 467명 · 특허/시제품개발 193건
	· 지역혁신 인력양성사업	· 우수 R&D개발과제 지원	· 고급인력양성 171명 · 고용창출 56명 · 특허/시제품 20건
	· 충남기술이전센터 운영	· 기술 발굴,평가,마케팅 · 알선협상 및 계약지원	· 거래건수 55건 · 거래금액 1,995백만원
	· 천안밸리 POST-BI운영	· 기반시설 조성	· 2개사 코스닥 상장 · 6개 기업 단지조성
	· 충남벤처투자조합 관리운영	· 벤처조합 결성	· 40개업체 250억 투자 · 상생투자펀드 2개조합
	· 충청권벤처프라자 개최	· 3개시도 벤처프라자 순회개 최	· 6년 동안 1,830건 상담
	· 창업동아리 경진대회	· 정보공유 및 교류의 장 마련	· 2개사 창업
	· 창업보육센터 지원 및 육성	· 공간,장비 및 경영서비스제공	· 310개 기업입주 · 58개 기업 졸업

자료 : 백운성(2010), 『충남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정책의 추진실태와 경쟁력 강화 방안』, p. 36~37.

⑤ 도서관

도서관은 자료를 수집·정리·분석하여 공중 또는 특정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 이용조사 연구·학습 교양 등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다. 특히 공공도서관은 정보와 문화센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를 주최하고, 기타 문화 활동 및 평생교육을 장려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도서관이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다양한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일회성 프로젝트 혹은 단기간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다(백령 외, 2013).

해외 공공도서관에서는 영화 상영이 매우 중요한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영화 상영을 통해 도서관 이용자들 간에 상호적 커뮤니티가 증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덴버 공공도서관은 1년에 약 20여 편의 영화를 선보이며, 5명의 직원과 사서로 구성된 위원회가 상영 프로그램을 결정한다. 또한 도서관 내의 다양한 클럽들, 지역의 극장과 인근 대학(덴버 공공도서관의 경우 콜로라도 대학) 등의 지역 조직과 파트너십을 형성하면서 작품 선택, 이후의 토론, 그리고 홍보에 있어서도 도움을 받는다. 이러한 관계는 지역 영화제와도 적극적으로 연계되고 있다(정인선, 2010).

현재 우리나라의 도서관은 복합문화공간으로, 그리고 문화, 정보, 교육의 장으로 변모하고 있지만, 대부분 도서관들의 영화 상영은 멀티플렉스에서 상영된 상업영화들이 선보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08년에 펴낸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모형 및 운영 매뉴얼’에서 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은 ‘①지역민의 문화예술 정보 요구를 충족, ②지역사회의 문화예술을 위한 공연 시설과 장소를 제공, ③지역사회의 기관과 단체 사이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 조정을 촉진, ④지역사회를 위해 문화활동센터의 네트워크를 제공, ⑤인문주의적 가치에 비추어 공공의 이슈를 사고하도록 하고 날마다 이러한 가치들을 우리 사회의 문화로 구축, ⑥문화예술 경험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문화적 이해 능력을 제공’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도서관들이 이용자의 수요가 많은 요가나 요리교실, 천연비누 만들기, 영어회화 교실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실제 상영할 때 독립영화나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예술영화는 편성하지 않는 실정이다.

충남의 도서관 현황을 살펴보면, 대도시인 천안시(7개)와 아산시(5개)와 농촌 지역의 금산군(4개)이 상대적으로 많은 도서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여군과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당진

시에선 설립주체가 지자체인 도서관이 1개씩 존재하고 있다([표 40], [표 41] 참조). 현재 충남의 도서관에서 운영되는 영상문화 관련 프로그램 현황 조사는 파악하기 어려우며, 영상 프로그램 인력을 전문적으로 배치할 만큼 도서관에서의 영화 상영이 활발하지 않고, 상영 시설도 열악한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충남의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영상문화 관련 프로그램 조사를 통해 도서관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40] 시·군별 도서관(교육청 주체) 현황(2015. 1. 1. 기준)

구분	지역	도서관명	시설 규모 (m^2 , 명)			도서 자료	직원 수 (현원)		예산 (천원)	이용자수 (명)
			부지	건물	열람 석		총	사서		
교육청 (19)	천안시	충청남도평생교육원	26,770	12,282	1,433	150,714	26	8	3,049,790	626,870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	14,006	3,421	521	127,477	33	5	2,632,695	323,500
		천안성환도서관	4,147	1,346	307	87,786	5	2	787,474	129,324
	공주시	공주유구도서관	1,259	965	102	69,794	5	2	239,729	57,906
		공주도서관	1,618	1,069	164	103,669	5	2	423,757	119,336
	보령시	보령웅천도서관	3,096	1,013	200	73,765	5	2	444,339	25,265
		보령도서관	2,341	1,663	300	100,835	4	2	464,238	243,204
	아산시	아산도서관	2,170	1,919	150	107,459	6	4	507,649	230,149
	서산시	서산해미도서관	3,145	1,175	120	84,625	5	2	214,746	115,233
		충남서부평생학습관	6,804	2,443	540	160,449	21	6	2,058,711	525,751
	논산시	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	12,361	4,878	455	118,989	20	8	2,119,800	800,372
	당진시	당진도서관	3,625	2,067	295	91,770	5	2	737,565	101,680
	금산군	금산도서관	1,718	1,169	303	107,765	5	2	517,008	106,001
	부여군	부여도서관	4,073	986	339	106,077	5	3	248,339	142,516
	서천군	서천도서관	2,109	916	61	77,749	5	2	449,344	150,298
	청양군	청양도서관	2,408	1,601	235	77,543	5	3	442,020	131,723
	홍성군	홍성도서관	4,173	2,596	569	88,307	6	3	564,349	248,284
	예산군	예산도서관	2,066	1,309	313	90,405	5	2	426,812	142,755
	태안군	태안도서관	3,901	1,601	400	103,341	5	2	449,161	146,144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5a), 2015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2015년 기준)

[표 41] 시·군별 도서관(지자체 주체) 현황(2015. 1. 1. 기준)

구분	지역	도서관명	시설 규모 (m^2 , 명)			도서 자료	직원 수 (현원)		예산 (천원)	이용자수 (명)
			부지	건물	열람 석		총	사서		
지 자 체 (38)	계룡시	계룡도서관	2,823	2,740	224	62,211	6	2	237,684	85,000
		엄사도서관	1,802	1,197	75	48,971	4	1	233,343	67,973
	공주시	시립도서관강북관	6,345	2,285	210	111,057	6	2	732,663	228,206
		시립도서관웅진관	7,600	2,815	126	144,228	10	5	1,027,233	209,139
	금산군	추부도서관	2,041	564	100	27,021	3	1	190,260	59,649
		진산도서관	897	698	100	18,428	3	2	117,208	53,521
		금산인삼교육도서관	394	1,566	250	56,322	4	1	370,000	108,569
	논산시	금산기적의도서관	1,717	529	100	2,959	2	2	202,827	67,842
		논산연무도서관	2,911	1,511	204	71,403	3	1	264,933	75,852
		논산강경도서관	1,962	1,447	235	74,055	3	1	229,545	62,851
	당진시	당진시립합덕도서관	2,421	987	200	46,288	1		171,250	67,549
		당진시립송악도서관	1,346	869	226	46,319	1	1	179,000	61,259
	보령시	보령주산도서관	3,355	933	100	36,737	1		4,000	8,369
		보령공공도서관	1,390	1,255	292	101,619	6	2	555,054	90,808
	부여군	홍산공공도서관	3,450	931	211	4,184			166,446	7,300
	서산시	서산시대산도서관	5,865	875	147	87,210	4	1	457,058	60,455
		서산시립도서관	10,357	2,585	383	228,758	10	7	649,996	379,141
		서산어린이도서관	24,618	1,211	245	20,100	3	3	141,455	69,695
	서천군	서천청룡공공도서관	826	1,084	90	66,935	4	3	212,600	49,378
	아산시	아산시립둔포도서관	1,157	1,015	89	89,683	2	1	455,640	142,853
		// 남산도서관	7,806	971	194	46,916	2		435,248	212,908
		// 송곡도서관	1,771	1,881	137	141,691	13	6	1,272,696	256,005
		// 배방도서관	1,492	1,491	336	92,076	1	1	591,816	214,399
		// 여원도서관	377	377	50	73,589	2	1	546,424	310,223
	예산군	예산삼교도서관	2,083	772	132	66,099	2	1	171,553	13,712
		예산군립도서관	89,192	1,283	240	38,727	4	2	377,500	65,025
	천안시	천안시중앙도서관	3,727	4,824	418	199,383	17	8	1,037,776	268,450
		// 신방분관	12,253	5,391	644	54,346	7	3	328,468	574,776
		// 아우내분관	10,495	4,456	447	53,042	4	1	163,360	58,724
		// 도솔분관	1,088	1,088	390	70,904	4	2	294,485	371,664
		// 성거분관	2,745	1,576	390	90,955	5	3	474,122	96,282
		// 쌍용분관	5,631	4,792	734	141,972	12	4	1,009,187	650,650
		// 두정분관	16,325	6,662	672	96,436	6	4	2,418,555	751,625
	청양군	정산도서관	6,212	1,762	191	23,244	1	1	92,579	20,107
	태안군	태안안면도서관	1,573	578	90	46,948	3	1	130,742	13,347
		태안군립중앙도서관	3,946	2,773	106	24,138	6	2	484,273	28,535
	홍성군	광천공공도서관	1,386	1,078	132	82,389	2	1	367,605	33,691
	당진시	당진시립중앙도서관	12,931	4,485	700	73,235	10	4	367,694	314,223
총합		57개소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5a), 2015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2015년 기준)

3. 충남 영상문화 관련 기관의 심층면담 분석

1) 조사 분석의 개요

충남 영상문화의 인프라 운영 현황(SWOT분석) 및 지역영상미디어센터와 작은영화관 운영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충남 영상문화 관련 기관 관계자(지역영상미디어센터, 작은영화관,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충남영상위원회 등), 관련 학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담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심층면담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 자문회의 일정은 2017년 2월 20일부터 8월 2일까지 총 10회 진행하였다.

[표 42] 심층면담(공식면담)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 관련 개요

구분	대상	날짜
심층면담 (공식면담)	서천미디어문화센터 팀장	2017년 3월 22일
	서천 기벌포영화관 팀장	2017년 3월 22일
	천안영상미디어센터 사무국장	2017년 4월 24일
	충남영상위원회 연구원	2017년 5월 8일(서면)
포커스 그룹 인터뷰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연구원 2인, 본부장 1인	2017년 5월 15일
자문회의	영상문화 관련 전문가(박사 2인, 순천향대 영화애 니메이션학과 교수 1인)	2017년 2월 20일, 2017년 3월 15일 2017년 5월 19일, 2017년 7월 10일 2017년 8월 2일

심층면담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절차는 참여자에게 협조공문과 반구조화된 질문 자료를 사전에 전달하였다. 또한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취 후 전사 작업을 진행하였고, 참여자에게 다시 확인하여 수정된 결과로 보완하였다. 관련 질문 문항의 구성은 다음 [표 43]과 같다. 자문회의는 연구 설계 단계, 충남 영상문화의 현황 파악, 향후 발전 방향 모색, 과제 도출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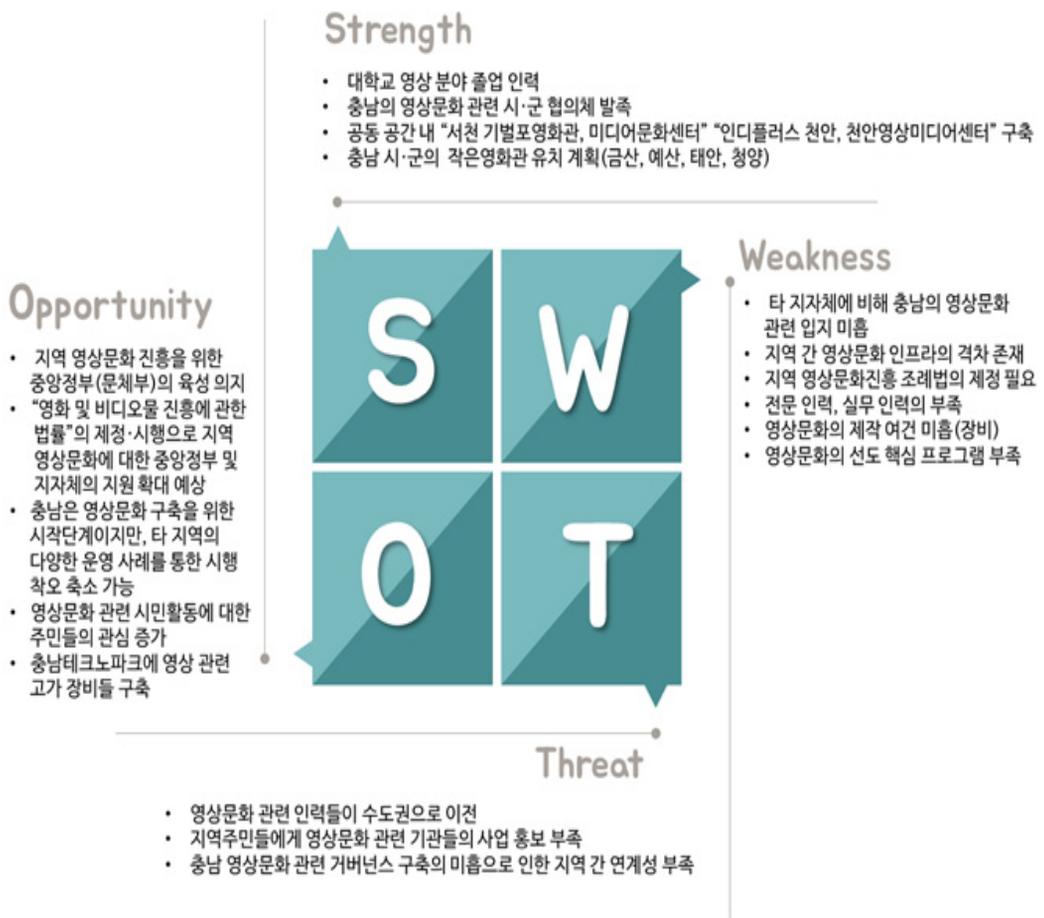
[표 43] 심층면담(공식면담)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내용

구분	유형	세부 내용
심층면담 (공식면담)	충남 영상문화의 현황 (SWOT분석)	충남 영상문화의 전반적 여건 및 현황, 중요한 이슈 도출 기관 소개 및 대표 사업 소개, 운영 목표, 운영 현황 및 여건, 예산구조, 프로그램 기획-운영 절차, 대상, 운영시 어려운 점, 협력(거버넌스) 현황
	발전방향 모색	지역영상미디어센터와 작은영화관의 활성화 방안 도출, 도·시·군의 역할, 향후 진행되어야 할 거버넌스 구조, 바라는 점
	개인적 특성	이름, 성별, 직위, 관련 경력사항

2) 조사 분석의 결과

(1) 충남 영상문화의 SWOT 분석

충남 영상문화의 현황은 아직 시작 단계로 볼 수 있으며, 관련 관계자의 심층면담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도출한 충남 영상문화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요인들을 분석하면 [그림 36]과 같다.



[그림 36] 충남 영상문화의 SWOT 분석

충남 영상문화의 강점 요인은 기반시설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측면을 꼽을 수 있다. 현재 건립되어 있는 시설 중 ‘서천미디어문화센터, 기벌포 영화관’, ‘천안영상미디어센터, 인디플러스 천안’이 한 공간에 조성되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또 다른 충남 영상문화의 강점 요인으로 영화·영상분야 전공의 졸업 인력들을 꼽을 수 있다. 2017년 충남의 영상문화 관련 시·군 협의체가 발족되어, 도와 시·군이 영상문화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충남 영상문화의 강점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충남 여건에 맞는 영상문화의 사업 발굴 및 지역 간 연계 프로그램의 기획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심층면담 : Strength 강점 요인

“충남에는 영화·영상과 관련된 많은 학과들이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꼽고 싶습니다. 학생들에게 인력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자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면 우리 기관에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천의 기벌포영화관·미디어문화센터, 천안의 인디플러스 천안·영상미디어센터의 시설이 함께 있는 부분이 강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의 여건도 꽤 좋다고 생각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좀 더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영상장비들에 대한 보완도 필요합니다.”

“현재 충남에는 서천의 작은영화관 개관 이후 금산, 예산, 태안, 청양에서도 작은 영화관의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협의체가 발족되었고, 현재는 타 지역보다 많은 의지를 가진 부분이 강점으로 생각합니다.”

충남 영상문화의 약점 요인은 타 지자체에 비해 관련 기반시설이 늦게 구축되어 있는 부분으로, 각 시·군간 영상문화 인프라의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충남은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및 영상산업·문화시설(작은영화관,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상 관련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았기에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충남의 영상인프라 조사, 종합발전계획 수립 등이 진행되어야 타 지자체와 차별화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충남 영상문화의 기반시설을 운영하기 어려운 점으로 ‘전문 인력, 실무 인력의 부족’과 ‘영상 장비 부족·노후화에 따른 보완 및 정비’ 등을 꼽았으며,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영상문화 관련 다양한 장비와 전문 인력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심층면담: Weakness 약점 요인

“충남은 아직 타 지자체에 비해 영상문화 관련 기반시설도 늦게 만들어졌고, 영상위원회도 최근에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와 시·군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충남 영상문화의 입지를 다지는데 어려울 것입니다.”

“영상문화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실무인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충남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영상 관련 제작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맞닿아서 같이 제작하는 과정을 진행하기에는, 장비부터, 인력까지 제작 프로그램을 구성하기에 너무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영상문화 관련 인력풀, 즉 강사를 포함하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보조로 도와줄 수 있는 인력들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영상문화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해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사업을 진행하기에 벅찬 부분이 많습니다.”

충남 영상문화의 기회 요인은 영상문화 관련 중앙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확대와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꼽을 수 있다. 2016년 8월에 개정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에서는 영상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향후 정부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 영상문화 진흥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개정된 영비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영상문화의 진흥을 포함하고 영화진흥기본계획 시행계획에 지역 영상문화 증진이 포함되도록 함(제1조 및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영상문화 증진을 위하여 영화 제작을 직접 하는 지역 주민이나 지역 영화 관련 단체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 38조 제2항 신설)’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영상문화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영상문화의 저변 확대를 예상할 수 있다. 충남의 주민들 또한 영상문화 향유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기에, 향후 영상문화 관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충남테크노파크에는 영상 관련 고가의 장비들이 구축되어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영상문화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활용되지 못하고 있기에 향후 활성화 방안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심층면담 : Opportunity 기회 요인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영상문화 향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역영상문화진흥을 위해 앞으로 어떤 방안들을 모색해야 할지 지자체와 같이 고민하고 노력할 생각입니다.”

“충남이 전국에서 영상문화에 대한 관심이 가장 늦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른 지역에서 성공하고, 실패했던 다양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서천의 기벌포영화관은 상영사업과 기획전 외에 영화 감상 동아리가 있습니다. 공고를 작년에 내면서 지원자가 33명이 모였습니다. 감상 동아리여서 주제에 맞는 영화를 선정하여 4~5편을 관람하고, 감상평을 나누면서 모의 평가한 후 다음 주제를 결정합니다. 이처럼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시민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산업 부분으로 말씀드리면 천안에는 테크노파크가 있고, 여기에는 고가 장비가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잘 활용되고 있지 않는데, 좀 더 활성화된다면 충남의 중요한 기회 요인이 될 것입니다.”

충남 영상문화의 위협 요인은 영상문화 관련 거버넌스 구축의 미흡으로 인한 지역 간 연계성 부족을 꼽을 수 있다. 영상문화의 다양한 기반시설 및 지원기간 간 협력 체계 구축은 영상문화가 활성화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충남은 ‘서천미디어문화센터, 기벌포 영화관’, ‘천안영상미디어센터, 인디플러스 천안’이 공동 공간 내에 존재하지만, 각 기관 간에 영상문화 관련 연계된 프로그램은 아직 거의 없는 상황이다. 또한 타 지자체의 작은영화관에서 수익 배분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향후 충남의 작은영화관 예산 구조에서도 일부 수익은 운영주탁기관 및 운영기관으로 적립되어 영상 노후장비 교체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주민이 영상문화의 중요한 주체로 떠오르고 있지만, 기관들의 홍보가 자체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시·군과 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홍보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심층면담 : Threat 위협 요인

“서천 기벌포영화관의 관객 수가 7만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타 지역보다 빠른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충성 고객이 있어야 작은 영화관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위협이 되는 요인은 관객 저변을 위한 타 기관과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의 작은영화관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사업은 많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작은영화관 매니저들과 만났을 때,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부분이 음이 아닌 리 단위의 사람들이 이곳에 영화를 보러올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교통편, 셔틀버스 운영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동의했습니다.”

“충남에는 영상문화와 관련된 대학교 졸업 인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충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한 메리트를 주지 못하면 모두 서울로 인력이 빠져나갈 것입니다.”

“천안영상미디어센터의 연간 방문객이 1만 8천 명 정도이며, 재방문율도 높습니다. 이제 만들어진지 10년 정도가 되어 가고,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아직 천안 지역 사람들 중에 우리 기관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3) 분석 종합 및 시사점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리 보장, 지역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의 대안으로 설립된 작은영화관과 지역영상미디어센터가 중요하게 주목받고 있다. 특히 영화관객이 1억 명을 돌파하면서 영화(영상) 관람은 보편적인 문화 활동으로 정착되었으나, 수도권에 집중된 영화상영 시설과 영화상영관이 없는 기초자치단체가 약 109여개에 이르면서 문화 소외지역에서 작은영화관과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역할이 중요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2013).

특히 충남에서도 영상문화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작은영화관과 지역영상미디어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문화향유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충남에는 세 군데의 영상미디어센터(서산시, 서천군, 천안시)가 건립되었거나 혹은 건립 중이며, 극장 부재 기초지차에서 최신 영화를 볼 수 있는 상설 상영관으로 건립 된 작은영화관은 서천기벌포 영화관을 시작으로, 현재 금산군·예산군·태안군·청양군에도 건립 중이다.

충남 영상문화의 강점으로, 하드웨어 측면인 ‘서천 기벌포 영화관, 미디어문화센터’, ‘인디플러스 천안, 천안영상미디어센터’의 공동 공간 내 구축 및 향후에도 ‘작은 영화관’ 건립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측면인 ‘영상문화 관련 대학교 졸업 인력’, ‘충남 영상문화의 시·군 협의체 발족’ 등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충남 영상문화 관련 약점으로 아직 타지자체에 비해 충남 영상문화는 시작 단계이며, 시·군 간 영상문화 인프라의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영상문화의 ‘전문 인력과 선도 핵심 프로그램 부족’, ‘지역 영상문화 진흥 조례법’의 부재도 약점으로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충남 영상문화의 기회 요인으로 ‘중앙정부의 영상문화 진흥 방안 육성 의지’, ‘주민들의 관심 증가’, ‘충남테크노파크의 영상 고가 장비들 구축’ 등이 있으며, 위협 요인으로 ‘영상문화 관련 인력들이 수도권 이전’, ‘충남 영상문화 인프라의 연계성 부족’ 등을 꼽을 수 있다.

현재 영상문화와 관련된 문화정책 방향별 주요과제로 문화일자리 창출,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지역의 영상작장 활성화 등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충남의 영상문화 SWOT 여건을 바탕으로, 향후 영상생태계 조성할 수 있는 활성화 과제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으로, ‘지역의 창작 기회 활성화’, ‘지역 주민 참여형’, ‘전문 인력의 양성’, ‘대표 프로그램의 발굴’과 지역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영상문화 기반시설 간 연계’,

‘충남 영상문화진흥 조례의 제정’, ‘지자체 추진체계의 개선’ 등을 충남 영상문화의 활성화 과제로 도출하였다.

4. 소결 및 활성화 과제도출

(1) 지역의 영상문화 창작 기회 활성화

중앙정부에서는 영상문화의 정책 방향으로 ‘지속가능한 영상문화의 지역 생태계 조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의 영상생태계의 조성은 ‘창작-투자-배급-관객-창작의 확대 및 분화·고도화·관객층 확장 및 다양화’의 과정이 선순환 되는 것을 의미한다. 생태계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것을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들이 연계망 속에서 작동하여 일정 수준의 자립성을 갖추고 순환되는 체계를 일컫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충남 영상문화의 향유를 위한 지역 내 창작 기회 제공 및 유통과 배급 방안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2)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영상문화 프로그램의 활성화

2016년에 개정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지역 영상문화 증진 및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충남 여건에 맞춰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영상문화 프로그램들이 확대되어야 하며, 충남의 특성을 담고 있는 영상문화 프로그램이 발굴되어야 충남 영상문화의 지속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3) 지역 내 영상문화 전문 인력, 실무 인력의 육성과 활용

충남 영상문화 기반시설의 관계자가 꼽은 운영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전문 인력, 실무 인력의 부족이었다. 충남에는 영화·영상 관련 다수의 대학교가 있기에, 인력들이 수도권으로 이전하지 않고 충남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영상에 관심이 있는 지역 주민의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전문가로 양성할 수 있는 과정도 필요할 것이다.

(4) 영상문화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발굴 및 홍보

해외에서는 도서관을 활용한 영상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에, 충남에서도 기존 도서관을 활용한 영상교육 프로그램의 발굴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위협 요인으로 꼽힌 ‘지역주민들에게 영상문화 관련 기관들의 사업 홍보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군과 도 차원에서의 홍보 방안도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5) 영상문화 기반시설의 연계 방안 모색

타 지자체에 비해 충남의 영상문화 관련 기반시설과 입지가 미흡한 상황이기에 충남 영상문화 관련 기관들 간에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연계 방안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영상미디어센터와 작은영화관을 중심으로 충남 영상문화 관련 타 기관들과의 유기적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내 영화·영상 대학교(인력)와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6) 영상문화 관련 조례의 제정

타 지자체에서는 문화콘텐츠 조례 및 영상 조례에서 영상문화의 범주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충남에서는 문화콘텐츠 및 영상문화진흥 조례가 모두 없는 상태이기에, 상위법의 제정 방향에 따라 영상문화의 관련 내용을 포괄하는 조례의 제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향후 충남의 영상 관련 인프라 조사, 종합발전계획 수립 등을 통해 충남 영상문화의 역량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7) 지자체 추진체계의 개선

현재 지자체에서는 영상문화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시·군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는 향후 영상문화 관련 기관들이 재정자립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영상문화 예산 확보 방안, 작은영화관의 예산 구조 변화, 기획전 및 순회상영회 개최 등)을 모색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제4장 충남 영상문화의 활성화 방안

1. 접근 틀과 기본방향

1) 접근 틀과 기본방향

충남 영상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접근 틀은 아래 [표 44]와 같으며, 도출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방향은 ‘지역 내 영상문화 창작기회 제공’, ‘영상문화 관련 시민 활동의 활성화’, ‘영상문화 전문 인력, 실무 인력의 육성과 활용’, ‘영상문화 관련 교육과정의 개발 및 홍보’, ‘영상문화 기반 시설 간 연계 구축’, ‘충남 영상문화진흥 조례의 제정’, ‘조직과 시책강화 및 추진체계의 개선’ 등으로 제시하였다.

[표 44] 접근 틀과 기본방향

충남 영상문화의 활성화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영상문화 창작기회 활성화 -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영상문화 프로그램의 활성화 - 지역 내 영상문화 전문 인력, 실무 인력의 육성과 활용 - 영상문화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발굴 및 홍보 - 영상문화 기반시설의 연계 방안 모색 - 영상문화 관련 조례의 제정 - 지자체 추진체계의 개선 	
기본방향	지역 내 영상문화 창작기회 제공
	영상문화 관련 시민 활동의 활성화
	영상문화 전문 인력, 실무 인력의 육성과 활용
	영상문화 관련 교육과정의 개발 및 홍보
	영상문화 기반시설 간 연계 구축
	충남 영상문화진흥 조례의 제정
	조직과 시책강화 및 추진체계의 개선

2) 추진전략

앞에서 제시한 충남 영상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① 지역의 영상문화 창작 기회 제공을 위한 창작 활동, 유통과 배급, ②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영상문화 시민 활동 지원과 우수 공모 사업 및 국내 영화제 참여기회 제공, ③ 충남형 시민영화프로그램어 양성과 충남 내 영상문화 관련 일자리 창출, ④ 도서관 영상교육 프로그램의 발굴 및 영상나눔버스 시네놀이를 통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⑤ 작은영화관, 영상미디어센터, 영상위원회 등의 공동협력사업 발굴 및 운영, ⑥ 충남 영상문화진흥을 위한 조례의 제정 및 영상문화 관련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⑦ 충남 영상문화의 자립형 시책 발굴 및 사업의 추진 등 이다.

(표 45) 기본방향별 추진전략

기본방향	추진전략
지역 내 영상문화 창작기회 제공	- 지역의 영상문화 창작 기회 제공을 위한 창작 활동, 유통과 배급
영상문화 관련 시민 활동의 활성화	-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영상문화 시민 활동 지원과 우수 공모 사업 및 국내 영화제 참여기회 제공
영상문화 전문 인력, 실무 인력의 육성과 활용	- 충남형 시민영화프로그램어 양성과 충남 내 영상문화 관련 일자리 창출
영상문화 관련 교육과정의 개발 및 홍보	- 도서관 영상교육 프로그램의 발굴 및 영상나눔버스 시네놀이를 통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영상문화 기반시설 간 연계 구축	- 작은영화관, 영상미디어센터, 영상위원회 등의 공동협력 사업 발굴 및 운영
충남 영상문화진흥 조례의 제정	- 충남 영상문화진흥을 위한 조례의 제정 및 영상문화 관련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조직과 시책강화 및 추진체계의 개선	- 충남 영상문화의 자립형 시책 발굴 및 사업의 추진

2. 충남 영상문화의 활성화 전략과 추진방안

1) 지역 내 영상문화 창작기회 제공

(1) 지역의 영상문화 창작 기회 제공을 위한 창작 활동

① 여건과 사례

현재 충남은 지역에서 배출된 영상문화 관련 창작자(전문가/활동가)가 지역 내의 다른 영상문화 활동들과 함께 도모하여 지역의 관객들과 소통함으로써 일정 수준의 ‘창작-유통-관객’의 영상생태계 순환 구조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충남의 약점 요인으로 꼽힌 영상문화의 제작 여건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충남 영상문화 기반시설의 관계자와 인터뷰에서는 영상물 제작에 필요한 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제작에 필요한 대부분의 전문 인력(촬영, 녹음, 편집 등)들이 부재함에 따라 영상물 제작과정을 개설하기가 어려운 부분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특히 한국영화진흥총합계획(2016~2018)을 살펴보면, 미래 전략과 10대 중점 과제 중 하나인 ‘창작 역량을 높여 산업의 역동성 강화’의 세부내용에서 ‘나의 이야기가 우리의 영화가 되도록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내의 지역 영상문화 창작 사례로 은평구민 영화제작 프로젝트 ‘거침없이 영화 만들기’를 꼽을 수 있다. 2016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진행된 사례로, 배우와 스텝을 공개 모집하여 영화제작에 필요한 조명, 이론, 촬영, 렌즈 등을 배우면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고, 직접 영화 제작에 참여하는 프로젝트이다.

현재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 충남 문화콘텐츠 아카데미(우수인력의 지역 정착 유도 및 인력양성 인프라 확충 등)를 천안영상미디어센터와 함께 운영하고 있고, 충남영상위원회에서는 영화 제작 시 장소를 제공하는 ‘로케이션 제작지원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향후 충남에서도 우수인력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누구나 주체가 되어 참여할 수 있는 영상창작 기회를 제공하는 추진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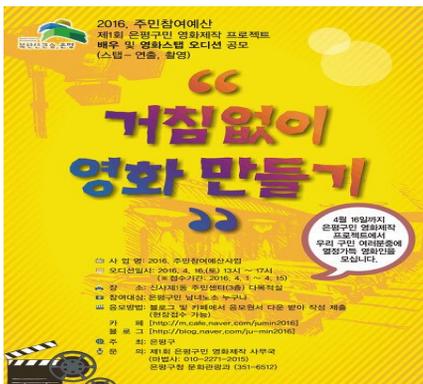
② 추진방향

충남의 영상미디어센터 및 영상위원회에서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바탕으로 영상을 창작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해야 할 것이며, 지역 창작자들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제작에 임할 수 있는 제작비의 마련, 적절한 장비 및 시설 확보 등에 대한 도의 지원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③ 사업내용

충남 내 영상문화 창작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충남의 각 시·군 영상미디어센터, 작은영화관, 영상문화 관련 기관에서 진행되는 창작프로그램에 대한 조사 및 종합분석을 통한 지역주민 주도형 영상문화 창작 프로그램을 발굴해야 한다. 추진해야할 세부사업은 다음과 같다.

- 지역주민 주도형 영상문화 창작 프로그램 발굴
- 창작여건 강화를 위한 영상문화 기반시설 간 워크숍 개최
- 충남 내 영상문화 창작 사업 발굴과 시책추진



자료 : <http://imnews546.tistory.com/1129>

[그림 37] 은평구민 영화제작 프로젝트 '거침없이 영화 만들기' 사례

④ 사업추진방안

충남에서의 영상문화 창작과정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보다는 국내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시범적으로 운영을 추진한다. 충남영상위원회와 영상미디어센터의 기존 사업을 중심으로, 영상 창작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특히 전문 인력의 창작과정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할 수 있는 창작과정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지역의 영상문화 창작 기회 제공을 위한 유통과 배급

① 여건과 사례

현재 충남은 불완전한 지역생태계 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원활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공적 차원에서 교육, 제작 및 유통의 지원과 관련된 사업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충남에는 영상문화 관련 활동가 및 지역주민이 영상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 생산된 영상 콘텐츠를 소비할 지역 관객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지역 내 영상콘텐츠를 지역 관객이 향유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며, 이는 충남의 작은영화관 및 독립영화관과 같은 공적 유통망 등을 통해 형성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된 국내의 사례로 대구 독립영화전용관 오오극장을 꼽을 수 있다. 본 사례는 지역에 설립된 최초의 독립영화전용관으로 깊은 의미가 있지만, 다양한 영화 취향과 관람형태를 존중하고, 관객이 직접 참여하는 영화관을 지향하는 커뮤니티 시네마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대구 독립영화전용관 오오극장에서 주목할 점은 독립 영화의 지역 상영을 넘어 지역에서의 영화제작-배급-상영의 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는 점이다. 지역 내에서 만들어진 장편 영화들이 상영 기회를 갖기 어렵기 때문에 영화의 제작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 있다. 따라서 지역 내에 영화를 상영할 공간이 생긴다면, 영화의 제작 및 배급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설립 당초 지역 독립 영화 상영 비율을 연 중 30%로 하겠다는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충남에서도 지역 내 영상문화의 창작콘텐츠를 지역 관객에게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 유통 및 배급망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② 추진방향

현재 전국적으로 건립되고 있는 작은영화관은 소외된 지역 주민들에게 영상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다양성이라는 차원에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따라서 충남의 작은영화관(독립영화관)에서도 상업영화 이외에 지역 내 영상콘텐츠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③ 사업내용

충남의 지역관광객 창출 및 영상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충남형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사업 추진과 충남 공공상영관의 사업 모델 구축이 추진되어야 한다. 추진해야할 세부사업은 다음과 같다.

- 충남형 커뮤니티 시네마 구축을 위한 작은영화관(독립영화관) 육성과 사업추진
- 충남의 작은영화관(독립영화관) 내 독립영화·예술영화 관람 전용관 설치 및 운영
- 충남 공공상영관(도서관 내 소극장, 구민회관 등)의 사업모델 구축



자료 : <http://blog.naver.com/pnnews/220931577010>

(그림 38) 대구 독립영화전용관 오오극장의 프로그램 및 대구독립단편 '나만없는집' 스틸컷

④ 사업추진방안

충남에는 인디플러스 천안(독립영화전용관)과 서천 기벌포영화관 외에 4개의 작은영화관(금산, 예산, 태안, 청양)이 건립 중인데, 영화관 공간 내에 독립영화, 예술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전용관을 설치하여 지역에서 창작된 영화들이 지역 관객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영상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상영관'도 중요한 충남형 사업 모델이 될 수 있는데, 도서관 내 소극장, 구민회관, 기타 유휴 공공시설 등에서 지역 내 제작된 영상 콘텐츠를 유통 및 배급하는 사업들을 추진해야 한다.

2) 영상문화 관련 시민 활동의 활성화

(1)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영상문화 시민 활동 지원

① 여건과 사례

영상문화의 중요한 주체로 점차 시민의 성장이 이루어졌고, 현재 영상문화 활동은 지역주민이 영상문화 생산자로서 활동하는 관객운동으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영상제작교육을 통해 지역주민의 자기표현 능력이 향상되고, 지역 영상제작인력이 양성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작은영화제를 지역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함으로써 영상문화 생산자로 성장하고 있다 (홍교훈 외, 2016).

국내의 선행 사례로 '2017 충남의 영상 문화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세미나'에서 발제한 전북 주민시네마 스쿨을 꼽을 수 있고, 본 사례는 9개 시·군의 작은영화관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영상제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6년에는 14개 시·군의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2014년 총 예산이 180백만 원(도비 72백만 원, 시·군비 108백만 원 중 장비구입비 13백만 원, 교육사업비 17백만 원)이었고, 2015년에는 전북에서 시·군으로 예산을 전달하여 각 시·군에서 주민시네마스쿨의 예산을 집행하였는데, 2016년에는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전북에서 시·군의 예산을 받아 총괄 집행하였다. 본 사례는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직접 참여하여 영상문화 활동을 운영하고, 동시에 작은영화관 활성화와 공공성 보장을 위한 지역 관련 주체 간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전북의 주민시네마 스쿨은 '보는 영화'에서 '참여하는 영화'로 영상문화 영역이 확대된 사례로, 작은영화관과 연계한 지역주민들의 영상문화 향유권 향상 프로그램이다. 작은영화관이 단순히 영화(특히 상업영화)를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공간이 아닌, 주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커뮤니티 공간화를 지향하고, 2013년 작은영화관 활성화를 위해 전북도, 전주 영상위원회, 전북 독립영화협회, 전주시민미디어센터가 함께 논의하여 영상제작교육, 단편 영화제작, 작은영화제 등의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이와 같이 충남의 영상문화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참여가 자율적이면서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며, 작은영화관은 공공성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② 추진방향

지역주민이 영상문화 관련 기반시설에서 영상을 접하고, 영상문화를 경험한 지역주민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참여할 수 있는 영상문화 활동의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이는 지역주민 주도형 영상문화 시민활동이 대안이 될 수 있다.

③ 사업내용

충남에서는 영상문화를 향유한 지역주민들이 자체적인 활동할 수 있는 동아리 사업과 주민 주도형 시네마스쿨을 운영하고, 장비구입비·교육 사업비의 지원뿐만 아니라 향후 교육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는 UCC 경진대회 및 작은영화관 순회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된 세부사업은 다음과 같다.

- 충남 특성에 맞는 주민주도형 시네마스쿨 운영
- 충남 영상문화의 시민 동아리 활동 사업 발굴 및 운영
- UCC 경진대회 및 작은영화관 순회를 통한 교육결과물 공유



자료 : <http://blog.naver.com/jbgokr/220232216221>

(그림 39) 전북의 주민시네마스쿨 사례

④ 사업추진방안

전북은 지역발전특별사업으로 시·군의 주민시네마스쿨 사업을 확보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충남에서는 각 시·군의 예산을 매칭하여 주민시네마스쿨 사업 재원을 다양화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

(2) 영상문화 시민 제작 활동의 우수 공모 사업 및 국내영화제 참여기회 제공

① 여건과 사례

영국에서는 거의 63,000여개의 동아리 활동을 통해 약 1,000만 명이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자발적 문화예술 활동이 해당 지역과 공동체는 물론 국가차원의 사회적 자본을 형성한다는 확신 아래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비영리 영상제작과 지역주민의 자발적 영상문화 활동을 창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 공유되고 있다.

해외 사례인 일본의 나라시 나라국제영화제는 지역의 영화제가 어떻게 지역주민들에게 영상문화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나라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상 제작 워크샵에는 가와세 나옴이(河瀨直美) 감독이 직접 강사로 아이들을 지도하여, 영상물을 창작하는 과정의 기회를 제공한다.

영화관이 하나도 없는 지자체에서 인터넷서널 레벨의 영화제가 어떻게 성립 가능하며, 이것이 지역민들의 영상문화에 어떠한 방식으로 기여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일본의 지역 문화정책을 설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정부 지원에도, 지자체 지원에도 의존하지 않는, 시민들의 손에 의한 ‘지속 가능한 영화제의 성립’이 중요한 키워드로 꼽을 수 있다.** 2007년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기도 했던 가와세 나옴이(河瀨直美)은 나라시에 국제영화제를 만들어 세계의 영화인들을 초청하고 싶다는 오랜 숙원을 2010년 나라현의 지원을 받아 실현하게 되었다.

지역주민이 영상창작 활동에 참여하여 만족스러울 경우, 향후 영상문화 관련 활동에 지속성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영상문화 시민 제작 활동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동기를 부여하고, 지역주민에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우수모델 사업의 추진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추진방향

충남의 도, 시·군에서 우수한 영상창작물에 대한 공모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국내 영화제에 출품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자생력 있는 충남형 영상문화 창작활동의 우수모델 사업 추진을 통해 충남 영상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③ 사업내용

영상문화 창작 활동에 참여한 지역주민들에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수 창작물에 대한 시상 및 국내영화제에 참가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들이 추진되어야 한다. 추진해야 할 세부사업은 다음과 같다.

- 영상문화 시민 제작 활동의 우수 공모 지원 사업
- 우수 영상문화 동아리 제작 활동의 국내영화제 참가 지원
- 천안여성영화제와 함께하는 영상문화 동아리 활동 지원



자료 : 충남의 영상 문화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세미나 자료(2017. 6. 23)

(그림 40) 나라국제영화제의 영상문화교육 사례

④ 사업추진방안

충남 영상문화 시민 제작 활동의 창작품을 다양한 현장에서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국내 영화제에서 충남 시민들의 창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경우, 영상문화 동아리 활동의 참여자들에게 만족감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3) 영상문화 전문 인력, 실무 인력의 육성과 활용

(1) 충남형 시민영화프로그램 양성

① 여건과 사례

지역 창작자들이 꾸준히 배출될 수 있는 교육 현장(특기적성, 방과후 활동 등)에서의 적절한 교육과정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지역 영상미디어센터를 통한 다양한 전문가 양성과정과 지역 내 영화·영상 전공 학생들의 제작 능력 제고를 위한 재교육 과정도 진행되어야 한다.

국내의 선행 사례로 ‘2017 충남의 영상 문화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세미나’에서 발제한 전주 시미디어센터의 시민영화프로그램 교육 과정을 꼽을 수 있다. 영화프로그램란 영화제의 방향을 정하고 개성과 색깔을 담아내는 이들을 의미한다. 현재 단순히 영화를 보는 시민에서 영화제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시민으로 양성하여, 함께 영화제를 만들어가는 사업들이 전국적으로 추진 중이다. 특히 전주국제영화제 수상작과 상영작을 다시 볼 수 있는 ‘폴링 인 전주’는 전주국제 영화제 상영작품 중 일부를 가을에 재상영하는 대표 프로그램이다.

전주시민미디어센터의 시민영화프로그램 과정은 관객으로서 주어진 대로 영화를 보는 수동적인 영화제가 아니라 내가 사는 동네에서 이웃과 함께 스스로 즐기고 나누는 시민들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의 영화제를 상상해보는 프로그램이다. 본 과정은 시민영화프로그램의 역할을 이해하고 어떻게 영화제를 기획·운영하는지 배우는 입문과정(5차시)과 전주국제영화제 ‘폴링 인 전주-시민참여섹션’을 직접 진행하는 멘토링과정(10차시)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충남에서도 영상미디어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을 영상문화의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며, 이후 교육을 이수한 시민프로그램이 천안여성영화제에서 실제로 기획 섹션을 구성하는 방안들이 추진되어야 한다.

② 추진방향

영상문화 향유를 경험한 충남의 도민들이 영상문화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중 하나는 영화제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특히 충남의 도민이 시민 영화프로그램으로 성장하여, 향후 영화제의 주제와 콘셉트를 정하고, 상영될 영화가 선정되는 과정에 함께 참여할 경우 지역 영상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사업내용

충남에서 도민이 영상문화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시민영화프로그램의 양성과정을 개설하고, 향후 영화제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충남 내 영화·영상 전공의 전문 인력들을 위한 재교육 과정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된 세부사업은 다음과 같다.

- 충남의 시민영화프로그램 양성과정 개설
- 시민 영화프로그램 창작 활동 지원 및 천안여성영화제 프로그램의 운영 참여
- 충남 내 영화·영상 관련 대학교 전문 인력 재교육 지원



자료 : <http://blog.naver.com/suwonloves/220446136914>

[그림 41] 수원의 시민영화프로그램 사례

④ 사업추진방안

충남형 시민영화프로그램의 양성과정을 천안시 영상미디어센터 비채를 중심으로, ‘시민영화제작워크숍, 시나리오, 촬영, 편집’ 등 영화영상제작 전반에 걸쳐 영상문화에 대해 경험할 수 있는 기초 입문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특히 천안시 영상미디어센터 비채의 대표 운영 사업으로 천안여성영화제의 기획 및 운영을 꼽을 수 있는데, 충남의 시민영화프로그램 양성과정을 이수한 충남 도민이 천안여성영화제의 기획 섹션에 참여하고, 향후 영화제가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충청도 내 영화·영상 관련 대학교의 전문 인력이 충남의 영상문화 기반시설 현장에서 활동하기 위한 재교육 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2) 충남 내 영상문화 관련 일자리 창출

① 여건과 사례

영상문화와 관련된 일자리는 지역 영상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충남의 영상생태계는 미약하고, 영상문화의 다양한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이다. 영상 관련 활동을 통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현실이 영상 창작자(전문가/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는 충남의 영화·영상 전공 인력들이 지역을 떠나 수도권으로 향하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 특히 충남의 영상문화 관련 기반시설 관계자가 꼽은 운영 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전문 인력과 실무 인력의 부재로 꼽았다.

현재 소규모 영화 상영회와 공동체 상영을 위한 ‘영화·커뮤니티’ 매칭 플랫폼인 팝업시네마를 운영 중인 ‘협동조합 모두를 위한 극장’은 영화를 즐기는 청년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의 영상미디어센터와 협력하여 시민 프로그래머를 양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모두를 위한 극장 공정영화 협동조합은 대자본에 기회를 잃은 많은 영화와 지역사회 및 시민들의 다양성과 문화예술의 향유권을 회복하고 영화인과 관객 모두에게 창작과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설립한 협동조합의 형태이다. 또한 공동체상영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상영과 소규모 영화제를 쉽게 기획할 수 있는 플랫폼인 ‘팝업시네마(Pop-up Cinema)’를 기획하였으며, 팝업시네마는 독립영화와 관객을 직접 매칭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충남에서도 문화향유권과 문화다양성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다양한 비극장 공간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Pop-up Cinema(공동체상영)’를 구축하고, 충남 내 영화·영상 전공 인력들의 충남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야 한다.

② 추진방향

충남 내 영상문화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영상문화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조합원을 구성하여, 충남의 영상미디어센터와 연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일정한 범위의 영상문화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공적 영역(지자체·공공기관)에서의 정책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③ 사업내용

충남형 영상문화 관련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소규모 영화 상영회와 공동체 상영을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충남 내 영화·영상 관련 대학생과 영상문화 전문가가 함께 멘티·멘토로 참여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한다. 추진해야할 세부사업은 다음과 같다.

- 충남형 영상문화 관련 협동조합 구성 및 모두를 위한 극장 사업 추진 및 운영
- 충남 내 영화·영상 관련 대학교와 충남 영상문화 기반시설 간 인턴십 과정 개설
- 충남 내 영화·영상 전공 대학생과 영상문화 전문가 멘토링 사업 운영



자료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18/2017071802126.html

http://edu.donga.com/?p=article&ps=view&at_no=20170822163841590718

[그림 42] CJ오쇼핑 멘토링 사업(좌) 및 춘천교대 멘토·멘티형 교육 프로그램 사례(우)

④ 사업추진방안

충남 내 영상문화 관련 일자리 창출은 특히 졸업 후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타 지자체에서 자발적으로 구성된 청년조합원의 공동체상영을 위한 ‘협동조합 모두를 위한 극장’은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따라서 충남의 영화·영상 전공 대학생

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비극장 공간인 교육시설, 공공시설 등의 유희시설을 대상으로 영화 상영회를 개최하는 사업들을 추진한다. 또한 충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상문화 전문가들과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여, 향후 충남 영상문화 기반시설의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들을 추진한다.

4) 영상문화 관련 교육과정의 개발 및 홍보

(1) 도서관 영상교육 프로그램의 발굴

① 여건과 사례

도서관은 자료를 수집·정리·분석하여 제공함으로써 방문객들이 정보를 이용하는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공공도서관은 정보와 다양한 교육활동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도서관에서의 교육은 일회성 프로젝트 혹은 단기간 교육으로 운영되고 있지만(백령 외, 2013), 해외 공공도서관에서는 영화 상영을 통한 문화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영화 상영을 통해 도서관 이용자들 간에 상호적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정인선, 2010).

미국 플로리다 윈터파크 공공도서관은 매달 두 번째, 세 번째 금요일 오후 5시에 문을 닫고, 오후 6시 30분에 ‘커뮤니티 룸’이 있는 1층 현관문을 열고 ‘밤 고객’을 맞을 준비를 한다. 18세 젊은이부터 노인들까지, 다양한 이들이 자리를 잡고 영화를 볼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들은 밤 9시까지 영화를 보고, 자리를 옮겨 밤늦게까지 영화에 대한 토론을 한다. 이는 윈터파크 공공도서관의 씨네매직(CineMagic) 프로그램이다.

미국 공공도서관에서의 문화프로그램으로서 영화 상영은 매우 중요한 서비스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충남에서도 도민들의 영상문화에 대한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을 활용한 영상교육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② 추진방향

충남에는 천안시(7개)와 아산시(5개), 농촌 지역의 금산군(4개)에 상대적으로 많은 도서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부여군·서천군·청양군·홍성군·당진시에는 설립주체가 지자체인 도서관들이 존재한다(정지은, 2016). 이처럼 충남의 주요 문화기반시설로 57개소의 공공도서관을 보유하고 있기에, 향후 각 시·군에서는 도서관을 활용한 영상교육 프로그램 및 영상상영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사업내용

충남 각 시·군의 도서관을 이제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그리고 문화, 정보, 교육의 장으로 기능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세부사업은 다음과 같다.

- 도서관 내 시네마테크, 아카이브 구축
- 독립영화 상영 및 지역 상영 공간으로의 도서관 영상 프로그램 발굴
- 충남 내 영화·영상 관련 대학교의 영상전문가 육성



자료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108_0010401025&cID=10201&pID=10200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31610485626472>
(그림 43) 독립영화공공상영회(좌) 및 서울시내 도서관 내 독립영화 상영(우)

④ 사업추진방안

충남이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영화상영 및 영상교육을 실시하기 보다는 국내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시네마테크 혹은 아카이브를 도서관 내에 병설하고 있으며, 후쿠오카시의 종합도서관은 아시아영화와 일본 영화의 수집과 보존 기능을 하는 필름 아카이브가 병설되어 있다. 또한 충남의 영화·영상 관련 대학교에서는 도서관에서의 지속적인 상영 활동을 담당할 영상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을 개설해야 한다. 이들이 도서관에 파견되어 프로그램의 기획뿐만 아니라 영화 상영의 운영 등 전반적인 부분을 담당하면서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역주민에게 직접 찾아가는 영상문화 서비스 프로그램의 강화

① 여건과 사례

현재 교육부터 문화, 취업과 복지까지 각종 공공서비스가 주민들을 찾아가는 서비스들이 주목받고 있으며,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의 지원으로 문화소외지역 해소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향유를 구현하고 있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특히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영상나눔버스 시네놀이’는 영상 제작 관련 교육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버스를 개조해 영화 기자재 등을 싣고 문화소외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영상문화 놀이와 체험을 제공하는 이동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시네놀이는 ‘시네마(Cinema)’와 ‘놀이’의 합성어로, 부천문화재단은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주도로 2017년 5월 12일 부천 덕산초등학교 대장 분교에서 ‘영상나눔버스 시네놀이’를 진행했다. 부천 오정구에 위치한 덕산초 대장분교의 전교생은 10명으로 부천시 총 인구 87만 명과 비교해 ‘도심 속 작은 학교’로 볼 수 있다. 덕산초 대장분교 재학생들은 스톱모션의 원리를 이용해 간단한 만화영화를 제작해보는 등 영화 제작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영화진흥위원회 주관 사업으로, 2016년 부천시민미디어센터에서 공모해 2017년 프로그램 운영 기관에 선정됐다³⁰⁾.

30)일요신문 보도자료(2017.5.12). 부천문화재단 ‘영상나눔버스 시네놀이 진행’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247420에서 2017.7.10. 인출

따라서 충남에서도 도민에게 직접 찾아가는 영상문화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일환으로 충남의 영상미디어센터를 중심으로 ‘영상나눔버스 시네놀이’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② 추진방향

충남의 영상미디어센터는 현재 ‘천안시 영상미디어센터 비채’와 ‘서천군 미디어문화센터 소풍+’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8년 2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서산영상미디어센터가 있다. 특히 ‘영상나눔버스 시네놀이’는 전국의 영상문화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초·중학교 및 분교, 지역 아동센터, 경로당, 마을회관, 지역미디어센터 및 연계 단체 등 영상문화 교육을 추진하고자 하는 단체가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서천군의 미디어문화센터 소풍+의 주요 고객층인 노년층을 중심으로 하는 ‘영상나눔버스 시네놀이’의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사업내용

지역주민에게 직접 찾아가는 영상문화 서비스 프로그램의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문화소외지역의 지역별·대상별 특성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주민수요에 적합한 영상문화의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한다.

- 영상미디어센터의 영상나눔버스 시네놀이 운영 : 체험프로그램, 심화프로그램
- 영상미디어센터의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 확대



자료 : <http://blog.naver.com/mybcf/221004105226>

(그림 44) 부천시민미디어센터의 영상나눔버스 시네놀이 사례

④ 사업추진방안

‘영상나눔버스 시네놀이’는 전국의 영상문화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예비 선정되고, 향후 세부 프로그램 및 일정들을 조율하여 최종 선정되며,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된다. 또한 체험 프로그램은 1회차(4시간 내외, 15명)로, 스마트 미디어를 활용한 영상문화 놀이·체험 중심으로 진행되며, 기존 운영지역 중 우수 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심화프로그램 5회차(15시간 내외, 15명)로, 스마트 미디어를 활용한 영화·영상 기획, 제작, 편집, 시사까지 이루어진다. 따라서 ‘서천군 미디어문화센터 소풍+’을 중심으로 ‘영상나눔버스 시네놀이’의 체험 및 심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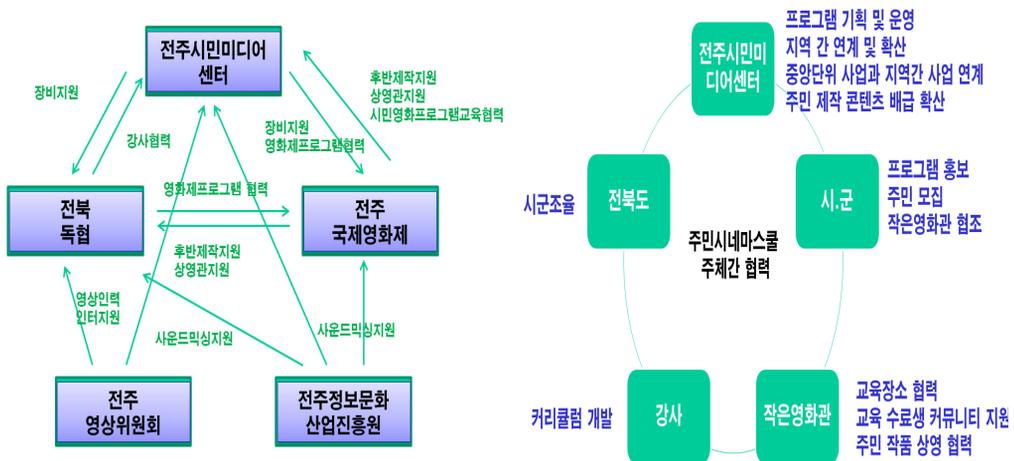
5) 영상문화 기반시설 간 연계 구축

(1) 충남의 영상문화 유관 단체 간 협력 관계 구축

① 여건과 사례

문화거버넌스는 영상문화의 다양한 행위자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참여, 협력, 협업이 이루어지는 수평적 파트너십을 의미한다(윤소민, 정지은, 2017). ‘2017 충남의 영상 문화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세미나’에서 문화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역할, 지방정부와 주민간의 동반 관계, 주민과 영상문화산업기관 및 단체 간 협력 등을 통한 지역문화의 자생력을 키워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되었다.

전북은 영상 문화거버넌스가 구축된 지역으로, 영상문화 관련 각 단체가 자율적 파트너십에 의한 일상적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영상문화 유관 단체로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전주국제영화제’, ‘전북 독립영화협회’, ‘전주 영상위원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가 수평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전북의 작은영화관 활성화 사업인 ‘주민시네마스쿨’ 사례는 각 주체 간에 상하반기 간담회, 워크숍을 등을 통해 주민시네마스쿨의 진행 사항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자료 : 충남의 영상 문화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세미나 자료(2017. 6. 23)

(그림 45) 전북 영상문화 기반시설과 주민시네마스쿨 협력 모델

충남은 타 지자체에 비해 영상문화 기반시설 구축이 늦게 이루어진 편으로, 영상문화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작은영화관, 영상미디어센터, 영상위원회 등의 공동 협력사업과 프로그램이 상호교류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충남에는 ‘서천 기벌포영화관과 미디어문화센터’, ‘인디플러스 천안과 천안영상미디어센터’가 공동 공간 내에 구축되어 있지만, 이들 간에 상호 협력 사업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에,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향후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② 추진방향

충남에서 운영되는 영상문화 기반시설의 공공적 역할과 목적을 확실히 하고, 각 단체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 따라서 충남의 영상미디어센터, 작은영화관을 중심으로 유기적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의 영상문화 관련 기관(충남영상위원회, 충남 문화산업진흥원, 충남문화재단 등), 대학, 충남 테크노파크와의 협업을 추진해야 한다.

③ 사업내용

향후 충남 영상 문화거버넌스를 형성하기 위한 중요한 주체들 간에 연계 협력과 상호교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충남 영상문화 기반시설 관계자들의 포럼 구성 및 운영, 충남의 영상문화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와 연계 방안, 작은영화관과 영상미디어센터의 공동사업 발굴에 대한 사업들을 추진해야 한다.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충남 영상 문화거버넌스 포럼 구성 및 운영 : 영상미디어센터, 작은영화관, 영상위원회, 문화산업진흥원 등 관계자
- 충남 내 영화·영상 전공 대학교와 영상문화 기반시설의 산학 협력 MOU 체결
- 작은영화관과 영상미디어센터 간 공동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지원
- 충남 테크노파크 내 정보영상융합센터의 공용장비 활용지원
- 충남문화재단과 영상문화 기반시설 간 업무협약 체결 및 연대 사업 추진



자료 : http://www.caforkr/kor/developer/m_board/m_board.php?b_nm=tbl_bodo&mode=view&pcd_no=2014120817231220281
<http://blog.naver.com/mitra1004?Redirect=Log&logNo=220366294863>

(그림 46) 충남문화재단 지역문화진흥 워크숍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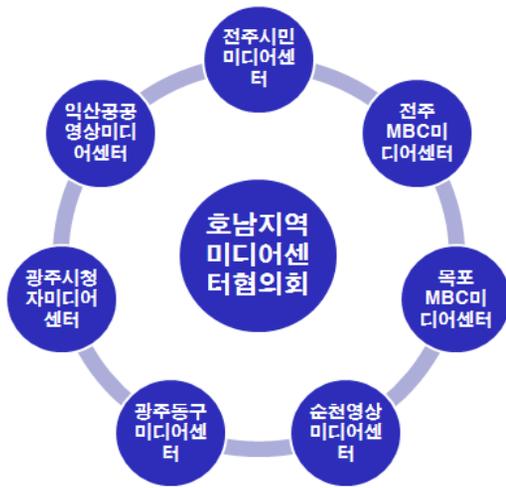
④ 사업추진방안

현재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 영상문화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충남문화재단에서의 영상문화 관련 사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충남문화재단에서도 영상문화 관련 사업을 충남문화산업진흥원과 연대하여 운영할 수 있는 시책화 방안을 추진한다. 충남도내 영화·영상 관련학과는 14개의 대학이 있기에, 전문 인력이 수도권으로 이전하지 않고 충남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또한 충남 테크노파크 내 정보영상융합센터의 공용장비를 영상창작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2) 충남의 영상문화 기반시설 간 네트워크 형성

① 여건과 사례

영상 문화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행위자들의 역할과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충남의 영상문화정책을 추진하는 주요조직으로는 충청남도과 중간조직인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충남영상위원회 등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실행 조직인 작은영화관, 영상미디어센터, 영상문화 관련 기관, 단체 등을 꼽을 수 있다. 영상문화의 정책을 추진하는 조직 간의 협력과 수평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중요하며, 이외에도 각 지역에서 영상문화와 맞닿아 있는 다양한 조직 간에 협력 체계의 구축도 필요하다.



자료 : 충남의 영상 문화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세미나 자료(2017. 6. 23)

(그림 47) 호남지역미디어센터 네트워크 협력 사례

국내의 선행 사례로 ‘2017 충남의 영상 문화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세미나’에서 발제한 전북 지역은 호남지역미디어센터 네트워크라는 체계 하에 미디어센터 간 교육, 제작 지원, 장비협력, 퍼블릭액세스 활성화 등의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호남지역의 미디어센터가 수평적인 연대를 통해 사업을 추진 중이며, 대표 사업으로 ‘정기적 네트워크 회의(분기 1회)’, ‘업무 협약’, ‘공통미디어교육 실시’, ‘미디어교육 사례집 공동 발간’, ‘워크숍 개최’, ‘공동 정책연구 사업’, ‘장비협력’, ‘강사협력’ 등이 있다.

따라서 충남 내 영상미디어센터(천안, 서천)를 중심으로 건립 중인 서산 영상미디어센터와의 네트워크 구축이 이루어져야하며, 서천 기벌포 영화관을 중심으로 건립 중인 금산, 예산, 태안, 청양의 작은영화관과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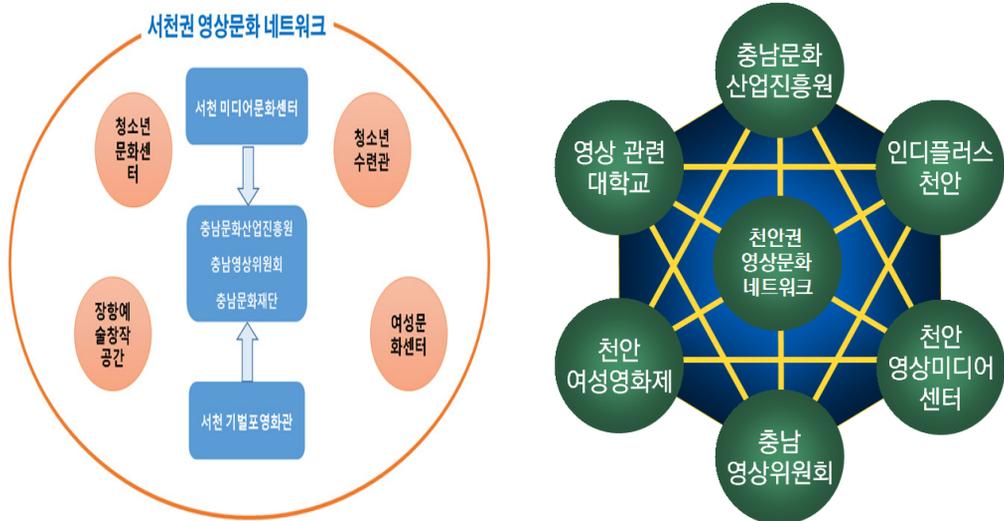
② 추진방향

충남의 영상문화 관련 기반시설(영상미디어센터, 작은영화관)에서는 그동안 개별적인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으나, 이를 좀 더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향후 건립 예정인 타지자체 기반시설과 연계 방안도 구축되어야 하며, 각 시설이 없는 인접 시·군까지 사업을 확대해서 진행해야 한다. 또한 작은영화관, 영상미디어센터 간 충청권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각 기관들이 지역 거점의 역할과 지속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③ 사업내용

충남은 권역에 따라 영상문화의 매개조직인 충남문화재단,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충남영상위원회 등이 존재하며, 실행조직인 영상미디어센터, 작은영화관 외에도 청소년문화센터, 수련원, 여성문화센터, 창작 공간, 영화제 등의 다양한 조직과 공간이 존재한다. 따라서 영상문화 기반 시설과 지역의 다양한 조직 간에 유기적 협력이 이루어지는 영상 문화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영상문화 권역별 네트워크 업무협약 체결 및 워크숍 개최 : 충남문화산업진흥원 등
- 작은영화관,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영상문화 기반시설 간 연계 공통미디어교육 활용시책 발굴과 운영



(그림 48) 충남형 영상문화의 협력체계 모델 예시

④ 사업추진방안

현재 충남의 영상문화 거점 지역을 살펴보면, 서천권 영상문화 네트워크와 천안권 영상문화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특히 서천은 청소년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들이 다수 존재하기에, 영상문화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들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또한 천안은 영상관련 대학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중간조직과 실행조직이 존재하기에, 공통미디어교육을 위한 시책 및 정책개발을 추진한다.

6) 충남 영상문화진흥 조례의 제정

① 여건과 사례

각 지자체의 문화정책은 자치 법령(조례)에 의해 규정되고 있으며, 최근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관련 조례들이 적극적으로 제정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의 조례현황 분류 및 분석을 통해 지역의 영상문화정책에 대한 의지와 척도를 파악할 수 있다(홍교훈 외, 2016).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영상관련 조례는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문화산업 및 콘텐츠 관련 조례’, 영상산업 육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영상 및 영화 관련 진흥조례’, 지역문화진흥법 상 생활문화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영상미디어센터 관련 조례’, ‘영상위원회 관련 조례’, ‘작은영화관 관련 조례’, ‘기타 영상시설 등에 관한 조례’ 등이 있다. 대부분 지역에서는 영상(영화)을 문화콘텐츠의 일부로 다루고 있으나, 별도의 정책대상으로 삼고 있는 곳은 광역지자체에서도 여섯 곳에 불과하며, 충남 또한 문화콘텐츠와 영상문화진흥 관련 조례를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상위법의 개정 방향에 따라 충남 영상문화진흥 조례의 제정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작은영화관을 조성 및 운영하는 기초단체 중 일부 시군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관람료, 위수탁, 관람의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작은영화관 관련 지자체 조례를 통하여 작은영화관의 티켓가격 기준을 현실화하여, 수익금을 작은영화관의 발전과 지역민 문화향유 기회 제공, 지역문화발전에 환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작은영화관 운영의 공공성을 추구할 수 있다(채지영 외, 2017).

[표 46] 작은영화관 조례 및 관람료, 수익금 규정

시군	조례명	관람료 규정	수익금 규정
화천군	화천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영화관 관람료는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	
김제시	김제시 지평선 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안군	부안군 마실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안군 재무회계규칙」
진안군	진안군 마이골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	2D 5천원, 3D 8천원	
순창군	순창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D 5천원, 3D 8천원	
장흥군	장흥군 작은영화관 「장흥진시네마」 운영 관리 조례	일반 영화 관람료의 60%	
고흥군	고흥군 작은 영화관 운영관리 조례	2D 5천원, 3D 8천원	
서천군	서천군 기벌포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D 5천원, 3D 8천원	
영양군	영양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6), 『작은영화관 사업효과성 연구』, p. 107~108.

② 추진방향

충남 영상문화진흥 조례의 제정은 매우 중요하며, 관련 내용은 영상문화 개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지역문화 진흥 정책의 큰 그림 안에서 영상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원 프로그램 중복 등의 문제를 해소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또한 충남 영상문화의 목적 및 의의를 분명히 밝히고, 중앙 중심의 영상문화정책(영화정책)의 패러다임과 ‘중앙→지방→민간’의 하향식 일방향 체계에서 벗어나 충남의 지역 여건과 결부된 영상 문화 환경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영상문화정책 및 사업을 개발할 수 있는 근거로서의 제도가 추진되어야 한다.

③ 사업내용

충남 영상문화진흥 조례의 제정과 이를 바탕으로 충남 영상문화의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어야 충남 영상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서천 기벌포 영화관 관련 조례에 수익금과 관련된 근거를 마련한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될 필요가 있다. 추진해야할 세부사업은 다음과 같다.

- 충남 영상문화진흥 조례의 제정
- 서천군 기벌포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수익금의 근거 마련
- 충남 영상문화의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④ 사업추진방안

충남에서는 문화콘텐츠 및 영상문화진흥 조례가 모두 없는 상태이기에, 상위법의 제정 방향에 따라 영상문화의 관련 내용을 포괄하는 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에 제정된 ‘서천군 기벌포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수익금 사용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공공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의 수익금을 작은영화관의 발전 및 지역주민 영상문화 향유를 위해 재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향후 ‘충남의 영상인프라 조사’, ‘충남 영상문화의 종합발전계획 수립’ 등을 통해 충남 여건에 맞는 영상문화의 역량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7) 조직과 시책강화 및 추진체계의 개선

① 여건과 사례

2017년 6월 기준 27개의 지역에서 작은영화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4년부터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역영상문화 활성화 사업으로 이어져 온 작은영화관 기획전이 2017년 6월부터 12월까지 다채로운 영화와 교육을 연계하여 관객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작은영화관 기획전은 영화 관람 기회의 지역간 격차 해소와 영상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2017 작은영화관 기획전은 관객이 다양한 방식으로 영화를 보고 즐길 수 있도록 영화 상영 프로그램과 더불어 체험 및 힐링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은영화관의 기획전은 영화진흥위원회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으며 ‘작은영화관 및 소외 지역 영화관에서 고전영화, 예술영화 등 지역실정에 맞는 기획전을 개최함으로써 지역 영화 향유권 격차해소 및 소외 지역 영화관 활성화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사업은 선정된 위탁 단체가 작은영화관에서 기획전이 연 30회 1회 상영 기준 : 1개관 100석(50석*2개) 기준, 3일, 1일당 4회 상영 내외로 개최될 수 있도록, 작은영화관 상영 기획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다.

보는 것을 넘어 배우고 즐기는 작은영화관 기획전에 지역 주민이 제작한 단편영화, UCC 등을 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 지역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배리어프리(Barrier Free) 버전의 영화 상영으로 고령자 및 장애인의 관람 장벽도 해소하고 있다. 2017년 작은영화관 기획전에는 충남의 ‘서천 기벌포영화관’, ‘예산시네마’, ‘태안 작은영화관’이 참여하였다. 향후 충남에서도 작은영화관 기획전을 참고하여 충청남도청을 주축으로, 영상문화 관련 기관들이 함께 참여하여 도민에게 영상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충남 영화제’를 개최할 수 있을 것이다.

② 추진방향

‘충남 영화제’의 수행은 충청남도청의 행정과 중간지원조직(충남 영상문화 관련 기관), 지역 주민의 참여활동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모두 중요한 구성인원이지만 행정적인 시책방향과 지원여부, 업무의 전문성과 연계성은 사업을 추진하는 초석이므로, 행정을 담당하는 영상문화 인력은 전문성을 구축해야 하며, 연계업무의 네트워크 강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③ 사업내용

‘충남 영화제’는 충남도청의 지원 예산을 통해 운영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인력은 충남의 영상문화 기관의 전문가들과 협업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충남 영화제 개최

충남 영화제 기획을 위한 TF팀 발족 : 충남의 영상문화 관련 기관 전문가 협업



자료 : <http://www.smallcinema.co.kr/movietype.html?code=C0158>

(그림 49) 2017 작은영화관 기획전 포스터(좌) 및 전북시네마스쿨 단편 특별상영(우)

④ 사업추진방안

영화 감상이라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문화 소비로 자리하면서, 영상문화의 향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이제는 단지 최신 영화를 감상한다는 것을 넘어, 우리 지역에서 이웃 사람들과 함께 영상문화를 경험하고, 커뮤니티 내에서 그 감정을 공유하는 영상문화 향유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는 충남의 영상문화와 관련이 되어 있는 다양한 기관(영상미디어센터, 작은영화관, 충남영상위원회,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충남문화재단 등)들이 함께 도민들과 축제의 장으로 즐길 수 있는 ‘충남 영화제’를 통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종합정리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세계의 도시들은 문화콘텐츠, 창조산업, 영상 산업 등 성장을 위한 차세대 동력인 문화산업을 활용하여, 지역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자체에서 영상문화를 주목하는 이유로 지역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지역 주민과 가장 맞닿아 있는 분야이기에 지역에서 경쟁적으로 영상문화를 전략산업으로 육성시키고 있다. 최근 지역 문화발전을 위한 정책기반 강화(문화기본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시행) 등 지역의 문화 및 향유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이 확대되면서 영상문화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영상문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에서는 이와 관련된 연구가 아직 미흡하여 정책적 활용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충남은 타 지자체에 비해 영상문화 관련 기반 시설이 늦게 구축되어, 지역 간에 인프라의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충남도 영상문화의 확실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충남 영상문화의 주요 시설 운영 현황 및 프로그램을 파악하고, SWOT 분석을 통해 정책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의 발목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세부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상문화의 개념 및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국내외 선행 영상문화의 사례를 조사하여, 충남 영상문화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충남 영상문화의 현황 점검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진행되어야 할 충남 영상문화의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셋째, 도출된 과제를 바탕으로 충남 영상문화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이론 연구 및 문헌고찰, 충남 영상문화 기반시설의 관계자와 관련 학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담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 자문회의, 현장 방문 등으로 진행되었다.

(2) 이론적 고찰 및 분석의 틀 설정

① 영상문화의 개념 정의

영상문화는 영상물을 매개로 하여 다양한 문화적 행위를 포함하는 사회적 행위의 총체적 개념이며, 정책에서의 영상문화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개념을 포함한다. 법적 표현으로 영상문화는 영상진흥법에서 처음 등장하였으며, 영상진흥법에는 영상분야를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영상산업은 영상물의 제작·유통·수출 등에 관한 산업과 그 기술을 의미하며, 영상문화는 도민에게 영상문화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복지(비상업적)의 성격을 가진다(홍교훈 외, 2016).

본 연구에서는 충남 영상문화의 중요한 기반시설(지역영상미디어센터, 작은영화관)과 지자체의 영상문화에 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충남문화산업진흥원, 충남영상위원회 등), 시민 활동, 교육의 영역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②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영상문화의 정책 여건

국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영상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07)」은 영상문화적 측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정부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지역 영상문화 전반으로 확대하여 한국 영상문화 발전의 완성도를 높여나가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2016년 8월에 개정되었다.

특히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영상문화의 진흥을 포함하고 영화진흥기본계획 시행계획에 지역 영상문화 증진이 포함되도록 함(제1조 및 제3조)’,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에 지역 영상문화 진흥을 추가(제14조)하고,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지역 영상문화 진흥과 관련된 사업지원

을 추가(제25조),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영상문화 증진을 위하여 영화 제작을 직접 하는 지역 주민이나 지역 영화 관련 단체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38조 2제2항 신설)’에 관한 것들이다.

따라서 지역 영상문화 진흥에 대한 정책과 지원의 근거가 강화되었으며, 지역민들의 영상 제작 및 향유 활동 지원을 통한 관객 개발과 영상문화 저변 확대 등 지역 영상문화의 진흥 필요성과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 대한 수요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③ 선행연구와의 차별성과 분석의 틀

영상문화와 관련된 기존연구를 주제별로 범주화하면 ① 영상미디어센터 관련 연구, ② 지자체 영상·영화문화 관련 연구, ③ 충남 문화콘텐츠 관련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지자체 차원에서의 영상문화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며, 영상미디어센터·작은영화관의 영상문화 기반시설 운영 현황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충남 광역단체 관점에서 영상문화 정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충남 영상문화 관련 기관의 현황 분석 및 국내외 선행 사례 분석, 세미나,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충남 지역에 맞는 영상문화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3) 충남 영상문화 관련 기관의 운영 현황분석 및 과제도출

본 연구에서는 충남 영상문화의 중요 인프라 현황 및 관련기관의 추진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충남 여건에 맞는 영상문화 운영의 시행계획을 모색하였다.

① 충남 영상문화 관련 기관의 운영 현황분석

충남의 영상문화 관련 기관은 총 43개가 분포하고 있으며, 천안시에 17개로 집중 분포되어 있고, 계룡시의 경우 관련 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문화 기관의 분포는 대부분 시와 군의 읍지역과 동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1개 기관 당 이용 인구는 서천군이 25,796명으로 가장 적고, 논산시가 112,780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천안시의 경우 영상문화 관련 기관이 17개가 분포하고 있지만, 1개 기관 당 이용 인구는 32,890명으로 적은 편으로 나타났다.

미디어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충남에 ‘천안시 영상미디어센터 비채’와 ‘서천군 미디어문화센터 소풍+’이 있으며, 현재 ‘서산시 지역영상미디어센터’가 건립 중이다.

또한 인구수가 적어 민간 사업자가 극장을 운영하지 않는 지역에 공적 자금을 지원해 극장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작은영화관’은 충남에 서천 기벌포 영화관이 있으며, 금산·예산·태안·청양의 작은영화관이 건립 중이다.

영상문화 관련 지원 기관으로 영상위원회, 지역콘텐츠 산업진흥 관련 기관, 지역문화재단 혹은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충남에는 충남영상위원회,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 영상문화와 관련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영상문화 관련 시민활동으로 작은영화제, 시민 영상문화 동호회, 대안상영공동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충남에서는 천안여성영화제, 시민 영상문화 동호회와 관련된 활동 등이 진행되고 있다.

충남의 영상문화 관련 대학 현황은 14개의 학교가 있으며, 영상과 관련된 이론 및 제작 등 다양한 과목들이 개설 중이고, 충남에는 영상문화와 관련된 다수의 대학 인력이 양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다양한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도서관이 충남에는 교육청 주체는 19개, 지자체 주체는 38개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역혁신 거점화를 통한 전략사업 및 특화산업 클러스트 육성 사업 등을 추진하는 충남테크노파크에는 고가의 영상 관련 장비들이 구축되어 있다.

따라서 충남 영상문화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특정 기구를 통한 지원체계의 수립 보다는 충남에 다양하게 있는 영상문화 관련 유관기관의 사업들을 연계하여 활용하고, 지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② 충남 영상문화의 SWOT 분석

충남 영상문화의 현황은 아직 시작 단계로 볼 수 있으며, 관련 관계자의 심층면담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충남 영상문화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요인들을 도출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충남 영상문화의 강점 요인은 ‘대학교 영상 분야 졸업인력’, ‘충남의 영상문화 관련 시·군 협의체 발족’, ‘공동 공간 내 서천 기벌포 영화관·미디어문화센터, 인디플러스 천안·천안영상미

디어센터 구축, '충남 시·군의 작은 영화관 유치 계획(금산, 예산 태안, 청양)' 등을 꼽을 수 있다.

충남 영상문화의 약점 요인은 '타 지자체에 비해 충남의 영상문화 관련 입지 미흡', '지역 간 영상문화 인프라의 격차 존재', '지역 간 영상문화진흥 조례의 제정 필요', '전문 인력, 실무 인력의 부족', '영상문화의 제작 여건 미흡(장비)', '영상문화의 선도 핵심 프로그램 부족' 등을 꼽을 수 있다.

충남 영상문화의 기회 요인은 '지역 영상문화 진흥을 위한 중앙정부(문체부)의 육성 의지',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으로 지역 영상문화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확대 예상', '충남은 영상문화 구축을 위한 시작단계이지만, 타 지역의 다양한 운영 사례를 통한 시행착오 축소 가능', '영상문화 관련 시민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증가', '충남 테크노파크에 영상 관련 고가 장비들 구축' 등을 꼽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충남 영상문화의 위협 요인은 '영상문화 관련 인력들이 수도권으로 이전', '지역 주민들에게 영상문화 관련 기관들의 사업 홍보 부족', '충남 영상문화 관련 거버넌스 구축의 미흡으로 인한 지역 간 연계성 부족' 등을 꼽을 수 있다.

2) 정책제언

(1) 정책추진 과제

본 연구에서 충남 영상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은 '지역 내 영상문화 창작기회 제공', '영상문화 관련 시민 활동의 활성화', '영상문화 전문 인력, 실무 인력의 육성과 활용', '영상문화 관련 교육과정의 개발 및 홍보', '영상문화 기반시설 간 연계 구축', '충남 영상문화진흥 조례의 제정', '조직과 시책강화 및 추진체계의 개선' 등으로 제시하였다.

(2) 추진 전략

앞서 제시한 충남 영상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진전략을 일곱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지역의 영상문화 창작 기회 제공을 위한 창작 활동, 유통과 배급,

둘째,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영상문화 시민 활동 지원과 우수 공모 사업 및 국내 영화제 참여 기회 제공,

셋째, 충남형 시민영화프로그래머 양성과 충남 내 영상문화 관련 일자리 창출,
 넷째, 도서관 영상교육 프로그램의 발굴 및 영상나눔버스 시네놀이를 통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다섯째, 작은 영화관, 영상미디어센터, 영상위원회 등 공동협력사업 발굴 및 운영,
 여섯째, 충남 영상문화진흥을 위한 조례법의 제정 및 영상문화 관련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일곱째, 충남 영상문화의 자립형 시책 발굴 및 사업의 추진 등 이다.

(3) 충남 영상문화의 활성화 전략과 추진방안

① 지역 내 영상문화 창작기회 제공

지역의 영상문화 창작 기회 제공을 위한 단계적 개발 사업은 지역주민 주도형 영상문화 창작 프로그램 발굴, 창작여건 강화를 위한 영상문화 기반시설 간 워크숍 개최, 충남 내 영상문화 창작 사업 발굴과 시책추진 등이다.

지역의 영상문화 창작 기회 제공을 위한 유통과 배급의 집중 육성 및 운영사업은 충남형 커뮤니티 시네마 구축을 위한 작은영화관(독립영화관) 육성과 사업추진, 충남의 작은영화관(독립영화관) 내 독립영화·예술영화 관람 전용관 설치 및 운영, 충남 공공상영관(도서관 내 소극장, 구민회관 등)의 사업모델 구축 등이다.

② 영상문화 관련 시민 활동의 활성화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영상문화 시민활동 지원 사업은 충남 특성에 맞는 주민주도형 시네마스쿨 운영, 충남 영상문화의 시민 동아리 활동 사업 발굴 및 운영, UCC 경진대회 및 작은영화관 순회를 통한 교육결과물 공유 등이다.

또한 영상문화 창작 활동에 참여한 도민들에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영상문화 시민 제작 활동의 우수 공모 지원 사업, 우수 영상문화 동아리 제작 활동의 국내영화제 참가 지원, 천안여성영화제와 함께하는 영상문화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③ 영상문화 전문 인력, 실무 인력의 육성과 활용

충남 영상문화 전문 인력 및 실무 인력의 육성과 활용을 위한 추진 사업은 충남의 시민영화 프로그래머 양성과정 개설, 시민 영화프로그래머 창작 활동 지원 및 천안여성영화제 프로그램의 운영 참여, 충남 내 영화·영상 관련 대학교 전문 인력 재교육 지원 등이다.

충남 내 영상문화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진 사업은 충남형 영상문화 관련 협동조합 구성 및 모두를 위한 극장 사업 추진 및 운영, 충남 내 영화·영상 관련 대학교와 충남 영상문화 기반시설 간 인턴십 과정 개설, 충남 내 영화·영상 전공 대학생과 영상문화 전문가 멘토링 사업 운영 등이다.

④ 영상문화 관련 교육과정의 개발 및 홍보

충남 영상문화 전문 인력 및 실무 인력의 육성과 활용을 위한 추진 사업은 충남의 시민영화 프로그래머 양성과정 개설, 시민 영화프로그래머 창작 활동 지원 및 천안여성영화제 프로그램의 운영 참여, 충남 내 영화·영상 관련 대학교 전문 인력 재교육 지원 등이다.

충남 내 영상문화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진 사업은 충남형 영상문화 관련 협동조합 구성 및 모두를 위한 극장 사업 추진 및 운영, 충남 내 영화·영상 관련 대학교와 충남 영상문화 기반시설 간 인턴십 과정 개설, 충남 내 영화·영상 전공 대학생과 영상문화 전문가 멘토링 사업 운영 등이다.

⑤ 영상문화 기반시설 간 연계 구축

충남의 영상문화 유관 단체 간 협력 관계 구축 사업은 충남 영상 문화거버넌스 포럼 구성 및 운영(영상미디어센터, 작은영화관, 영상위원회, 문화산업진흥원 등 관계자), 충남 내 영화·영상 전공 대학교와 영상문화 기반시설의 산학 협력 MOU 체결, 작은영화관과 영상미디어센터 간 공동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지원, 충남 테크노파크 내 정보영상융합센터의 공용장비 활용지원, 충남문화재단과 영상문화 기반시설 간 업무협약 체결 및 연대 사업 추진 등이다.

충남의 영상문화 기반시설 간 네트워크 형성 추진 사업은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의 영상문화 권역별 네트워크 업무협약 체결 및 워크숍 개최, 작은영화관,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영상문화 기반시설 간 연계 공동미디어교육 활용시책 발굴과 운영 등이다.

⑥ 충남 영상문화진흥 조례의 제정

충남 영상문화진흥 조례의 제정을 위한 사업으로 충남 영상문화진흥 조례의 제정, 수익금의 근거 마련을 위한 서천군 기벌포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남 영상문화의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등이다.

⑦ 조직과 시책강화 및 추진체계의 개선

충남 영상문화 인력의 전문성과 연계업무의 네트워크 강화사업은 충남 영화제 개최, 충남의 영상문화 관련 기관 전문가 협업 및 충남 영화제 기획을 위한 TF팀 발족 등이다.

2.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는 충남 영상문화 관련 기관의 운영 현황 및 사업들을 파악하여 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정책적 과제는 사업을 추진하는 일선의 정책담당자와 영상문화를 운영하는 실무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도출되었다. 향후 과제는 영상문화를 향유하는 도민들의 수요조사를 통한 세부사업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충남의 문화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의 역할과 정책을 제언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충남 영상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 방안에 있어서 각각의 추진 전략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계획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향후 연구에서 영상문화의 각 전략별 별도계획에서 보완하여 진행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고정민(2008), 『한국문화산업의 발전전략』, 삼성경제연구소.
- 관악공동체라디오(2015), 서천군미디어문화센터 2016년 운영계획안.
- 금성근·오재환(2011), 『부산지역 영상산업 육성방안』, 부산발전연구원.
- 금성근·우석봉(2014), 『부산지역 영화산업 기반 확충방안』, 부산발전연구원.
- 김선태(2015), 우리 협동조합을 소개합니다③ 지역의 문화 활성화를 위한 작은영화관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네트워크, 68, 208-219.
- 김화범(2007), 공동체 상영의 지형과 실천과제, 『2007 공동체상영운동네트워크 "의제설정"과 "실천전략" 모색』.
- 류민호(2007), 『지역 영상매체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 : 인터넷방송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화관광부·열린우리당 한국영화발전특별위원회(2006), 『영화산업 중장기 발전계획(2007~2011)』.
- 박재범(2006), 『디지털 콘텐츠 사업의 총아 콘텐츠 애그리게이터』, LG주간경제.
- 백운성(2010), 『충남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정책의 추진실태와 경쟁력 강화 방안』, 충남발전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내년 말까지 '작은영화관' 20개 생긴다>, 2013년 7월 23일.
-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4년 기준 지역문화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사)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2013), 『지역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한 작은영화관 및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설립 지원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_____ (2014), <2014 작은영화관 교육 프로그램 사례집>.
- 서상아(2008), 『지역 영상문화 인프라 활성화 연구 - 인천영상위원회의 위상과 발전방향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영득(2014), 긴 겨울을 지난 대구 독립 영화, 대문 2014년 겨울호, 22-29.
- 심광현·김미현·조동원·정은희·박혜미·강준상(2003), 『영상문화교육 교육과정 기초 연구』,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2016a), 한국영화 진흥 종합계획(2016~2018).
 _____(2016b), 2016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_____(2017), 2016년 한국영화산업 결산 발표.

옥성수·이주훈·전지훈(2006),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및 평가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원승환·함주리(2013), 『영화관 협동조합 사례 및 도입 방안 연구』, 영화진흥위원회.

윤소민·정지은(2017), 문화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국제영화제의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국제영화제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를 중심으로, 상품학연구, 17(1), 1-8.

윤혜숙·함주리(2012), 『영화문화 향유권 강화를 위한 지역 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영화진흥위원회.

이원곤·윤정섭·이주용·김희진·심영기·이동현(1998), 『영상미디어예술센터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기초 사례조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정인선·박혜영·송수연·강민구(2008), 『다양성 영화의 지역 상영 활성화 방안 연구』,
 영화진흥위원회/영상산업정책연구소.

정지은(2016), 『충남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운영 실태 및 활성화 방안 - 문화기반시설과
 문화재단의 활용을 중심으로』, 충남연구원.

채지영·이충지·함주리·정현지·백승원·김신혜·이지혜(2017), 『작은영화관 사업효과성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충남문화산업진흥원(2016), (재)충남문화산업진흥원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 업무보고.

허경·윤혜숙·박민욱·오혜리·김용훈(2013), 『지역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한 작은영화관 및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설립 지원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홍교훈·염신규·배용찬·원환섭·김아미·김지현·김창남·김혜준·변재란·조광호·허경(2016),
 『지자체별 영상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영화진흥위원회.

[ACT! 97호 연재] 작지만 큰 영화제 (1) 다큐멘터리영화제 : 많이 보면 남는 행사,
 익산다큐영화제, 진보적 미디어운동 연구저널 ACT!, 2016.

인터넷사이트

나라시 홈페이지 <http://www.city.nara.lg.jp>

서산문화원 홈페이지. www.cnkccf.or.kr/seosan.do

오오극장 홈페이지 <http://55cine.com>

익산 공공 영상 미디어센터 홈페이지 <http://www.ismedia.or.kr>

인디플러스천안 홈페이지. [인디플러스천안.kr](http://indipluscheonan.kr)

인디플러스천안 자료. blog.daum.net/e-chungnam/4074

작은영화관 기획전 홈페이지 <http://smallcinema.co.kr>

환경 경제용어사전. terms.naver.com/entry.nhn?docId=2067769&cid=42107&categoryId=42107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www.archives.go.kr

후루사토 납세 초이스 홈페이지 <https://www.furusato-tax.jp>

BFI 홈페이지 <http://www.bfi.org.uk>, 〈BFI plan 2012-2017〉

BFI 홈페이지 <http://www.bfi.org.uk>, 〈UK Film Council rural cinema strategy〉

법률 및 조례

문화기본법(법률 제14203호) 일부개정 2016.05.29.

문화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541호) 일부개정 2016.10.11.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2691호) 일부제정 2014.05.28.

영상진흥기본법(법률 제8744호) 일부개정 2007.12.21.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453호) 타법개정 2013.03.2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4476호) 타법개정 2016.12.2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278호) 일부개정
2016.12.0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7830호) 타법개정
2017.02.03.

지역문화진흥법(법률 제12354호) 일부제정 2014.01.28.

지역문화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5호) 일부제정 2014.07.29.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129호) 일부개정 2016.05.10.

충청남도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조례 4064호) 전부개정
2015.12.30.

□ 부록1. 사전자문의견

<p>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17년 2월 20일 · 내용 : 전략과제 연구방향 및 추진방안 자문 · 자문위원 : 변재란(순천향대 교수), 윤소민(성균관대 박사수료)
<p>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문화 및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관련한 연구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부산을 제외하고 지자체 단위에서 지역적 특성에 기반하여 영상문화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본 연구가 지자체 영상문화(산업) 정책 연구의 표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충남의 영상문화 관련 기관 및 사업의 현황 파악 및 이들 간에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함. 특히 충남 현황에 밀착된 연구의 진행 및 정책 제언으로 이루어져야 함 ○ 연구의 방법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장 충남 영상문화의 인프라 현황에서 기존 충남지역 극장의 현황(작은영화관 포함), 영화 관객 수, 영화 및 영상 관련 사업(천안여성영화제), 영상과 관련된 교육현황(도서관 포함), 문화재단에서 진행되고 있는 영상교육 현황 등의 조사가 진행되어 거버넌스적 측면의 정책 제언을 결론에 제시할 것 - 향후 충남의 영상문화 관련 기관들의 현황조사가 진행된 후, 지도에 표식화 시킬 것 ○ 연구 구성(목차)의 체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장에서 '영상문화/지역'과 관련된 법률 검토가 필요하며, 영상문화 관련 법률과 영상문화 관련 추진정책을 구분하여 살펴보고, 국내외 지역문화진흥 및 영상문화 정책 동향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본 후 사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특히 충남의 영상문화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선진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하고, 타당성을 부여할 것.
<p>반영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의 목차 및 제목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 연구 목차의 보완 및 제목 수정 ○ 연구의 방법 및 목적 체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문화 관련 법률과 추진정책을 나누어서 살펴보고, 각 법률(영상진흥법,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과 추진정책을 다양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내용 확대 - 충남 영상문화 관련 기관의 현황(3장) 부분을 구체화 시키고, 향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기관의 현황이 한 눈에 파악될 수 있도록 지도에 도식화, 표식화로 작성 - 국내외 영상문화 관련 전반적 현황 및 선진 사례를 다양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내용 확대

□ 착수연심회 자문의견

<p>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17년 3월 6일 · 참석 : 김제환(충청남도 문화정책과 팀장), 이종하(충청남도 문화정책과 주무관) 문옥배(당진문화재단 사무처장), 조훈성 박사(민족극예술연구소 판), 강현수(충남연구원 원장), 권영현(충남연구원 연구실장), 박철희(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옥식윤정미(충남연구원 연구위원)
<p>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의 필요성 및 구성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시점에서 충남 지자체 단위에서 영상문화의 인프라 현황을 살펴보고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는 중요하며, 필요한 연구로 사료됨. 연구의 목차(장) 추가하여 작성할 것 ○ 연구의 범위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월 전략과제(소형)의 기간과 예산 규모에 맞추어 연구 범위와 내용을 한정하고, 영상문화의 개념에 대해서 명확히 제시할 것. 특히 영상문화를 산업, 복지, 교육 등 중에서 한 테마로 한정하여 접근할 것 - 선행 사례조사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외 영상문화 동향 및 사례를 한 번에 묶어서 정리하고, 국내의 다양한 선행 사례(영상미디어센터, 작은영화관, 독립영화관, 영상위원회, 시민문화예술교육 등)를 분석할 것 - 충남문화산업진흥원 관련 조례의 내용을 추가하고, 추상적인 개념의 영상문화와 인프라(제작, 축제, 배급 등)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연구 범위(범주)를 축소화할 것 ○ 연구의 결과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에서 시책화 할 수 있는 영상문화의 활성화 과제들이 도출되어야 하며, 창조적인 연구 결과가 도출되어야 함
<p>반영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의 연구 목적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연구의 목적과 범위(범주)를 구체화하고, 영상문화와 인프라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제시한 후 본 연구를 수행함 ○ 연구의 내용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다양한 선행 사례(영상미디어센터, 작은영화관, 독립영화관, 영상위원회, 시민문화예술교육)를 추가함 -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조례 내용을 분석하고, 연구 범위를 복지의 관점으로 축소하여 충남 영상문화의 시책화할 수 있는 과제들을 도출함

□ 최종연심회 자문의견

<p>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17년 8월 24일 · 참석 : 이종하(충청남도 문화정책과 주무관), 문옥배(당진문화재단 사무처장), 변재란 교수(순천향대 교수), 권영현(충남연구원 연구실장), 박철희(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옥삭윤정미(충남연구원 연구위원)
<p>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의 범위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의 작은영화관과 지역영상미디어센터를 중심으로 연구의 내용을 서술하는 것으로 수정 - 정책동향 및 현황분석에서 작은영화관과 지역영상미디어센터에 중심을 두고 일부 추가할 것 ○ 연구의 결과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문화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의 유기적(연동)관계를 위한 결론 및 시사점 제시 - 연구의 전략, 목표의 용어 및 표현 내용 일부 수정할 것 - 과제도출에 대한 거시적 차원이 아닌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 보완 필요
<p>반영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의 연구 범위 구체화(작은영화관, 영상미디어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연구의 목적과 범위(범주)를 부제에 맞춰 충남의 작은영화관, 지역영상미디어센터로 구체화하여 연구의 결과 반영 ○ 연구의 결과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의 범위에 맞는 과제도출을 위한 현황조사 내용 수정 및 전략별 사업의 위계에 맞는 단어로 연구결과 재구성

□ 부록2. 충남의 영상문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세미나

가. 개요

일 시	2017년 6월 23일(금), 14:00 ~ 16:00	
장 소	충남연구원 4층 회의실	
참석자	사회자	정지은 책임연구원(충남연구원 지역도시연구부)
	발제자	채지영 연구위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인선 박사(동경대학교) 최성은 이사장(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좌 장	변재란 교수(순천향대 교수)
	토론자	김용훈 본부장(영화진흥위원회 기반조성본부) 허경 사무국장(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김제한 팀장(충남도청) 장성각 본부장(충남문화산업진흥원) 구재준 센터장(서천기벌포영화관) 박정배 교수(청운대학교)
	참 석	천안시, 서산시, 금산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관계자
	녹취록 작성	윤소민(성균관대학교 박사수료)

나. 내용

■ 채지영 연구위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주제 1: 영상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정책적 제언 - 작은 영화관을 중심으로

- 현재 영상문화의 지역적 편차가 심한 상태이며, 충남은 전체 매출의 3.9%로 매우 낮은 수치임. 지역에 훌륭한 문화기반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술 중심의 시설로 예술에만 치중되어 활용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지역민이 문화를 향유한다는 것과 거리감 있게 운영되고 있음
- 작은영화관은 지역의 문화향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13년 사업이 진행되었고, 개관 첫 해는 마이너스의 경우가 있었지만, 1년~2년차 이후부터는 안정화된 수익을 내고 있으며, 이용객의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작은영화관의 입지 선정 시 주민들의 생활범주를 고려하지 않고 선정된 경우가 많아 거리 상 가깝더라도 대중교통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있음. 시설 리모델링 시 영화관 시설로서의 전문성을 갖추고,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 주변 상권의 발달이 된 공간이 설립 되었으면 함
- 인력구성에 있어 대부분 일용직 시간근로자로 운영되고 있음. 작은영화관은 좋은 일자리 창출가능성을 가지고 있음. 정규직 및 장애인 고용 등 고용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음. 또한 영사기사 등 지역의 전문적 운영자를 뽑을 수 있는 관림감독 및 체계를 만들어야 함
- 작은 영화관은 공공영화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함. 수익금 활용에 대한 정확한 기준 이 마련되어야 함. 또한 민간 수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이 이루어져야하며, 수익금은 지역의 영상문화발전 및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에 활용될 수 있는 기준 틀을 마련해야 함

■ 정인선 박사 (동경대학교)

주제 2: 지방 소도시에서의 영상문화 활성화 사례 - 일본 나라시를 중심으로

- 최근 멀티플렉스가 증가하면서 작은영화관에 대한 언급이 많아지고, 2000년대 디지털 시 네마로 상영포맷이 바뀌면서 많은 단관 극장들이 폐관을 하게 됨. 이로 인해 영화관의 공백지역이 많이 생김. 일본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겪었으며, 이것을 어떻게 풀어내는 지, 해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일본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일본의 나라시에는 영화관이 한 곳도 없는 것이 특징이며, 일본의 영화관 상영 현황 중 영화관 공백지역은 2002년과 2013년을 비교하면 극장 수가 많이 줄었음. 2002년만 해도 예술영화 상영 독립극장이 멀티플렉스 상영관의 두 배정도 많았음. 그러나 2013년에는 도쿄를 중심으로 멀티플렉스 수가 증가하고 그 외 지역은 극장이 많이 사라짐. 그런데 미니 시어터(작은영화관)의 극장 수는 변화하지 않았음. 변화가 없는 이유는 폐관 극장을 커뮤니티 스페이스로 재개관했기 때문임
- ‘어느 날 남편이 영화관을 사왔다’의 사례를 살펴보면, 인구 8만의 소도시 도요오카에는 당시 4개의 극장이 있었으나 2012년에 모든 극장이 폐관하면서 극장 공백지역이 됨. 폐관이유는 디지털시네마 도입비용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었음. 폐관이후 영화 애호가 극장을 인수하면서 도요오카 신생 프로젝트 팀을 결성하여 커뮤니티시네마회의를 통해 영화관 운영사례, 프로그램공유 하는 모임을 진행함. 또한 인근 대학과 연계를 통해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 주체들을 끌어와 영화관 재생프로젝트를 하게 되었고, 공간 수리

비용은 크라우드 펀딩으로 조달함. 기부자 80%가 도요오카주민으로 이루어짐

- 나라국제영화는 극장이 없는 곳으로 영화제가 시작 된 2010년에 1회를 개최함. 영화제 예산 부분은 크지 않지만, 1회에는 나라현에서 사업비 및 인건비 지원, 2회는 나라시에서 지원, 4회에는 정부의 보조금이 전액 삭감되고, 사업비만 지원보조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나머지 인건비 등은 후루사토 납세의 지원을 통해 지원받고 있음
- 후루사토 납세는 2008년에 도입된 제도로 자신이 선택한 지역의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는 형태로 기부의 기준 2천엔을 제외하고 소득세, 주민세가 면제됨. 납세하는 곳은 선택할 수 있으며, 여러 군데를 나누어 지원가능하여, 지원 후 사례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영수증을 지자체에 제출하면 거주중인 지자체에서 소득세 및 주민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시스템임
- 나라시에는 영화관이 없으며, 예술영화를 보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나가야 하는 상황임. 월 1회 3일간 이동형 상영회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2013년에 처음 시작하여 나라여자대학교강당, 주민센터, 지역호텔시설 등에서 상영되며, 월 2~3백 명의 주민들이 시네마테크를 통해 영화를 감상하고 있음
- 게스트 초청 영화와 관련된 인사 외에 영화의 주제 및 내용과 관련된 게스트 예를 들어 전공대학교수, 와인전문가 등 초청, 지역인력활용이 높음 (영화 관련 전문가 초빙)
- 야외 상영회 2015년에 시작, 영화제가 안 열리는 해에 홍보를 위해 이벤트를 개최하였는데 호응이 좋아 매년 나라공원에서 개최하고 있음. 주요 프로그램은 아이들과 볼 수 있는 프로그램, 지역의 관현악단, 댄스공연 등 지역 예술전문 단체와 협력하여 진행함. 상영회 개최 비용은 크라운딩 펀딩으로 모집하고, 참여한 시민들에게 사례품을 지급함
- 영상제작워크샵은 2014년 처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함. 나라시 교육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초등학교에서 워크샵의 참가자를 모집하였고, 일본을 대표하는 감독이 직접 교육과정에 참여함. 교육 참여 대상에게 촬영 후 편집해서 상영회를 개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지역사회에 나라시 국제영화제의 연계를 살펴보면, 영상제작워크샵, 시네마테크, 장애아동(지역NPO)등의 참여로 지역사회와 네트워크가 이루어짐. 사회적 측면이 두드러지며 영화 감상 문화복지차원을 넘어 지역사회커뮤니티성의 증진이 좀 더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극장이라는 물리적 공간의 중요성을 넘어 상영하는 주체에 대한 지원에 대한 필요가 더욱 중요함. 영화를 보는 것 외에, 영화 관람을 공공적 행위로서 커뮤니티의 공동체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강조함

■ 최성은 이사장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주제 3 : 충남 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 및 협력 방안 - 전북 사례를 중심으로

- 충남이 영상문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는 점에서 전주시, 전북에서도 자극을 받아, 이와 관련된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음
- 전라북도 지역 내에는 전주국제영화제가 올해 18회를 맞이함. 이와 같이 다양한 영상관련 문화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가 높고, 지역 영상문화관련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전북에서는 영상문화와 관련하여 '산업적·전문적·시민단체' 등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2000년대 초반에 시작하여 15년 이상 꾸준히 성장해옴. 전북에는 9개의 시군에 작은영화관이 있으며, 확산되는 과정에 도와 내부 회의도 자주 실시하며, 작은영화관이 단 순하게 개봉되는 영화를 보는 것에서 멈추는 것보다 공적 시설로서 역할을 위해 직접 주민들이 영화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함
- 전북의 영상문화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은, 작은영화관을 중심으로 영화관람 동 호회, 제작 동호회, 커뮤니티 공간들을 제공하고 있음. 또한 마을 영화제를 상영할 수 있 는 공간으로 작은영화관 협력하여,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2013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올해 4년차를 맞이하였고, 처음에는 6개의 시·군에서 참여하였는데, 현재는 9 개 로 확대됨. 9개의 시·군뿐만 아니라 대도시 미디어센터가 있는 14개의 지역으로 확대 하여 기초, 심화교육 특강과 매년1회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음
- 관련사업 : UCC 경진대회, 6:4 예산매칭. 지역 내에서 강사, 주민연계 등이 있으며, 중앙 정부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의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
- 인력 풀에 대한 부분은 강사들에게 가장 많은 비용을 지불함. 교육 외에 영화를 감독님께 배우며 직접 만드는 것 외에도 방과 후 학교 활동으로 다수의 비용을 책정함
- 전북에 9개의 작은영화관은 운영주체가 조금씩 달라서, 다소 협력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 음. 수익이 나지 않은 마을 영화제와 커뮤니티 운영에 대해 협력이 어려움. 작은영화관이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다보면, 오히려 운영 후 5~10년이 되면 사라질 수 있음. 따라서 주 민들이 영화관이 '우리 것'이라는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 어야 함. 이에 우리는 주민들의 역량강화, 주민들 동호회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음
- 영화영상관련 교육 기관으로는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전북 독립영화협회, 영상위원회, 국제 영화제가 있으며 각자가 역할이 구분되어 운영됨. 시민들이 만들고, 소비를 넘어 영화제에 단순 자원봉사 활동이 아닌 영화 프로그램을 한 섹션을 만들어 전주국제영화제와 협력하 고 있음. 영화의 주체가 되겠다는 주민들 의식이 높으며, 시민 영화프로그램에 양성 자원 형태 외에 좀 더 높은 참여가 필요한 단계임

- 전북도민 문화향유실태조사를 살펴보면, 문화향유가 개인적 소비와 교육 참여를 넘어 동아리 활동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공동체 활동으로 변화됨을 의미함. 따라서 영상미디어센터 및 영상 관련 기관에서 주민들의 변화되는 흐름에 맞추어 가야함
- 따라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관련 기관에서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정책 및 지원 체계(거버넌스)가 만들어져야 함

■ 토론자 1 : 김제환 팀장 (충남도청)

- 충남 영상문화는 아직 걸음마 단계이며, 관련 정책 방향의 목적은 주민에게 영상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미디어협력체 네트워크 프로세스를 구성해서 효과를 높이는 것임
- 충남에서 작은영화관은 5개, 미디어센터 3개소, 독립영화관 1개소가 구축되고 있는 상황임. 향후 충남에서도 사군뿐만 아니라 영화진흥위원회와도 함께 협의하여 진행할 것
- 충남영상위원회는 2015년 설립되었고, 로케이션 제작사업, 충남 체류형 시나리오 사업, 팸투어를 진행 중이며, 아직 부족하지만 촬영지 발굴 등을 계속 노력하고 있음

■ 토론자 2 : 김용훈 본부장 (영화진흥위원회 기반조성본부)

- 전체적으로 영상문화에 있어서 영화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환기가 필요함. 영화를 보는 방식이 개별화되고 있는데, 영화는 극장에 가서 봐야한다는 가치, 공동체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함. 따라서 거버넌스가 그 가치의 출발이라고 생각됨. 지역 영상관련 기관들이 자율적인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지역의 고유 가치를 지키는 전제 하에 사업이 이루어져야 함
- 지역에서 영상문화의 사업을 상업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작은영화관은 지역의 공공재적 목적을 가져야 하며, 공공성은 지역의 조례를 통해서 환원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각 지자체 조례의 보완이 필요함
- 3년 전부터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원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데, 충남이 영상문화네트워크가 1호로 구성되었다는 점이 너무 반가운 일이며, 이를 계기로 향후 강원도, 전남도의 세미나도 진행될 예정이지만, 그 시작은 충남으로 생각됨. 향후 충남을 시범지역으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체계로 우리도 참여할 것이며, 영화진흥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들을 진행할 시 시범지역으로 대표되는 충남과 지속적인 협의를 구축할 것임

■ 토론자 3: 허경 사무국장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 지역의 영상문화로 포괄되는 주체들이 협력하는 것은 중요함. 공약 발표 중 국민이 참여하는 문화로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지역의 영상문화는 주민을 주체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가 핵심 가치로 볼 수 있음
- 자치분권, 균형발전 제시가 중요한데, 이것은 행자부 중심의 정책 영역이 아닌 다양한 영역이 포괄되어 정책이 만들어져야 됨. 지역문화분권을 통해 진행되어야 하고, 문화분권, 문화주권, 지방분권 과 긴밀한 연결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함. 지역주민들과 밀접하게 연결된 정책들과 함께 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음. 도시재생, 문화 활동을 참여하고 주민들의 정책과 연결되어야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음
- 영상의 문화분권으로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생활문화정책에 포함되어 있으며, 영국의 경우 6만3천개 동아리 자발적으로 1천 만 개 동호회 활동이 운영되고 있음. 영국의 경우를 통해 주민주체들이 모여 있는 단체가 현장에서 문화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을 정책으로 만들어 내고 이것이 상향식으로 문화정책을 재구성 하는 과정으로 만들어짐. 가장 밑의 네트워크가 스스로 정책의 주체가 되어 있다는 중요한 시사점이 있음. 물론 세밀한 평가와 재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이것이 문화분권, 자치분권이 가지고 있는 핵심이라고 생각됨
-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다양한 지역과 연계된 정책과 수립이 필요함, 그 외의 활동으로 생활과 긴밀히 연계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
-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및 노력이 필요하며, 중앙부처 및 지방 부처 간의 긴밀한 연계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밀착된 정책이 필요함. 상향식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 인, 운영방식, 다양한 혁신방안 등이 논의가 되어야 함
- 영화진흥위원회 또한 지자체 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한 것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영역과 협력하는 운영방식, 다양한 혁신방안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함

■ 토론자 4 : 장성각 본부장 (충남문화산업진흥원)

- 충남도내 8개 시·군의 각 기초단체들은 지역미디어센터 및 작은영화관, 독립영화전용관을 운영하거나 설립 중에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위탁운영방식을 택함. 따라서 이들 기관이 각 지역의 거점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음
- 각 시·군의 기관들이 점차 만들어지면서 개별적인 애로사항이 발생하여, 6월 초 협의체 구성하게 됨. 향후 기획전 등 공동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며, 여기서 운영비, 사업비 예산은

분리되어 있음. 미디어센터의 경우는 예산의 구조가 명확하나 작은영화관은 특정지역에 민간 기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공공성의 논리를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운영비 예산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거부 할 수 없는 제안이지만, 나머지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익 창출이 이루어져야 인건비, 운영비, 다른 사업비가 해결 될 수 있는 구조임

- 천안시의 사례는 민간위탁기관선택 시 진흥원소속으로 근무를 보장하고, 일부의 수익은 천안시로 귀속하고 있음. 운영과 사업비가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 안정적인 구조로 될 것 이기에 천안이 좋은 사례가 되어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작은영화관의 근무환경이 보장 되어야 하며, 그래야 영상문화 복지 증진에 맞물릴 수 있음. 예산 활용에 있어서 일부 수익은 일부 운영수탁기관의 적립으로 운영되어, 향후 노후장비 교체 등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토론자 5 : 구재준 센터장 (서천 기벌포영화관)

- 서천은 미디어센터와 작은 영화관이 한 곳에서 운영되고 있음. 지역영상문화정책의 중심 지로서 어떻게 기능하고, 주민들과 소통 및 네트워킹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 영상문화 의 기여의 방안을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제안하고자 함
- 영상문화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데, 매체로는 영상, 사진, 라디오를 포함하며, 대상은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며, 내용은 지역민이야기, 일상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음. 영상문화는 영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것이지만, 문화적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수립된 경우가 없기에, 영상문화도 주요 문화 영역 중 하나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함
- 기벌포 영화관에서 인력문제가 시급함. 서천지역에서 기벌포 영화관의 장기적문제가 있어 중요한 것은 직원으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정규직 직원의 채용이 필요함. 양질의 일자리 가 양성이 되어야 장기적, 안정적 운영이 가능함. 현재 기벌포영화관은 1년6개월 운영과정에 있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 중 영사기사 자격증 과정을 양성하고 있음. 직원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마련하고 있고, 지자체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안임
- 미디어센터가 있는 지역은 천안, 서천 2곳이며, 서산, 홍성은 올 해 예산을 신청하였음. 또한 미디어센터가 없는 지역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며, 광역차원에서 노력해야함. 4개의 미디어센터가 다른 10개 시·군의 사업과 함께 운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개발 및 예산의 지원이 필요함
- 우리는 라디오 매체에 주목하고 있는데, 팟 캐스트 방송은 주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임. 5개월 만에 라디오 제작과정에 50명, 17개의 팀이 활동하고 있으며,

라디오 방송하는 하루를 위해 일주일을 산다는 반응도 얻으며,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지역영상문화의 주요 매체로 라디오를 포함해야 함. 라디오가 대표 미디어 매체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됨. 활동에 있어 예산이 없으면 어려우며, 지역 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예산 수립 또한 이루어져야 함

■ 토론자 6 : 박정배 교수 (청운대학교)

- 거버넌스는 문화산업, 문화콘텐츠, 이벤트축제, 공연기획제작에서도 중요한 과제임. 또한 영상 분야는 영화, 드라마, 비디오 움직이는 화면의 광고, 보편적 여가수단, 문화상품을 즐기는 영화, 드라마로 꼽을 수 있음. 영상산업은 지식과 아이디어의 집약산업으로서 거대한 자본이나 생산설비 없이도 다양한 창구효과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 지역 내의 관련 산업들과 연관효과 및 외부효과를 제공할 수 있기에 지역 활성화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문화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주민, 문화관련 예술단체 및 시민단체, 기업 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함. 지역문화의 자생력을 키워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로 언급할 수 있음
- 정부의 문화정책을 살펴보면, 지역실정에 맞지 않은 일괄적인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도 집행부, 도의회는 영상문화정책에 전문성도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충남의 영상문화 관련 협의체 발족식에 맞춰 관련 기관들의 문화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정확한 목표가 필요함. 지역주민, 영상예술인, 영상예술기관, 단체들이 문화를 생산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정책추진체계를 고찰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함
- 지역영상문화진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고 향후 발전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으로 검토하거나 반영해야 할만한 사항을 위해 서로 토론하고 의견을 모아야 함
- 산업적 기반뿐만 아니라 영상문화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하고, 지역 내 혁신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함. 학교와의 연계를 통한 인력양성도 필요하며, 지역의 영상문화 산업 종사자들이 영상산업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가 개선되어야 함
- 영상문화는 지역 내 관련 산업과의 연계성, 고용창출 효과, 관광산업으로서의 역할, 삶의 질 향상, 지역 이미지 개선 등의 효과를 창출 시킬 수 있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업 등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충남도 이를 뒷받침 하듯 영상문화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등 효율적이지 못한 상황임. 따라서 영상문화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 지방정부와 주민간의 동반관계, 주민과 영상예술기관, 단체 간의 협력 등을 통한 지역문화의 자생력을 키워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좌장 : 변재란 교수 (순천향대학교)

- 이 자리는 충남의 영상문화가 활성화되기 위한 중요한 시작단계로 생각되며, 영화진흥위원회, 지자체 관계자가 모인 자리이기에 의미가 있음. 김용훈 본부장님께서서는 영화의 문화적 가치, 공동체적 가치, 지역의 고유한 가치, 영화관의 가치, 영상관련 협의체 거버넌스의 가치 등의 공동 목표를 묶어내는 능력인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하심
- 지역이 주제로 참여하는 것은 가장 중요함. 허경 본부장님께서서는 영상문화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견해를 이야기해주심. 영상문화와 관련하여, 생활문화와 도시재생, 청년일자리, 사회경제, 주민자치 마을공동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례들을 꼼꼼하게 소개해주심. 이번 정부에서는 자치분권, 균형발전이 중요한 화두이자 과제이기 때문에 잘 수용되어야 하는 중요성을 언급하셨고, 부처 간의 소통을 중요한 부분으로 꼽아주심
- 장성각 본부장님께서서는 충남의 8개 시·군 협의체 구성의 중요성과 작은영화관의 수익구조가 영상문화 복지증진을 위해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주심. 천안의 사례를 통해 운영방안의 모델 구축이 필요함
- 구재준 센터장님께서서는 충남 영상문화의 포지셔닝을 구축하기 위해 인력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심. 또한 기존 영상미디어센터에서 미디어센터가 없는 지역의 다양한 영상문화를 포괄할 수 있는 사업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충남도에서 예산 지원이 필요함
- 한국의 영화산업의 매출은 약 2조원이며, 2억 관객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 영화 영상과 관련하여 협업과 네트워킹이 부재하며, 영화발전기금도 내고 있지만 혜택을 받고 있다고 느끼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임. 또한 현재까지 극장의 운영이 어려워졌지만, 향후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영상문화활동 진흥을 도모하고 있는 자치분권, 문화주권이 명실공히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 집 필 자 ■

연구 책임 · 정지은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외부연구진 · 정인선 동경대학교 박사

전략연구 2017-10 · 충남 영상문화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지역영상미디어센터와 작은영화관을 중심으로-

글쓴이 · 정지은, 정인선
발행자 · 강현수 / 발행처 · 충남연구원
인쇄 · 2017년 12월 31일 / 발행 · 2017년 12월 31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32589)
전화 · 041-840-1255(지역도시연구부) 041-840-1114(대표) / 팩스 · 041-840-1129
ISBN · 978-89-6124-406-0 03350

<http://www.cni.re.kr>

© 2017. 충남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